열한 번째 이야기

2025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광운대학교
KwangWoon University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각 글은 필자의 주관적 견해를 담고 있으며, 광운대학교 입학처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CONTENTS

추천사

Part 1 | 대입 제도 변화 읽기 07

1. 2028 대입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입안을 상상하며 08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2.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2028년에 어떻게 달라질까? 16
   박성환(홍성고등학교 교사)

쉬어가는 글 ① 입학사정관이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32
김명옥(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Part 2 | 변화하는 학교생활 준비하기 35

3. 나의 꿈을 현실로, 후회 없는 선택 과목 가이드 36
김용진(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사)

4. 학교생활기록부, 나의 삶을 기록하는 성장의 이야기 50
한충렬(송내고등학교 교사)

5. AI 시대의 학교수업과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질까? 62
홍주형(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쉬어가는 글 ② 곧 시작되는 입시,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70
이용찬(광운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Part 3 |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 73

6. 고교학점제 시대, 내 아이 진로 · 입시 돕는 현명한 부모의 말 다섯 가지 74
김은재(상원고등학교 교사)

쉬어가는 글 ③ 광운대 입학전형홍보대사 캠퍼스라이프 88
박미선(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학번)

부록 | 광운대학교 학과별 전공로드맵 91

학생부종합전형, 열한 번째 이야기

김문석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2014년부터 발간을 시작한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시리즈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를 꾸준히 발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언론에서 수험생 친화 우수사례로 소개된 바 있으며, 수험생은 물론 특히 고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께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는 교육부의 예산 지원으로 발간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대입전형의 공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대학에 예산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도 본 사업에 참여하여 2012년부터 올해까지 13년 연속 사업수행의 우수한 성과를 이루고 있습니다.

2025년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기준으로 대학입시에서 2028년부터는 수시 평가의 대부분이 변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교육부 및 대교협, 대학, 교육청, 각급 학교 등은 다양한 이슈로 활발히 토론하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졸업하게 될 학생들을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대학에 맞는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향에서 연구와 리서치, 대응방안 수립 등을 적극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학입시는 기존 입시의 틀을 깨고 선발 방식, 평가 내용 등에서 대학별로 다양한 형태로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입시의 큰 변화의 중심에서 학생들은 쉽게 길을 잃고 방향을 잡지 못할 가능성과 불확실성이 매우 큰 어려운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가 입시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등불을 밝혀주는 역할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는 변화하는 대입제도와 고교학점제 중심의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스토리북의 주요 내용은 '대입 제도 변화 읽기', '변화하는 학교생활 준비하기', '자녀와 함께 하는 부모의 역할'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대입 제도 변화 읽기'에서는 '2028 대입개편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입 방안'과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이 2028년에 어떻게 달라질까?'라는 주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학교생활 준비하기'에서는 '나의 꿈을 현실로, 후회 없는 선택 과목 가이드'와 '학교생활기록부, 나의 삶을 기록하는 성장의 이야기' 그리고, 'AI 시대의 학교 수업과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질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에서는 '고교학점제 시대, 내 아이 진로·입시를 돕는 현명한 부모의 말 다섯 가지'를 다루어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 장마다 고등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쉬어가는 글'을 마련해서 올바른 학교생활과 대학 진학을 위한 응원의 글을 담았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대학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에 소중하고 값진 원고를 제공해주신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교수님, 박성환(홍성고등학교)선생님, 김용진(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선생님, 한충렬(송내고등학교)선생님, 홍주형(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연구사님, 김은재(상원고등학교)선생님, 김명옥(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선생님, 박미선(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학번)학생에게 광운대학교에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스토리북 전체를 기획하고 진행해 주신 이용찬(광운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선생님께 특별한 감사를 전해 드립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들에게 분명히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준비 되셨으면 멋진 대학 생활을 위해 떠나 볼까요?

광운대학교 입학처장 김문석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1

Part 1 | 대입 제도 변화 읽기

1. 2028 대입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입안을 상상하며
   김성천(한국교원대학교 교원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2.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2028년에 어떻게 달라질까?
   박성환(홍성고등학교 교사)

쉬어가는 글 ① 입학사정관이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김명옥(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2028 대입안 그리고 그 이후의 대입안을 상상하며

김성천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부교수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 前 과천중앙고등학교 교사
- 前 경기도교육청 정책기획관 장학사
- 주요저서 〈고교학점제란 무엇인가〉, 〈모두 아픈학교, 공동체로 회복하기〉

1. 2028 대입안 알아보기

교육부는 2023년 12월 27일에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방안을 〈표1〉과 같이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멀쩡하게 시행된 대입제도를 왜 교육부는 손을 봤을까요? 2028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되면서 2022 개정교육과정이 시행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교학점제나 개편된 교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한 대입제도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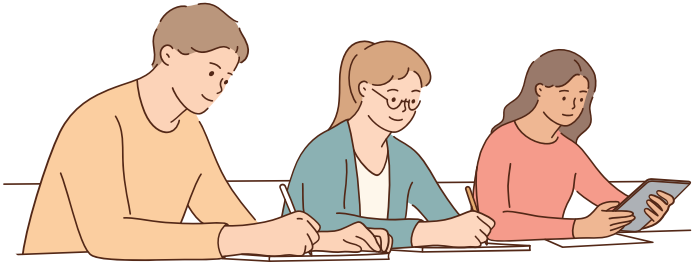
교육부가 발표한 내용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존의 수능안은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각각 존재했는데, 선택과목을 제2외국어 및 한문을 제외하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수능 영역을 전면 개편하였습니다.

② 수능에서 수학은 대수·미적분 Ⅰ·확률과 통계를 반영하되, 미적분 Ⅱ나 기하와 같은 심화수학은 출제 영역에서 제외하였습니다.

③ 영어와 한국사는 절대평가를 유지합니다.

④ 사회와 과학탐구는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중심으로 응시자 모두 동일하게 응시합니다.



〈표1〉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내용

영역		~2027수능	2028수능개편안
국어		**공통 + 2과목 중 택1** • 공통:독서, 문학 • 선택:화법과작문, 언어와매체	**공통** (화법과언어, 독서와작문, 문학)
수학		**공통 + 3과목 중 택1** • 공통:수학 Ⅰ, 수학 Ⅱ • 선택:확률과통계, 미적분, 기하	**공통** (대수, 미적분 Ⅰ, 확률과통계)
영어		공통(영어 Ⅰ, 영어 Ⅱ)	공통(영어 Ⅰ, 영어 Ⅱ)
한국사		공통(한국사)	공통(한국사)
탐구	사회·과학	**17과목 중 최대 택2** • 사회: 9과목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법, 사회·문화, 생활과윤리, 윤리와사상	◦ **사회 : 공통** (통합사회)
		• 과학: 8과목 물리학 Ⅰ, 화학 Ⅰ, 생명과학 Ⅰ, 지구과학 Ⅰ, 물리학 Ⅱ, 화학 Ⅱ, 생명과학 Ⅱ, 지구과학 Ⅱ	◦ **과학 : 공통** (통합과학)
	직업	**1과목 : 5과목 중 택1** **2과목 : 공통+[1과목]** • 공통 :성공적인직업생활 • 선택: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기초, 인간발달	◦ **직업 : 공통** (성공적인 직업생활)
제2외국어 / 한문		**9과목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Ⅰ, 프랑스어 Ⅰ, 스페인어 Ⅰ, 중국어 Ⅰ, 일본어 Ⅰ, 러시아어 Ⅰ, 아랍어 Ⅰ, 베트남어 Ⅰ, 한문 Ⅰ	**9과목 중 택1** • 제2외국어/한문: 9과목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출처: 교육부(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한편, 2028 대입안에 반영된 내신 체제는 〈표2〉와 같습니다.

① 기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개편하며

②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5등급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병기하되, 체육·예술·교양 교과(군), 과학탐구실험과목은 절대평가 성취도만 기재합니다.

③ 사회·과학 교과의 융합 선택과목은 상대평가 석차 등급을 미기재합니다.

〈표2〉 과목별 성적 산출 및 대학 제공 방식

구 분	절대평가		상대평가	절대평가		
	원점수	성취도	석차등급	성취도별 분포비율	과목 평균	수강 자수
보통교과	○	A · B · C · D · E	5등급	○	○	○
사회·과학 융합선택	○	A · B · C · D · E	-	○	○	○
체육·예술 / 과학탐구실험	-	A·B·C	-	-	-	-
교양	-	P	-	-	-	-
전문교과	○	A · B · C · D · E	5등급	○	○	○

〈출처: 교육부(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2. 2028 대입안을 둘러싼 논란

2028 대입안이 발표될 때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장 큰 비판은 내신과 수능을 절대평가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당시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4개 교육단체는 수능 절대평가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묵살되었으며, 고교학점제를 무력화하고, 학생과 교사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비판 성명서를 내기도 하였습니다(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외, 2023).

사실 고교학점제와 내신 및 수능 상대평가는 궁합이 잘 맞지 않습니다. 일종의 상극이라고 할까요? 고교학점제는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고려한 과목을 선택하는 방식을 적극 권장합니다. 하지만 수능의 비중이 여전히 높고, 내신 상대평가가 강조된다면 학생들은 수능 교과목 중심으로 선택할 것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이 모이는 과목 또는 난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과목은 선택을 기피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점에서 고교학점제가 성공하려면 수능의 비중을 줄이거나, 내신 및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2028 대입안은 내신과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현장에서는 기대를 했습니다만, 아쉽게도 그렇게 되지는 않았습

니다. 물론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는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함께 기재하는 시스템이지만, 대학의 입장에서는 상대평가 정보를 활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편, 수능에서 사회 및 과학탐구는 선택과목을 과감하게 없애고, 통합사회와 통합과학 중심의 공통과목을 운영한다는 점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선택과목의 유불리로 인해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는데, 복잡한 변수를 없애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점에서 학생 입장에서는 공정성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반면에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과목을 선택할 때 수능과목 반영 여부를 상당히 중시하게 됩니다. 사회과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공통과목으로 통합사회1, 통합사회2가 있습니다. 선택과목은 크게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으로 나누어집니다. 예컨대, 일반선택으로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현대사회와 윤리가, 진로선택으로는 한국지리탐구, 도시의 미래탐구, 동아시아 역사 기행,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윤리와 사상, 인문학과 윤리, 국제관계의 이해가, 융합선택으로는 여행지리, 역사로 탐구하는 현대세계, 사회문제탐구, 금융과 경제생활, 윤리문제탐구, 기후변화와 지속가능한 세계 과목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사회과나 과학과의 경우, 수능 과목에는 1학년때 듣는 통합사회나 통합과학이 반영되고, 주로 2학년이나 3학년때 듣는 일반선택, 진로선택, 융합선택은 수능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독서, 프로젝트, 토의토론, 탐구수업 등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는 수능에 굳이 얽매일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에 대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집중을 하고, 열심히 참여할 수 있을까요? 수능에 반영되지 않는 과목이라는 이유로 사회나 과학과목이 학생들에게 홀대받게 되지는 않을지 우려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내신 5등급제가 가져올 변화입니다. 한편에서는 내신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전환되어 촘촘한 변별의 기제를 완화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9등급제에 비해 5등급제가 내신 변별의 어려움을 상대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데, 대학에서는 성적과 같이 결국 숫자로 환원되는 정량평가가 아닌 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학생의 교육과정이나 수업 참여의 모습이나 역량, 진로 등을 포함한 정성 평가를 동시에 살펴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무조건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중시했다면 출결, 학폭가해 사실, 수업에서 나타난 모습, 교육과정 이수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1등급이 10%이고, 2등급이 24%(누적 34%)라는 점에서 한두 과목을 망치게 되면 내신에 타격이 커질 수 있다는 불안감과 부담감도 커질 수 있습니다.

2028 대입안은 현실과 이상의 타협안으로 보입니다. 고교학점제의 이상을 향해 나아가야 하지만 내신과 수능의 변별력을 어느 정도 두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상대평가 요소가 아직까지는 강하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3. 포스트 2028 대입안을 상상하며

과도기 방안으로 2028 대입안을 본다면, 이제는 그 이후의 방안도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러한 고민의 배경 중 하나는 대학에서 시작됩니다. 각 대학교는 어떤 입학 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들이 대학을 많이 이탈하고 있는지, 성적은 어떠한지, 대학 생활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지 등을 추적 관찰하거나 자체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마다 어느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연구 결과들을 보면 수능으로 들어온 학생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들어온 학생보다 대학을 이탈할 확률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강기수·조규관(2017)은 전국 46개 대학의 2015년과 2016년 전체 입학생 187,631명을 대상으로 대학전형 유형별 특성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을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수능위주로 들어온 학생들의 대학 중도탈락률이 4.0%로 나타났고, 학생부종합전형은 1.1%, 학생부교과 1.9%, 논술위주 1.3%, 실기위주 3.1%로 나타났습니다. 대입전형유형에 따른 대학의 학업성취도를 분석한 결과, 평균을 중심으로 보면 학생부종합 3.21 〉 논술위주 3.14 〉 학생부교과 3.13〉 수능위주 3.10 〉 실기위주 3.03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정희·이솔비(2021)은 D대학교 데이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과 학업성취도 평균을 비교분석하였는데, 학생부종합 3.74 〉 교과 3.65 〉 수능 3.55 〉 논술 3.46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과 만족도를 살펴봤는데, 학생부종합 3.53 〉 교과, 논술 3.44 〉 수능 3.42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학업성취도, 중도탈락률, 학과만족도 등에서 수능위주로 들어온 학생들이 N수를 향해 나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능은 반복을 통해 점수가 향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투자하여 소위 상위권 대학으로 이동하고 싶은 요인이 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는 당장 수능 성적이 1-2점 높은 학생보다는 전공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참여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을 더욱 선호할 수 밖에 없지요. 학생부종합전형은 성적도 보지만, 학생들의 삶의 태도, 성실성, 주도성, 전공에 대한 관심도 등을 살펴보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대학들은 정부가 제시한 정시 전형 40% 이상으로 선발할 것을 요구하는 방침에 변화가 필요하다면서 규제 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선발 자율성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는 앞으로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습니다.

수능을 가장 공정한 시험으로 인식하면서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시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결과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거나 대학을 가고 나서도 N수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능 응시생이 2000년도에는 한때 90만명에 육박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해마다 수능 응시인원은 줄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확대로 인해 N수생 열풍이 불고 있지만, 40만명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학생 충원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대학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90만명이 수능을 응시하던 상황과 40만명 이하가 응시하던 시대라면 이제는 평가의 문법이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어떤 방향으로 대입제도는 바뀌어야 할까요? 우선은 수시와 정시를 통합하고, 수능 이후부터 본격적인 전형이 시작될 필요가 있습니다. 고3 2학기 파행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수능 이후부터 전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수능점수를 요구하지 않는 학생부종합전형부터 시작을 하고, 수능 점수를 요구하는 전형을 마지막 단계에 실시해야 합니다. 추가 합격 등을 감안한다면 각 대학교에서 신입생 입학일을 3월 둘째 주 혹은 셋째 주 정도로 늦출 필요도 있겠지요.

수능과 내신은 5등급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합니다. 절대평가로 전환하게 되면 변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절대평가가 마냥 쉬운 문제의 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항 난이도를 조절한다면 절대평가를 해도 변별은 가능합니다. 동시에, 수능과 내신의 조합으로 어지간한 대학들은 충분히 학생 선발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모집단위별 특성화 전형을 적용하면 됩니다. 예컨대, 경제학과라면 내신이든 수능이든 전공 특성상 수학을 잘하거나, 경제 관련 과목을 더 들은 학생들에게 가중치나 지원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신 절대평가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내신 절대평가를 시도했다가 온정주의와 부풀리기로 인해 실패한 선례가 있습니다. 성취기준의 도달 여부를 제대로 평가하고, 평가의 질 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는 남겨진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사의 평가 전문성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절대평가 도입이 어렵습니다. 내·외부적인 평가의 책무성이나 책임성 장치를 통해 평가에 관한 나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교육청이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면접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기록된 학생의 역량(협업, 문제해결력, 학생주도성 등)이라든지 전공에 대한 관심도나 학습의지 등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대학교에서도 입학사정관 충원, 평가 전문성 개발, 타당도와 신뢰도가 높은 평가 도구 개발 등을 위해 투자를 많이 해야 합니다. 수능과 내신 점수 합산을 통한 정량 지표 중심의 선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수능의 성격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을 갖추었는가를 확인하는 차원으로 수능1을 제안합니다. 5등급 절대평가를 적용한 자격고사화 수준으로 수능1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신과 수능의 조합으로 어느 정도 선발이 가능하지만, 여전히 일부 대학에서는 변별이 어렵다는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고교학점제의 취지를 살려 계열형 논술을 반영한 수능2를 볼 수 있습니다. 일부 대학에서 운영하던 기존의 논술전형처럼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는 도무지 풀 수 없는 고난도 논술이 아니라 기본 자료를 해석하면서 도전적인 질문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창의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됩니다. 논술의 성격과 방향을 바꾸면 되지 않을까요? 모든 학생이 수능2를 볼 필요는 없으며,

요구하는 대학이 있다면 수능2를 볼 수 있겠지요. 요즘 글씨를 못 쓰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CBT(Computer Based Test)로 보고, 평가는 대학에 맡기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논술은 사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창의력, 문해력, 논리력, 표현력, 비판적 사고, 융합 사고 중 무엇을 중시할 것인가에 따라 채점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학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겠다는 기준만 미리 밝혀주면 됩니다.

논술 평가의 공정성이나 비용의 문제는 AI를 활용하여 평가 기준표를 입력하면 어느 정도 가채점이 가능합니다. 임종한·임종헌(2024)은 ChatGPT를 활용하여 논·서술형 평가의 가능성을 실행연구하였습니다. 평가의 기준표를 이해하고, 그 기준에 의해 ChatGPT를 활용한 채점이 가능하며, 교사의 업무 경감이라든지 채점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기준표에 근거한 구체적 피드백이 가능하다는 점도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AI에 전적으로 채점을 의존하기보다는 참고용으로 활용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본다면, 교사나 전문가들이 채점을 하면서 평가자 간 기준에 편차가 나타날 때 AI 평가를 참고하여 조정할 수 있을 겁니다. 논·서술형 평가를 말하면 사교육비 증폭을 자동 반사적으로 떠올립니다. 결국 공교육에서 독서-토의토론-글쓰기 등이 일상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AI와 에듀테크의 시대에 오히려 주체성과 주도성을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가진 존재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리터러시할 수 있는 성찰과 통찰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합리적 논증 과정에 근거한 '자기 생각 만들기'를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는 공교육의 중요한 존재 이유가 될 것입니다.

1994년도에 수학능력시험을 도입했습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5지선다형 상대평가의 틀을 언제까지 우리는 고수해야 할까요? 물론 수능을 완전히 없애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능이 지닌 강점과 기능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공정성' = '수능확대'로 보는 단순한 접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합니다. 다양성의 가치 내에서 실현되는 공정성으로 재해석할 때 대입 전형에 대한 새로운 상상력이 입혀지지 않을까요?

참고문헌

교육부(2023).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확정안, 교육부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좋은교사운동·사교육걱정없는세상·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2023). 국가교육위원회는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에 대한 편향적인 권고안을 철회하고 현장과 적극 소통하라. 성명서
강기수·조규판(2017). 대입전형유형별 입학생 특성 분석. 한국교육학연구 23(3), 143-164.
임종한·임종헌(2024). ChatGPT API 활용 인공지능 논·서술형 평가 자동채점 프로그램 개발 실행연구. 교육혁신연구 34(1), 349-370.
최정희·이솔비(2021). 입학전형에 따른 대학생의 학업성취도와 학과만족도 종단연구: D대학의 사례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9), 75-90.

학생부종합전형과 학생부교과전형, 2028년에 어떻게 달라질까?

박성환
- 홍성고등학교 교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 전국진학지도협의회 연구팀장
- 충남진학지도지원단

2028학년도 대학입시는 고등학교 교육 현장과 학생, 학부모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치며, 대입 준비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 통합형 수능 도입이라는 세 가지 구조적 변화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기존의 입시 준비 방식에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해졌습니다.

특히, 석차등급 산출 방식이 느슨해짐에 따라 대학들은 학생부 기반 전형의 변별력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개선안을 마련 중입니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자교의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전형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전형 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있습니다.

서울대, 한양대, 동국대 등은 교육부의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자율공모 '전형 운영 개선' 분야에 선정되어, 정시 모집 비율을 기존 40%에서 30%로 축소하고, 학생부 중심 전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입전형을 재설계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2028학년도 전형 계획에서 모든 전형에 학생부를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한양대는 고교 교육과정을 충실히 반영하고, 교과 및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활용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교육성과관리센터(IR센터) 자료를 전형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동국대는 정시 축소와 더불어 2027학년도부터 고교 교육과정 중심 전형을 운영할 예정이며,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행평가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행평가 영역명 등을 대입 전형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의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고교교육 기여대학 자율공모사업 전형 운영 개선 관련 언론보도

[단독] 2028서울대 전 전형 학생부 반영.. 한대 동대 '기여대학사업 날개 달고 정시30% 축소'

'신설' 자율공모사업 숭실대 경기대 아주대 등 16개교.. 기본사업 수도권 38개 지방 54개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 정시 비중 40%→30%로 축소될...

현 고1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의 정시모집 비중이 40%가 아닌 30% 이상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

한겨레 on MSN · 13일

2028년 입시부터 서울대 정시 비중 40%→30% 줄인다

2028학년도부터 서울대, 동국대, 한양대의 정시모집 비율이 40%에서 30%로 낮춰진다. 대입 정시 확대에 따른 부작용과 형평성 문제 등을 둘러싸고 교육계 우려가...

베리타스알파 · 12일

[단독] 2028서울대 전 전형 학생부 반영.. 한대 동대 '기여대학...

[베리타스알파=신현지 기자] 수시 전 전형 학종 선발을 이어오며 고교 교육 현장 정상화를 외쳐온 서울대가 2028학년부터 정시를 포함한 전 전형 학생부 반영을 추...

이데일리 · 12일 · on MSN

現고1 치를 대입, 서울대 수시 비중 '최대 70%'까지 열린다(종...

현재 고1 학생들이 치를 2028학년도 대입부터 서울대·한양대·동국대는 정시 모집 비율을 기존 40%에서 30%까지 낮출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수시 모집 비중은 ...

정시모집 비율 40% 이상 확대 정책은 그동안 다양한 문제점을 야기해왔습니다. 신입생 중도 탈락률 상승, N수생의 지속적인 증가, 공교육 약화 등이 대표적인 부작용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이 발표한 「대입 N수생 증가 실태 및 원인과 완화 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입 N수 과열 완화를 위해서 정시 40% 확대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도출되었습니다.

2028년에 어떻게 달라질까?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에 따르면, 2028학년도에는 학생부종합전형이 확대되고, 수능 위주 및 논술 위주 전형은 축소되거나 현행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학생부교과전형과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현재와 비슷한 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해당 연구는 전형별 적정 모집 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전체 모집 인원의 약 20%, 학생부종합전형은 약 40%, 논술 및 실기/실적 위주 전형은 약 15%, 수능 위주 전형은 약 30%가 적정하다는 결론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가능성을 뒷받침하며, 동시에 각 전형의 평가 요소 구성에도 변화가 있을 것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기존의 정량평가 방식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요소의 도입,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여부 등 다양한 변화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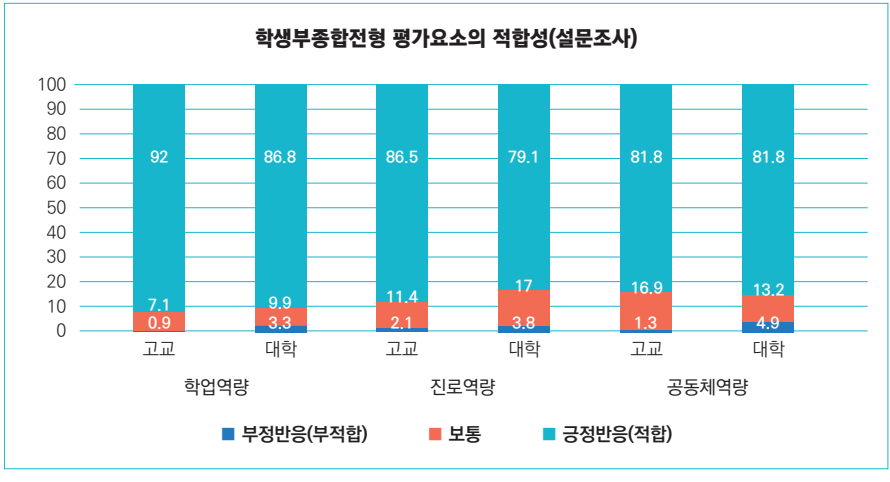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 신설, 다각화

각 대학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의 구조를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 전형 시행계획에서 나타난 변화는 2028학년도 학생부 중심 전형의 방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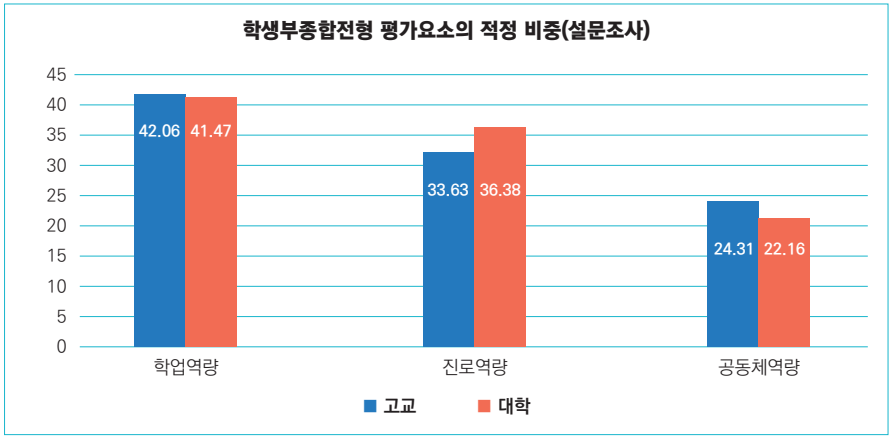
경희대는 인재상을 '성찰하는 지성인', '창조하는 미래인', '공존하는 세계인'으로 개편하고, 이에 기반한 전형 운영의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강대는 학생부종합전형을 '일반 Ⅰ'과 '일반 Ⅱ'로 이원화하여 전형 유형별로 평가 요소를 차별화하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융합인재전형'에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도입하여 학업역량 검증을 강화하였고, 숙명여대는 면접 반영 비율을 축소하고, 서류 기반 평가의 비중을 확대, 중앙대는 '성장형 인재 전형'을 새롭게 신설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도입하여 종합적 평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특히, 한양대는 '사회통합전형'을 신설해 자연계열 한양인터칼리지에서 5명을 선발하며, 기존의 서류형 전형은 584명에서 481명으로 축소, 추천형 전형은 197명에서 291명으로 확대하였고, 의예과의 경우, 서류형 전형을 폐지하고 학생부 기반 면접형 전형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많은 변화를 주었으며, 결국 우수한 학생의 선발을 위한 검증 방법을 제시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전형 구조의 세분화, 전형 유형 간 균형 조정, 수능 최저기준 강화 등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과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흐름은 2028학년도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대학마다 자율성과 특성을 반영한 전형 설계가 더욱 정교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 수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에서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에 대한 적합성과 적정 비중에 관한 설문 결과가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습니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은 모두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로서 '적합하다'는 응답을 80% 이상 받았으며, 대학보다 고등학교 교사들이 해당 요소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경향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별 적정 비중에 대해서는, 학업 역량 40%, 진로 역량 35%, 공동체 역량 25%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였습니다.

아울러 2028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과목별 중요도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전국 489명의 대학 관계자를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전국진학지도협의회 주관)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과목중요도

과목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공통과목	4.35	0.71	4.40	4.32
일반선택과목	4.12	0.76	4.12	4.13
진로선택과목	3.94	0.93	3.87	3.99
융합선택과목	3.56	0.93	3.50	3.57

공통과 일반선택 과목이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의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단순한 진로 중심 활동보다는 교과 기반의 기초 소양과 지식·원리를 바탕으로 한 진로 탐색 과정을 평가하겠다는 방향성을 시사합니다. 즉, 진로 연계 활동 자체보다 각 교과에서의 학업 성취와 논리적 사고력 등을 통해 진로 적합성과 성장 가능성을 살펴보려는 의도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성적 지표 중에서는 '이수 과목'의 중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어떤 교과를 선택해 이수했는지가 대입 평가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성적 지표 중요도

성적 지표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성취도	4.19	0.72	4.20	4.18
석차등급	4.19	0.83	4.27	4.13
평균	3.88	0.80	3.92	3.85
이수과목	4.26	0.70	4.35	4.20
이수자수	3.82	0.90	3.89	3.77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3.88	0.96	3.92	3.84

이는 기존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체계와 맥을 같이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전면 시행과 통합형 수능 도입으로 인해 학생들이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서울대·경희대 등 주요 대학은 전공 연계 필수 또는 권장 교과목을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 대입 전형에서도 해당 과목의 이수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서울대는 자연계열 지원자를 대상으로 수학Ⅱ, 미적분, 과학탐구 과목의 이수를 권장하고 있으며, 경희대도 전공별 이수 과목 가이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과목 선택의 중요성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입니다.

또한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등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학생들의 학업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에 대학들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 수능 최저 기준 등 다양한 평가 요소를 도입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도입 평가요소 중요도

도입 평가요소	평균	표준편차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면접	4.11	0.91	4.20	4.05
수능최저학력기준	3.88	0.95	3.88	3.87
학업계획서 등 추가서류	3.14	1.10	3.14	3.14

위와 같이 학생부종합전형의 새로운 평가 요소를 묻는 설문에서 면접의 중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결과이며, 향후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식이 변화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은 크게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이원화되고 있으며, 서류형 전형에서는 기존보다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거나 강화하는 경향, 면접형 전형에서는 면접 반영 비율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뚜렷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학생의 학업역량과 진로역량을 다양한 방식으로 검증하고자 하는 대학의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학생부 외에도 수능과 면접 준비가 학생부종합전형에서도 더욱 중요해질 것임을 보여줍니다.

학생부종합전형 면접 반영 방향

면접 반영 방향	N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	155	42.70	75	44.64	80
비율 확대	130	35.81	62	36.90	68
비율 축소	23	6.34	12	7.14	11
방법 변경	41	11.29	15	8.93	26
면접 평가 폐지	14	3.86	4	2.38	10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하려는 수험생이라면, 학생부 준비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수능과 면접까지 함께 대비해야 원하는 대학이나 학과 지원이 수월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입 전형자료 추가 제공

2028 대입에서는 대학 전형 자료를 추가로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되어 고교와 교사, 학생 모두 이러한 변화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지필 ·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과 평가 방식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대입 전형자료 추가 제공에 따른 지필·수행평가 반영 방법

지필·수행평가 반영 방법	N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미반영	60	12.27	28	13.53	32
정량평가	201	41.10	72	34.78	129
정성평가	228	46.63	107	51.69	121

'2028 대입 평가 설문(전국진학지도협의회)' 분석 결과,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높은 응답 비율을 보였으며, 특히 정성평가의 경우 수도권보다 비수도권 대학에서 더 높은 반영 비율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대입 전형 자료 추가 제공에 따라, 대학 역시 이를 적극적으로 평가에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2028 대입이 학생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교-교사-학생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정성평가 도입

2028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의 성적 지표에 대한 중요도를 분석한 '2028 대입 평가 설문(전국진학지도협의회)' 결과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성적 지표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이수 과목에 대한 중요도 인식이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활용 성적 지표

성적 지표	평균 점수	표준편차
과목평균	3.99	0.89
석차등급	4.19	0.91
성취도(A,B,C,D,E)	4.17	0.89
성취도별분포비율	4.15	0.86
원점수	3.79	1.02
이수 과목	4.37	0.74

통합형 수능에 따라 대학 수학에 필요한 이수 과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초 교과 이수 여부, 관련 계열의 교과 이수 학점, 과목별 학업 충실도 등을 함께 반영하려는 대학의 평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의 교과 선택과 이수 이력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이수학점 고려여부

이수학점 고려 여부	N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고려	422	86.30%	189	91.30%	234
고려하지 않음	67	13.70%	18	8.70%	48

이러한 대학의 고민은 이미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 요소가 도입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대입부터 서울시립대와 한양대는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를 도입하였습니다.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전형에서는 교과 90%+교과정성평가 10%로 선발하며, 정성평가 방법으로 진로 및 전공분야 탐구에 적합한 교과이수 및 학습 등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2027학년도 대입에서는 교과정성평가 비율을 20%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양대는 정량 90%+정성10%로 선발하며, 정성평가 요소는 계열 적합성(이수 과목, 이수 학점 등)과 학교생활 성실도(출결, 학교폭력 여부 등) 입니다. 숙명여대 역시 2027학년도부터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서류평가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2026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실시 대학

대학명	전형명	인원	수능 최저	전형방법	학생부 정성 평가 요소
건국대	KU지역균형	428	×	학생부100 (정량70+정성30)	학업역량, 진로역량
고려대	학교추천 (12명)	653	○	교과90+ 서류10	교과이수충실도70 +공동체역량30
경희대	지역균형	562	○	교과70+ 교과평가30	일반:학업역량50+ 진로역량50 자율(자유):학업역량
동국대	학교장추 천인재(8명)	403	×	교과70+ 서류30	학업역량50+진로역량30 +인성 및 사회성20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20명)	236	○	교과90+ 교과정성10	학업성취도, 교과이수 및 학습
성균관대	학교장추천 (15명,재학생)	146	○	학생부100 (정량80+정성20)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한양대	추천형 (11%)	333	○	학생부100 (정량90+정성10)	계열적합성, 학교생활성실도

2027학년도에는 2026학년도보다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이 높아졌거나, 이를 새롭게 도입한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7학년도에는 서울시립대, 한양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등 주요 대학에서 학생부교과전형에 정성평가의 반영 비율을 확대하거나 신설하고 있습니다.

2027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실시 대학

대학명	전형명	인원	수능 최저	전형방법	학생부 정성 평가 요소
건국대	KU지역균형	346	×	학생부100 (정량70+정성30)	학업역량, 진로역량
고려대	학교추천 (12명)	648	○	교과90+ 서류10	교과이수충실도70 +공동체역량30
경희대	지역균형	604	○	교과70+ 교과평가30	일반:학업역량50+ 진로역량50 자율(자유):학업역량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8명)	410	×	교과70+ 서류30	학업역량50+진로역량30 +인성 및 사회성20
서울시립대	지역균형선발 (20명)	236	○	교과80+ 교과정성20	학업성취도, 교과이수 및 학습
성균관대	추천인재 (15명)	429	○	학생부100 (정량80+정성20)	학업수월성, 학업충실성
숙명여대	지역균형발전	287	× (약학부 제외)	교과70+ 서류30	교과위주
한양대	추천형 (11%)	336	○	학생부100 (정량90+정성10)	계열적합성, 학교생활성실도

*성균관대 추천인재 지원자격 확대: 졸업생 포함 직전학년도 졸업생 추천 가능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 및 면접 반영 대학의 증가

학생부교과전형의 경우 대표적으로 정량평가를 바탕으로 이뤄지고 있는 전형입니다. '2028 대입 평가 설문(전국진학지도협의회)'을 통해 살펴본 학생부교과전형 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은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방법

평가방법	소계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등급만반영	20	4.09%	7	3.38%	13	4.61%
+ 성취도반영	47	9.61%	17	8.21%	30	10.64%
+ 원점수반영	39	7.98%	11	5.31%	28	9.93%
+ 성취도별분포 비율반영	58	11.86%	25	12.08%	33	11.70%
+ 종합적반영	325	66.46%	147	71.01%	178	63.12%

약 67%의 응답자가 교과학습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고 응답했으며, 수도권 대학의 응답률이 비수도권보다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학생부교과전형에서 단순한 성적(정량평가)뿐만 아니라 학생의 학업 성장 과정과 태도 등 정성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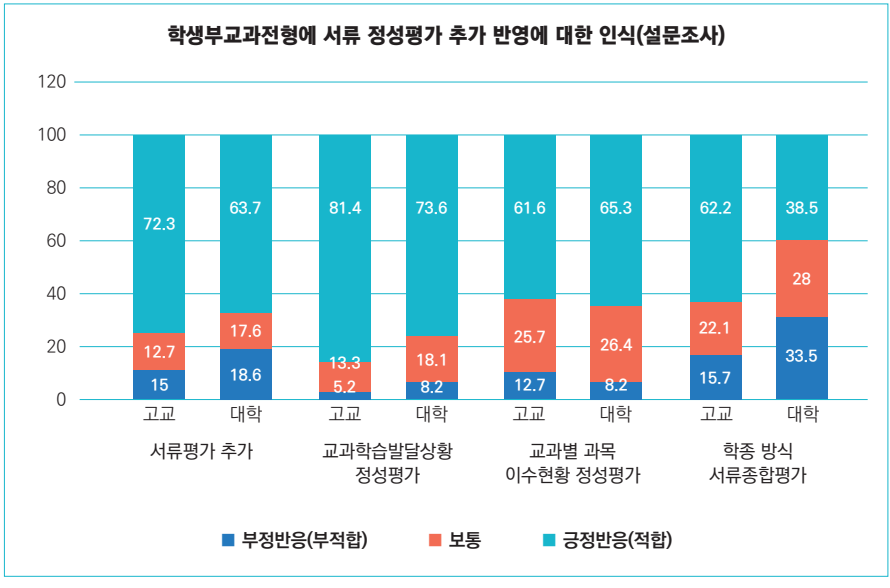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학년별 반영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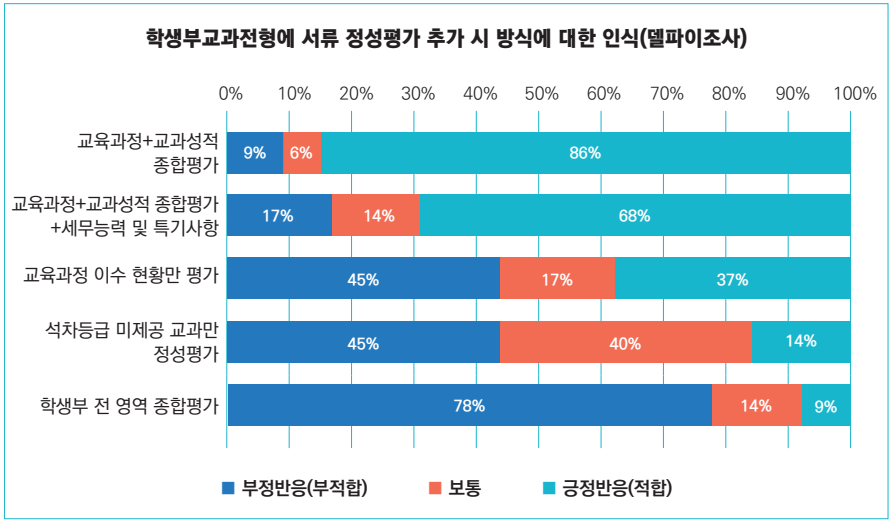
학년별 반영방법	소계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동일 비율 반영	203	41.51%	77	37.20%	126	44.68%
저학년비중확대	22	4.50%	12	5.80%	10	3.55%
고학년비중확대	251	51.33%	110	53.14%	141	50.00%
기타	13	2.66%	8	3.86%	5	1.77%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전 교과에서 성적이 산출되는 구조 속에서, 사회·과학 융합선택과목이나 예체능, 교양 과목 등을 제외한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동일 비율 반영이나 고학년 비중을 확대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자기주도 학습 태도와 성실한 이수 과정을 바탕으로, 학업 역량은 물론 학습 의지와 태도까지 균형 있게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교과목을 꾸준히 선택해 나가는 과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추가 활용 대학 증가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추가 활용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에서도 교과전형에 서류평가를 추가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 이수 현황, 교과 성적,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등)과 교과별 이수 과목에 대한 정성평가의 비중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





'2028 대입 평가 설문(전국진학지도협의회)' 분석 결과에서도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의 평가 방식에 대해, 기존의 교과 100% 방식만을 유지하려는 응답보다 교과 성적에 면접을 결합하는 방식(약 24%)이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약 39%)이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특히 전체 응답자의 약 63%가 학생부교과전형에 추가적인 평가 요소 도입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과전형의 평가 방식이 정량 중심에서 점차 정성 요소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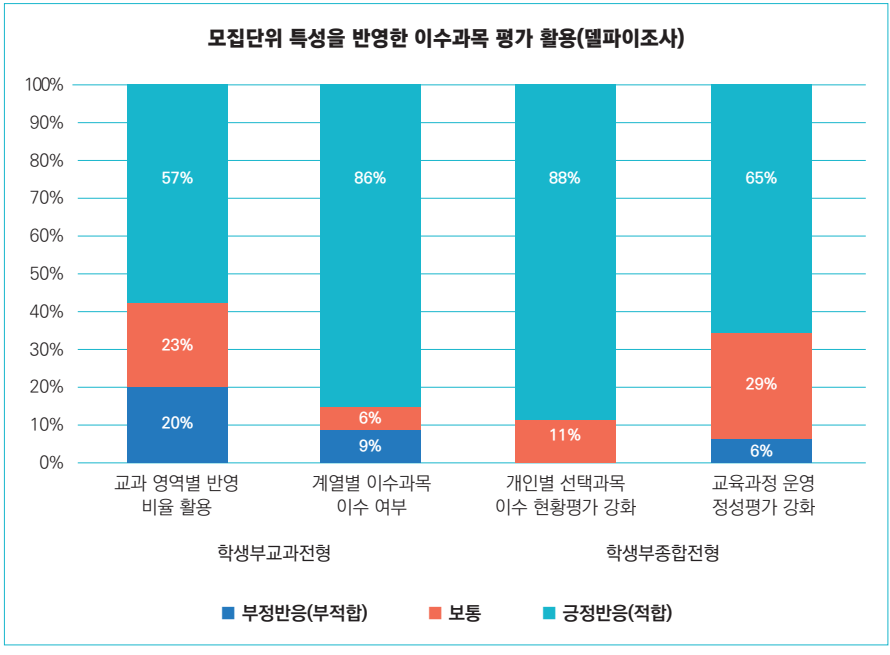
2028학년도 대입 학생부교과 평가 요소

2028 대입 평가 요소	소계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교과100	18	3.68	5	2.42	13	4.61
교과+출결	37	7.57	12	5.80	25	8.87
교과+면접	118	24.13	54	26.09	64	22.70
교과+수능최저	190	38.85	75	36.23	115	40.78

이는 2028학년도 대입이 기존처럼 특정 전형에만 집중하는 준비 방식보다는, 교과·면접·서류 등 다양한 영역을 균형 있게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유리하도록 설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한 영역에 치우친 대비보다는 학교생활 전반에서 성실하고 꾸준한 노력을 기울인 학생들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형 구조가 재편되고 있는 것입니다.

모집단위 특성을 고려한 선택 과목의 대입전형 활용

2028학년도 대입의 핵심적인 변화 중 하나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를 도입하는 대학이 점차 확대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대학들은 모집단위별 교육 목표와 특성을 고려하여, 권장 이수 과목이나 학생의 과목 선택 과정을 평가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정량평가의 경우에도 기존의 일률적인 반영 방식에서 벗어나, 계열이나 전공 적합성을 고려해 교과 영역별 반영 비율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학생부교과전형 정성평가 실시 대학의 확대 추세

경희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가 공동으로 수행한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에 따른 전형 개선 연구'에 따르면, 변화된 내신 및 수능 체계에서의 변별력 확보를 위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기존의 석차등급 중심 정량평가를 보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성취도 반영 확대와 더불어, 공통과목 35%, 선택과목 65%를 기준으로 일반선택 30%, 진로선택 20%, 융합선택 15% 내외의 반영 비율을 제안하였으며, 교과 정량평가 요소 중 출결 사항과 계열별 이수 과목 이수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이 높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8학년도 대입 학생부교과전형 정량평가 반영교과

반영교과	소계		수도권(207)		비수도권(282)	
전교과	92	18.81%	34	16.43%	58	20.57%
국, 수, 영, 사, 과	95	19.43%	37	17.87%	58	20.57%
계열별 반영	231	47.24%	104	50.24%	127	45.04%
상위일부과목 (대학자율)	71	14.52%	32	15.46%	39	13.83%

2028학년도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더불어 교과 이수 내용 등 학생부 전반에 대한 평가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이수 과목 선택과 학업 성실도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학교생활 중에는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발표하는 역량을 꾸준히 길러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위주전형

2026학년도부터 연세대, 한양대, 성균관대(사범대학)를 비롯한 주요 대학들이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학생부를 일부 반영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흐름은 2027학년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국대는 정시 다군에서 수능 90% + 학생부 평가 10%를 반영하고, 중앙대는 체육교육과에 한해 수능 80% + 서류 20%를 반영하며, 전 모집단위에서 출결 10%를 포함하는 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성균관대는 사범대에 한해 정시 다군 학생부종합전형을 신설하여 학생부 100% +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수능위주전형에서도 학생부의 영향력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6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반영 대학

대학명	전형명	인원	학생부 반영 비율	학생부 평가 방법
고려대	교과우수	570	20%	교과(등급 및 성취도), 출결(미인정 결석 3일 초과 감점)
서울대	지역균형	162	40%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일반전형	1,161	20%(2단계)	
성균관대	일반전형	30	20%	학생부종합평가
연세대	일반전형 (인문,사회, 언더우드국제)	1,332	5%	교과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한양대	일반	1,132	10%	교육 과정의 충실한 이수 및 교과목 선택 성취도 종합 평가

2027학년도 수능위주전형 학생부 반영 대학

대학명	전형명	인원	학생부 반영 비율	학생부 평가 방법
고려대	교과우수	593	20%	교과(등급 및 성취도), 출결(미인정 결석 3일 초과 감점)
동국대	일반(다군)	315	10%	무전공(광역화): 교과 관련 영역 (교과학습발달상황,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출결,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사범대학: 학교생활기록부 전 영역
서울대	지역균형	153	40%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
	일반전형	1,196	20%(2단계)	
성균관대	일반전형(다군) 학생부 위주	40	100% *수능 최저 적용	학생부종합평가
중앙대	일반	1,672	10%	출결
	일반(체육교육과)	15	20%	학생부종합평가
연세대	일반전형(가군)	1,340	5%	교과 석차등급,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 비율
한양대	일반	1,137	10%	교육 과정의 충실한 이수 및 교과목 선택 성취도 종합 평가

2028학년도 대입에서는 수시와 정시,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모두 학생부가 중요한 평가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통해 지식과 원리에 기반한 학습을 충실히 수행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전적인 이수 과목 선택과 진로 연계 활동을 실천해 나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수능은 특정 학생에게만 필요한 전형이라는 기존의 오해를 바로잡고, 학생부와 수능이 모두 기본이 되는 대입 준비가 2028학년도부터는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2028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학생부위주전형과 수능위주전형의 양축 체제 강화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학생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진로·계열에 따른 교과 이수 내역이 평가에 적극 반영됨에 따라 학생들은 고교 교육과정 전반에서 체계적인 이수 계획과 자기주도적 학습이 필요합니다.

2. 수능을 통한 일정 수준의 학업역량 확보 필요

학생부전형과 수능위주전형 모두에서 대학은 일정 수준의 학업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능은 선택이 아닌 기본적인 학업 역량 검증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이에 대한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3. 학생부 정성평가 및 면접의 도입 확대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에서 정성평가 및 면접을 추가로 도입하는 대학이 증가하고 있어, 단순한 성적 관리뿐만 아니라 교과 선택의 타당성과 성실한 수업 참여, 말하기·표현력 등 면접 역량에 대한 지속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입학사정관이 당신의 꿈을 항상 응원합니다!

김명옥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입학사정관으로서 학생들을 위한 에세이를 작성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떤 글을 써야 할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저 자신 또한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는 뜻깊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입학사정관이라는 업무를 처음 시작한 것은 2012년, 막 여름이 시작되던 무렵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입학사정관제(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 자체가 생소했던 시절이었고, 저 역시 모든 것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특히 입학사정관으로서의 첫 서류평가는 잊을 수 없는 기억입니다. 자기소개서, 학교생활기록부, 교사추천서, 포트폴리오(당시에는 다양한 자료를 평가자료로 활용 가능했음)를 마주하고 학생의 열정과 노력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이 학생은 꼭 선발해야 합니다!"라고 신입입학사정관으로 패기를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입학사정관 일을 시작한 그때나, 10년이 넘은 지금이나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은 언제나 학생들의 진심어린 '꿈'과 '열정'을 만났을 때입니다.

특히, 지원한 학생의 꿈과 열정을 보고 직접 선발한 학생이 대학 입학 후 꿈을 향해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 일하면서 힘들었던 일들을 잊게 하고 입학사정관으로서의 보람과 함께 나도 같이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면접평가 때 만났던 학생이 우수 대학 생활 사례로 뽑혀 발표 및 멘토링을 해주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에 위축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교환학생 등 자신의 꿈을 향해 계속 도전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또, 현재 본인이 원하는 글로벌 마케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학생도 있고, 직접 서류평가 때 평가(블라인드 평가 전)하여 선발하였던 학생이 입학처 소속 홍보대사로 함께 활동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원하는 직장에 취업할 때 같이 울었던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결혼한다는 소식을 알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볼 때마다 더욱더 입학사정관으로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많은 학생을 만나고, 서류 및 면접 평가를 하고, 때로는 대학 생활 이후까지 지켜보는 시간을 거치며 저는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학생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존재이며, 그 성장은 단순히 성적이나 결과로만 증명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입학사정관 업무를 시작했을 때나, 10년이 지난 지금도 고등학교를 방문하면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질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중간에 진로가 바뀌었는데 평가에 불이익은 없나요?"입니다. 저의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입니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며 진로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당장 명확한 목표가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나의 꿈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을, 망설임보다는 도전을 선택하며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권합니다. 분명 그 어떤 작은 경험에서라도 본인 스스로는 성장하고 있으며, 그것이 여러분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때의 고등학교 생활과 경험이 자양분이 되어 대학 입학 후에도 분명 자신의 꿈을 향해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모든 학생들의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도전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며, 그 노력은 분명히 자신만의 빛나는 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2

Part 2 | 변화하는 학교생활 준비하기

3. 나의 꿈을 현실로, 후회 없는 선택 과목 가이드
김용진(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사)

4. 학교생활기록부, 나의 삶을 기록하는 성장의 이야기
한충렬(송내고등학교 교사)

5. AI 시대의 학교수업과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질까?
홍주형(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쉬어가는 글 ② 곧 시작되는 입시,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용찬(광운대학교 선임입학사정관)

나의 꿈을 현실로, 후회 없는 선택 과목 가이드

김용진
- 동국대학교사범대학부속영석고등학교 교사
- 前 서울중등교육과정연구회 총무
- 前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입상담센터 상담교사

고교학점제는 진로와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처지에서는 자신이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하는지 궁금한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학생 중에서는 자신의 진로를 확고하게 정한 학생도 있고, 어느 정도 범위로 좁힌 학생도 있고, 전혀 정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 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은 과거의 문과, 이과를 정하는 수준에서부터 특정 직업이나 모집 단위 진학을 희망하는 것까지 학생마다 다 사정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진로를 일정 수준의 범위까지 결정했다면, 그에 따라 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에서 대학 입시는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진로 유형에 따라 과목을 선택할 때 대학의 평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에 여러 대학이 각 대학 나름으로 진로에 대한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하였습니다. 대학별 발표 내용을 정리해 보고 그 의미를 바탕으로 어떤 과목을 어떻게 배워야 할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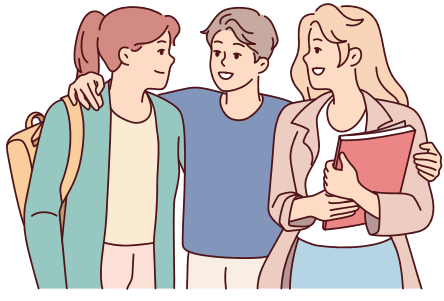
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는 6월 30일에 2028학년도 서울대학교 전공 연계 과목 선택 안내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안내는 기존의 '교과이수기준 Ⅰ·Ⅱ'와 '전공 연계 교과 이수 과목' 체계를 단순화하여 통합한 것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동시에 전공 탐색 및 융합 교육을 지향하는 대학 교육의 취지를 반영하여 최소한의 권장과목을 제시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여기서 가장 주목할 표현은 '최소한의 권장과목'입니다. 여기서 제시한 과목만 이수하면 된다가 아니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이 과목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의미 정도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학교 사정으로 인해서 해당 과목이 개설되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자체 모집 단위를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서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형①은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를 의미합니다. 주로 과거 인문/자연의 분류 체계에서 인문 계열 모집 단위로 불린 곳이거나, 인문, 자연 계열을 모두 선발하던 곳들입니다.

유형	모집단위	교과(군)	권장과목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
①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간호대학** **경영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 **사범대학** 교육학과, 국어교육과, 영어교육과, 독어교육과, 불어교육과, 사회교육과, 역사교육과, 지리교육과, 윤리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소비자아동학부,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제2외국어/한문]	1과목 이상		

유형① 모집 단위들은 제2외국어/한문에서 과목 유형에 상관없이 1과목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서울대학교 교과 이수 기준 Ⅰ에 있었던 내용으로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과목의 유형도 제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2022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필수 이수 학점 중 기술가정/정보/제2외국어/한문/교양 교과 16학점 규정을 고려하면, 보통의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누구나 쉽게 충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table>
<tr><th rowspan="2">유형</th><th rowspan="2">모집단위</th><th rowspan="2">교과(군)</th><th colspan="3">권장과목</th></tr>
<tr><th colspan="2">일반 선택</th><th>진로 선택</th><th>융합 선택</th></tr>
<tr><td rowspan="6">②</td><td rowspan="6">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식물생산과학부,
산림과학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응용생물화학부,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스마트시스템과학과
사범대학
수학교육과,
물리교육과,
화학교육과,
생물교육과,
지구과학교육과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의류학과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첨단융합학부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td><td>[수학]</td><td colspan="2">–</td><td>기하, 미적분 II
(단, 간호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기하' 또는 '미적분II')</td><td>–</td></tr>
<tr><td rowspan="5">[과학]</td><td colspan="2">아래 모집 단위의 경우 제시한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함</td><td rowspan="5">3과목 이상
(단, 의과대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td><td rowspan="5">–</td></tr>
<tr><td>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
물리학전공,
공과대학,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td><td>물리학</td></tr>
<tr><td>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td><td>화학</td></tr>
<tr><td>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의과대학</td><td>생명과학</td></tr>
<tr><td>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지구환경과학부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td><td>지구과학</td></tr>
<tr><td>약학대학</td><td>화학 또는 생명과학</td></tr>
</table>

유형②에 속하는 모집 단위들은 자연과학대학, 간호대학, 공과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 사범대학, 생활과학대학,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 첨단융합학부, 치의학대학원으로 주로 전통적인 분류에서 자연 계열 모집 단위에 속합니다. 이 모집 단위에 대해서는 수학과 과학 교과에 대해서 권장과목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모든 모집 단위에 대해서 기하, 미적분Ⅱ의 이수를 권장하였습니다. 다만 간호대학,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는 '기하' 또는 '미적분Ⅱ'를 제시하였습니다. 수학 교과의 일반 선택 과목인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의 경우는 수능 공통 과목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든 학생이 이수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니 굳이 지정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인 자연 계열 수학에 해당하는 과목인 기하, 미적분Ⅱ를 권장과목으로 제시한 것은 기존 이과 수준의 학습이면 충분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과학은 모집 단위에 따라서 상당히 복잡하게 제시되었습니다. 일부 모집 단위의 경우 특정한 일반 선택 과목을 우선 이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물리학전공, 공과대학의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원자핵공학과, 조선해양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사범대학 물리교육과에 대해서는 물리학을, 자연과학대학 화학부, 사범대학 화학교육과에 대해서는 화학을, 자연과학대학 생명과학부, 사범대학 생물교육과, 의과대학에 대해서는 생명과학을, 자연과학대학 물리·천문학부 천문학전공, 지구환경과학부, 사범대학 지구과학교육과에 대해서는 지구과학을 제시하였습니다. 약학대학은 화학 또는 생명과학을 제시하였습니다. 모집 단위마다 학과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일반선택 과목을 우선적으로 이수하도록 제시한 것이고, 그 연결 정도가 매우 명확합니다. 진로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3과목 이상 이수를 권장한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의과대학은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을 포함하여 3과목 이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과학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은 물리학/화학/생명과학/지구과학 영역별로 2과목씩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학생이 서울대학교가 명시한 만큼 딱 3개의 진로 선택 과목만 공부하겠다고 할 경우, 학생은 자신이 가장 희망하는 영역의 진로 선택 과목 2개를 이수하고, 다른 영역에서 1개를 추가로 이수하는 것과, 서로 다른 세 영역에서 1개씩 이수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과학의 교과 성격상 일반 선택 과목을 먼저 이수하고,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일반 선택 과목도 서울대학교가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2-3개의 일반 선택 과목을 이수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진로 선택 과목의 3개 이수 또한 학교들의 일반적인 교육과정 편성 상황을 보면 2,3학년에 걸쳐서 6~8개 정도의 이수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융합 선택은 이수 권장과목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학생들은 등급 미산출을 이유로 융합 선택을 다수 선택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 선택 과목의 이수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융합 선택 과목을 많이 이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 선택 과목이나 진로 선택 과목을 이수하지 못할 수 있음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형③은 미술대학,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음악대학, 학부대학으로 예체능 계열의 모집 단위와 무전공 모집 단위입니다. 이 모집 단위들은 권장과목이 없습니다. 모집 단위의 속성상 특정 과목을 이수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과목을 어떻게 이수하느냐를 중심으로 확인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서울대학교는 전공 연계 권장과목은 지원자격과는 무관하나, 모집 단위가 권장하는 과목의 이수 여부는 수시모집 서류평가 및 정시모집 교과역량평가에 반영됨을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학생의 과목 이수 내용은 교과(군)별 과목의 위계를 고려하여 평가하며, 이수 여부뿐만 아니라 주도적인 학업 수행 내용과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2. 경희대학교

경희대학교는 다른 대학들보다 빨리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 말에 2028 자연계열 학문분야의 고등학교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발표하였습니다. 경희대학교는 2023년 경희대·고려대·성균관대·연세대·중앙대 공동연구를 토대로 경희대학교가 이미 대입전형 평가에 활용해 온 「대학 자연계열 전공 학문 분야의 교과 이수 권장과목」을 2028학년도에 맞춰 개정한 것입니다. 경희대학교는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한해 모집단위 특성을 반영한 교과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연계열은 학문 특성상 학습 단계(위계)가 있어 고등학교에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해야 입학 후 전공과목을 수월하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등학교 과정은 진로를 다양하게 탐색해야 할 시기로 진로가 결정되지 않거나 바뀌는 학생이 많은 점과 전국 고등학교의 교육여건이 다른 점도 고려하여 권장과목을 최소화하여 제시하였다고 대학은 밝혔습니다.

대학 인문계열 학문분야는 권장과목을 별도로 두지 않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자율/자유전공 학부(열린전공)도 권장과목을 두지 않아 고등학교에서 진로가 명확하지 않거나 진로를 변경한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열린전공 입학생은 대학 2학년 진학 시에 전공을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권장과목 개정은 2022 개정 교육 과정을 반영하여 수학은 수능 출제 범위에 포함된 '확률과 통계'를 핵심과목에 포함하였고, 물리학Ⅱ, 화학Ⅱ, 생명과학Ⅱ, 지구과학Ⅱ는 두 과목으로 나뉜 과목을 전공 학문 특성을 고려해 선택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핵심과목'은 '필수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권장과목'은 '가급적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으로서, 대입전형 평가에서는 핵심과목을 미이수한 경우는 감점, 권장과목을 이수한 경우는 가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학문분야	모집단위	핵심과목		권장과목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수학	수학과, 응용수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융합학과, 인공지능학과, 컴퓨터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인공지능 수학	
산업	산업경영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물리	물리학과, 응용물리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 물질과 에너지
기계	기계공학부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전기 · 전자	미래정보 디스플레이학부, 생체의공학과, 전자공학과, 반도체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건설/건축	건축공학과, 사회기반시스템 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물리학	기하	
	건축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화학과, 응용화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기하	물리학, 생명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재료/화공 · 고분자 · 에너지	원자력공학과 신소재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	물리학, 화학, 물질과 에너지,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화학반응의 세계
	화학공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물리학,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기하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학문분야	모집단위	핵심과목		권장과목	
		수학	과학	수학	과학
간호 / 보건	간호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생명과학,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미적분II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생명과학 · 환경 / 생활과학 / 농림	생물학과, 스마트팜과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미적분II	물리학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환경학및 환경공학과	대수,미적분I, 확률과 통계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미적분II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융합바이오· 신소재공학과	대수,미적분I 확률과 통계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미적분II	물리학
천문 · 지구	지리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기하, 미적분II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정보
	우주과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시스템과학, 행성우주과학	기하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의학	의예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물리학
	한의예과· 치의예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물리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약학	약학과, 한약학과, 약과학과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화학, 생명과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와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물리학

일단 수학에서는 대부분의 모집 단위에서 대수, 미적분I, 확률과 통계, 미적분II, 기하를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산업경영공학과, 간호학과, 생명 과학·환경/생활 과학/농림 분야에서는 일부 과목을 권장과목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또한 컴퓨터 분야에서는 권장과목으로 인공지능 수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살펴본 서울대와 거의 동일한 수준의 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과학 교과에서는 일반 선택 과목에서 2~3개 정도를 제시했고, 진로 선택에서 2~4개 정도를 제시하였습니다. 가장 많은 과목을 제시한 경우가 7과목으로 학생들이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이수할 수 있는 과목 수 이내에서 선택 과목을 결정하였습니다. 대부분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지정했던 큰 틀을 유지하면서 세부 과목을 지정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의 기초적인 과목들을 두루 포함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리 분야에서는 물리학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이 핵심 권장과목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동시에 화학 교과의 화학, 물질과 에너지가 권장과목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는 대학의 입장에서 물리학 관련 학문 분야라도 기초적인 학과 공부를 위해서는 화학 영역도 필요함을 제시한 것입니다. 물리학이 중심일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기계공학부에서도 핵심과목에 화학, 권장과목에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를 포함하였습니다. 물리학과 화학에 관한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을 모두 권장한 것입니다. 화학 계열인 화학과, 응용화학과에서는 핵심 과목은 화학 관련 과목으로 제시하고, 권장과목으로는 물리학, 생명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를 제시하였습니다. 화학과라고 하더라도 물리학은 진로 선택 과목 수준까지 이수해야 하며, 생명과학도 일정 수준까지 이수하기를 바란다는 뜻을 보인 것입니다.

모든 자연 계열 분야가 물리학이 필수인 것은 아닙니다. 간호학과의 경우 핵심 과목으로는 생명과학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제시하였으며, 권장과목으로 화학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제시하였습니다. 식품영양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유전생명공학과,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도 생명과학과 화학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핵심 과목과 권장과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주의할 부분은 의약학 계열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은 화학과 생명과학만 이수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의약학 계열에서 화학과 생명과학 영역이 중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화학과 생명과학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전부가 핵심 과목 혹은 권장과목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희대는 의학, 약학 분야의 모든 학과에 대해서 물리학을 권장과목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의학이나 약학 분야에서도 일정 수준의 물리학 지식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경희대 역시 서울대와 마찬가지로 융합 선택 과목에 대해서는 권장과목으로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정시모집은 수학·과학 교과 최소 이수학점을 제시하고, 수능전형에 수능 외 추가로 학생부 교과이수현황을 전형성적에 반영합니다. 수학·과학 교과의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의 이수학점 또는 과목 수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경희대학교 정시 모집 수학·과학 교과 최소 이수학점
일반선택과목+진로선택과목(공통 과목, 융합 선택 과목 제외. 전문교과 포함)

- 수학교과 18학점(단위) 또는 5과목 이상 이수
- 과학교과 20학점(단위) 또는 6과목 이상 이수

현재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수학(미적분과 기하)과 과학 선택과목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과 같이 학생부 수학 및 과학 교과에서 최소 이수학점을 이수한 경우 가산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공통 과목과 융합 선택 과목은 제외하고 수학·과학의 전문교과는 포함합니다.

3.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는 4월 1일에 2028학년도 대입 준비를 위한 동국대학교 모집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발표했습니다.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은 교과보다는 세밀한, 과목보다는 광범위한 범주의 자체 기준 영역이라고 대학은 밝히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발표의 특징은 앞의 두 대학과 달리 인문 계열의 모집 단위에 대해서도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앞서 말한 바처럼 교과 영역이 과목은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해당 영역의 과목을 다른 과목에 비해 더 이수하면 될 것입니다.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부 평가 방법
불교	불교학부	역사, 윤리
	문화유산학과	국어, 사회문화, 역사, 한문
법과	법학과	국어, 역사, 윤리, 정치, 법
경찰사법	경찰행정학부	수학, 영어, 사회문화, 정치, 법
경영	경영학과	국어, 수학, 영어, 사회문화, 경제
	회계학과	국어, 수학, 영어
	경영정보학과	수학, 사회문화, 경제
사범	교육학과	역사, 윤리, 사회문화
	국어교육과	역사교육과
	역사교육과	역사
	지리교육과	지리, 역사, 사회문화, 경제, 정치, 법
	수학교육과	수학
문과	국어국문·문예창작학부	국어, 역사, 사회문화, 한문
	영어영문학부	국어, 영어, 사회문화
	일본학과	국어, 역사,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일본어
	중어중문학과	국어, 역사, 중국어
	철학과	국어, 윤리, 한문, 철학, 논리학
	사학과	국어, 역사, 한문

단과대학	모집단위	학생부 평가 방법
예술	연극학부	국어, 영어, 역사, 윤리,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지리
사회과학	정치외교학전공	역사,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윤리
	행정학전공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북한학전공	국어, 역사, 사회문화, 지리
	경제학과	국어, 수학, 영어, 경제
	국제통상학과	수학, 영어, 정치, 법, 경제, 사회문화
	사회학전공	사회문화, 윤리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전공	국어,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식품산업관리학과	수학, 사회문화, 경제
	광고홍보학과	국어, 영어, 사회문화
	사회복지학과	윤리,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이과	수학과	수학
	화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통계학과	수학
	물리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바이오시스템	바이오시스템대학(단과대학)	수학, 화학, 생명과학
	바이오환경과학과	수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생명과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식품생명공학과	수학, 화학, 생명과학
	의생명공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첨단융합	컴퓨터·AI학부	수학
	시스템반도체학부	수학, 물리학, 화학
약학	약학과	수학, 화학, 생명과학
공과	전자전기공학부	수학, 물리학, 화학
	정보통신공학과	수학, 물리학
	건설환경공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화공생물공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건축공학부	수학, 물리학
	산업시스템공학과	수학
	에너지신소재공학과	수학, 물리학, 화학
	열린전공학부(인문)	국어, 영어,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 역사, 윤리, 지리, 제2외국어
	열린전공학부(자연)	수학, 물리학, 화학

동국대의 권장 교과 영역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분야는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 대해서 권장 교과 영역을 제시한 것입니다. 다수의 학과에서 국어와 영어를 전공 영역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다만 사회 교과 영역의 표시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 사회 교과는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사회는 크게 역사, 지리, 윤리, 일반 사회 영역으로 나누어 부루는 것이 일반적으로 이 중 역사, 지리, 윤리는 그대로 영역명을 사용하였고, 일반 사회 영역만 사회문화, 정치, 법, 경제로 세부 교과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영역명을 사용하여 일반 선택 과목의 분류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인문 계열 모집 단위에서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영역을 제시하였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사회 과목을 학기 단위로 이수해야 하기 때문에 이전 교육과정보다 이수 과목수 자체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역시, 지리, 윤리, 일반사회 영역을 2-3학년 동안 1개씩 정도는 두루 이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의 과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이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회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학에서 제시하는 권장 교과 영역을 이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문계열 모집 단위에서 수학을 전공 관련 영역으로 제시한 모집 단위들이 있습니다. 경찰행정학부, 경영학과, 회계학과, 경영정보학과, 경제학과, 국제통상학과, 식품산업관리학과입니다. 이 학과들은 소위 상경 계열로 분류되는 학과들입니다. 2015 교육과정에서 서울대학교도 경제 계열의 학과에 대해서는 미적분을 권장과목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경제 계열 학과에 진학할 경우 수학 관련 과목을 배우는 것도 많고, 실제로 관련 학문 연구와 학습을 위해서는 수학적 지식이나 능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연 계열에서 수학은 모든 모집 단위에서 전공 관련 교과 영역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수학, 과학 교과는 기초학업역량이 곧 전공 수학 능력이기 때문에 수학은 수능 과목에 포함된 일반 선택 과목 외에 미적분Ⅱ, 기하를 모두 전공 관련 과목으로 공부해야 함을 제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의 경우에는 대다수의 모집 단위에서 물리학, 화학을 중심으로 전공 관련 교과 영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모집 단위 선택이 가능한 열린전공(자연)에서도 수학, 물리학, 화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4.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는 5월 2일에 건국대학교 2028학년도 입학전형 변경사항 안내를 제시하면서 과목 선택 가이드 – KU:PICK(이수추천과목)을 통해서 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과목 선택권의 폭을 넓히고, 대학 교육의 취지를 고려하여 포괄적인 가이드를 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는 인문/사회과학/이학, 공학, 건축, 생명/자유전공으로 나누어 제시하였습니다.

인문은 문과대학과 사범대학으로 국어, 영어, 사회를 제시하였습니다. 과목이라기 보다는 교과의 개념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회과학은 사회과학대학, 경영대학, 부동산과학원으로 국어, 사회, 수학(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상경 계열 모집단위는 수

학에 대해 좀 더 강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학, 공학, 건축, 생명은 건국대 자연계열 모집단위 전부를 지칭하는데, 이러한 모집단위에서는 수학과 과학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중 수학은 대수, 미적분 Ⅰ·Ⅱ, 확률과 통계를 제시하였습니다.

과학은 특정한 과목을 지시하지 않았으나 앞의 서울대, 경희대, 동국대 등의 사례를 통해서 구체적인 과목 영역을 추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건국대학교는 공과대학의 경우 미적분Ⅰ, Ⅱ, 기하, 물리학 이수를 추천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자유전공은 계열 상관 없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 선택하여 이수한다고 제시하였습니다.

5. 대표적인 모집 단위에 적용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논의한 여러 대학들의 권장 과목과 개별 모집 단위의 성격에 비추어 대학들에 보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대표적인 모집 단위별 권장 과목을 제시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권장 과목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반드시 들어야 할 과목을 필수 과목이라고 표현하고, 가능하면 이수했으면 좋은 과목을 권장 과목으로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수학 교과 영역에서 대수, 미적분Ⅰ, 확률과 통계는 수능 공통 과목이므로 제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것은 학과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필자 본인의 개인 의견으로 대학이나 학과의 특성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전공 영역	필수 과목	권장 과목
전자공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화학, 전자기와 양자 등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등
전기공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화학, 전자기와 양자 등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
재료공학과	미적분Ⅱ, 물리학, 화학, 전자기와 양자 등	기하,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등
컴퓨터공학과	미적분Ⅱ, 기하 등	인공지능 수학, 물리학, 전자기와 양자, 데이터 과학 등
로봇공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등	인공지능 수학, 생명과학, 전자기와 양자, 데이터 과학 등
건축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등	화학, 역학과 에너지, 물질과 에너지 등
건축공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등	화학, 역학과 에너지 등
화학공학과	미적분Ⅱ, 물리학,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	기하, 역학과 에너지 등

전공 영역	필수 과목	권장 과목
환경공학과	미적분Ⅱ,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물리학, 역학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
수학과	미적분Ⅱ, 기하 등	물리학 등
물리학과	미적분Ⅱ, 기하, 물리학, 전자기와 양자, 역학과 에너지 등	화학 등
화학과	미적분Ⅱ, 화학,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등	기하, 물리학, 생명과학 등
스포츠과학과		물리학, 생명과학, 세포와 물질대사 등
국어국문학과		윤리와 사상, 한국지리 탐구, 사회와 문화, 한문 등
영어영문학과		영미 문학 읽기, 윤리와 사상,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등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부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사회와 문화, 세계사 등
심리학과		사회와 문화 등
행정학과		정치, 법과 사회, 사회와 문화, 윤리와 사상, 제2외국어 등
법학과		현대사회와 윤리, 윤리와 사상, 정치, 법과 사회, 경제, 사회와 문화, 한문 등
국제학과		영어권 문화,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와 문화, 제2외국어 등
경영학과		미적분Ⅱ(경제수학), 경제, 정치, 법과 사회, 사회와 문화, 제2외국어 등
경제학과		미적분Ⅱ(경제수학), 사회 · 문화, 경제, 제2외국어 등
무역학과		미적분Ⅱ(경제수학), 세계시민과 지리, 세계사, 사회 · 문화, 경제, 제2외국어 등

6. 통합을 시도해 보자.

여러 대학이 이수 권장과목을 제시한 것을 바탕으로 학생들에게 통합된 이수 과목 모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① 인문학, 사회과학 계열

언어와 그에 관련한 문화를 탐구하는 어문학 분야, 역사·철학 등 인간과 세계의 문화를 탐구하는 인문학 분야, 개인과 사회 각 분야의 구조와 현상을 탐구하는 사회과학 분야는 국어, 영어를 충실하게 이수하고, 사회 교과의 다양한 과목을 충분히 선택하고, 제2외국어나 한문도 일정 수준까지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② 상경 계열

상경 계열 분야의 전공 과목은 주로 사회 교과와 관련이 있으나 수학 교과의 지식이 필수적인 부분도 많습니다. 국제 감각을 익히기 위해 일반 사회 영역만이 아니라 역사와 지리 등 사회 교과의 과목을 광범위하게 선택합니다. 특히 수학 교과에 대해서는 미적분Ⅱ나 경제수학 등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자연 과학, 공학 계열

전공 과목은 수학을 기본으로 하므로 미적분Ⅱ, 기하 등 수능에 나오지 않는 과목까지 충분히 공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학은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등 과학 네 분야의 과목을 두루 배우고, 특히 관심이 있는 분야는 심화 수준까지 배우도록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특히 물리학, 화학 등 기초적인 분야를 충실하게 공부하지 않고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은 전공 과목 학습이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과학 4개 영역을 다 배울 수 없다면, 물리학, 화학 영역만큼은 꼭 배워야 할 것입니다.

④ 간호·보건 계열, 생활 과학 계열

다수의 자연 계열이 수학과 물리학을 매우 깊은 수준까지 공부해야 하나, 간호·보건 계열, 생활 과학 계열은 좀 예외적입니다. 일단 과학 영역에서는 물리학을 반드시 배우지 않아도 되는 분야들입니다. 학문 영역의 특성상 과거부터 인문계, 자연계 가리지 않고 학생을 선발했던 이유는 수학이나 과학의 요구 수준이 아주 깊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학과 생명과학에서 배우는 지식이 활용되는 분야이므로 과학 교과의 경우 해당 과목은 심화 수준까지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나의 삶을 기록하는 성장의 이야기

한충렬
- **송내고등학교 교사**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상담교사
- EBS진로학업설계지원단
- 경기도대입진학리더교사
- **주요저서 〈경찰대 · 사관학교 진로진학 특강〉, 〈사관학교 · 군사학과 진로진학 특강〉**

1. 학교생활을 어떻게 할것인가?

"OO학과 진학을 희망하는데 생기부를 어떻게 채워야 하나요?"

학생 또는 학부모 진학상담 때마다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성실한 학생일수록, 자녀의 미래를 걱정하는 부모일수록 이 질문을 먼저 꺼내곤 하지요.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전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생기부는 교사가 학생에 대해 관찰하고 느낀 바를 바탕으로 작성하며, 법적으로도 학생이 내용을 정하거나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학생이 주도적으로 생활하고, 교사는 그 모습을 진심으로 관찰해 기록할 때, 그 기록은 대학이든 사회든 누구에게나 신뢰를 줄 수 있는 진짜 자료가 됩니다. 생기부는 결국 학생 개개인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어떻게 배우고 성장했는지를 담아내는 이야기입니다. 학교 활동 속에서 나의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관심 분야를 확장하려는 노력을 이어간다면, 그것이 곧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는 생기부가 됩니다.

그렇기에 '어떻게 쓰는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어떻게 학교생활을 해야 그에 걸맞은 기록이 남을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더 먼저여야 합니다. '무엇을 채울까?'보다 '어떻게 생활할까?'를 고민할 때, 생기부는 더 이상 부담이 아닌 '나의 성장 기록'이 됩니다.

물론, 위 질문의 요지도 같은 것이겠지요. 좋은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2. 학교생활기록부의 두 가지 목적 : '학교생활의 기록'이면서 '상급학교 진학의 도구'

학교생활기록부는 이름 그대로 학생이 학교에서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기록하는 문서입니다.
바로 학생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어떤 교육활동에 참여했는지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출결은 어떠했고, 어떤 교과목을 신청하여 수업을 들었는지, 또 그 교과의 성적은 어떠하였는지. 동아리는 어떤 동아리에 가입하여 어떤 활동을 하였으며, 학교의 어떤 활동에 참여 했는지 등등..
이런 것들은 모두 학생의 실제 학교생활에서 드러나는 모습들이고, 생기부는 교사가 그것들을 관찰하고 정리한 기록이에요. 즉, 생기부는 학생이 교실 안팎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담는 일기와도 같은 공적 문서입니다. 예전에는 생기부의 기록이 이와 같은 학교생활의 기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답니다.
하지만 최근 생기부는 단지 학생의 학교생활을 정리하기 위한 문서로만 끝나지 않아요.
생기부는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증명서로 상급학교 진학의 자료로 활용됩니다.
대학이나 상급학교에서 학생을 평가할 때, 생기부는 '이 학생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즉, 생기부는 '지원자 소개서'이자 '성장 보고서'가 되는 셈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기부 기록의 중점이 단순 학교생활의 기록보다는, 학교생활에서 보여진 개인의 개별화된 특성 위주로 기록된 생기부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뿐만 아니라, 학생부교과전형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교과전형은 단순히 교과 성적의 정량적 비교가 주를 이루었지만, 이제는 교과세부능력특기사항 및 창의적체험활동의 기록을 참고하여 학생의 태도, 전공적합성, 학업 역량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는 흐름이 증가하고 있답니다. 2022교육과정에서의 내신 5등급화 변경에 따른 내신성적의 변별문제에 대한 예방 조치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뿐만 아니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등과 같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정시 수능위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합니다. 이는 생기부가 단지 수시 전형만을 위한 자료가 아니라, 대입을 준비하는 수험생은 모두가 신경써서 준비해야 될 평가자료로서의 위상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좋은 평가자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대입에서 생기부의 평가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요소를 예시로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학별로 평가방식이나, 주안점을 두는 평가요소 등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요소 및 세부내용]

1) 학업역량

정의		• 우리대학교의 '학업역량'은 대학 수준의 학업을 수행하기 위해 모집단위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갖추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 고교 교육과정을 전반적으로 성실하게 이수하였고, 학업성취도 및 학업발전성, 학업성실성은 어떠한지를 확인
세부 평가 내용	[학업성취도 및 학업발전성]	• 전체적인 교과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대학 수학에 필요한 기본 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학업성실성]	• 교과 수업에서 적극적이고 집중력이 있으며 스스로 참여하여 이해하려는 태도와 성실성을 보을 보이는가? • 교과 관련 활동에서 책임감을 바탕으로 꾸준히 노력하여 최선을 다하는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항목		•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목이수현황 포함)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2) 진로역량

정의		• 우리대학교의 '진로역량'이란 대학에서 지원 모집단위에 관련한 학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준비도를 평가하는 항목 • 여기서 역량과 준비도는 고교생 수준에서의 지원 전공(계열) 관련 관심과 이해 수준을 의미하며, 고교 활동과정에서 지원자가 자신의 진로와 전공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탐색했는지를 살펴봄. 또한, 지원 전공(계열)과 진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실질적인 학교 활동을 통해 주도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평가하는 항목.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자발적인 동기가 있으며, 구체적으로 자신이 계획한 학업과 진로 관련 활동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가고자 하는지를 확인
세부 평가 내용	[진로 관련 분야 자기주도성]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도전하고 성취한 경험이 있는가?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진로 관련 분야 발전가능성]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탐색을 통해 지원 전공(계열)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 진로 관련 분야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바탕으로 탐구하고 확장해 나간 경험이 있는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이수 노력]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과목은 어느 정도 이수했는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하여 도전적인 과목을 이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전공(계열) 관련 교과 성취도]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기본 과목의 성적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어느 정도인가? • 지원 전공(계열)과 관련된 진로선택과목의 성취도는 어느 정도인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항목		• 교과학습발달상황(교과목이수현황 포함) • 창의적체험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3) 인성

정의		• 우리대학교의 '인성'이란 학교생활에 나타나는 교우 관계(학교폭력 관련성 포함), 공동체 의식, 책임감, 성실성,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여 가능성을 평가. 학생의 개인적 특성을 경험의 유무나 활동의 양으로 판단하지 않음.
세부 평가 내용	[공동체의식]	• 구성원의 화합과 단결을 이끌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경험이 있는가? •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실행을 주도한 경험이 있는가? • 자발적인 협력을 통하여 공동의 과제를 완성한 경험이 자주 나타나는가? • 상대방의 요구사항이나 입장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노력하였는가?
	[학교생활 충실도]	• 학업활동에 있어 지속적인 노력을 통하여 꾸준함을 보여주고 있는가? •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여도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경험이 있는가? • 교내활동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경험이 있는가?
학교생활기록부 평가 항목		• 출결사항 • 교과학습발달상황 • 창의적체험활동 •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참고: 『2026학생부종합전형 가이드북』, 광운대학교

위와 같이 대학에서는 생기부의 기록 내용을 통해 학생의 '학업역량', '진로역량', '인성'을 읽어 내고자 합니다.

첫째, 학업역량은 단순 성적이 아닌 '학생의 동기, 태도, 학습과정, 결과 및 후속활동'까지 봅니다.

대학은 학생이 대학 수준의 공부를 따라갈 수 있는 기본 역량을 갖췄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업역량은 단순한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성실히 수업에 참여했는지,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했는지, 어려운 과목을 어떻게 극복했는지까지 포함됩니다.

따라서 생기부의 교과학습상황의 숫자로 표기되는 성적 이외에도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된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 발표, 과제 수행, 탐구 과정 등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좋겠지요.

둘째, 진로역량은 지원 전공(또는 계열)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탐색했는지, 그리고 그 관심을 어떻게 실천으로 이어갔는지를 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성적순으로 뽑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생명과학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생명 관련 과목(생명과학 I, II)을 적극 이수하고, 관련 동아리나 탐구활동, 독서활동, 진로탐색 활동을 통해 꾸준히 관심과 역량을 키워나간 흔적이 생기부에 나타나야 합니다. 특히 창의적 체험활동,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등에 그 흔적이 잘 남아 있다면 진로 역량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인성은 협력, 책임감, 성실성 등을 평가합니다. 대학은 학생이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사람인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준비된 사람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학생의 인성은 출결, 교우 관계, 공동체 참여 태도, 활동에서의 꾸준함 등을 통해 확인됩니다.

따라서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자율활동, 봉사활동 등에 참여한 태도와 실천적인 모습을 성실하게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생기부는 '쌓이는 기록', 전략적 관리가 필요하다!

생기부는 단기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1 부터 고3 까지의 모든 기록이 누적되며,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합니다.

각 학년별로 제한된 글자 수 안에서 진정성 있게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려면, 각 교과와 활동에서 어떻게 나만의 이야기로 연결 지을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는 생기부 항목 중 대학입시에 주로 활용되는 항목과 숫자 이외에 활동에 따라 기록할 수 있는 글자수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항목별 기록 내용과 대입에서의 평가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항목 구성 및 입력 글자수

<table>
<tr><th colspan="2">구분</th><th>글자수</th><th>최대 총글자수</th><th>작성기준</th><th>비고</th></tr>
<tr><td colspan="2">출결상황 특기사항</td><td>학년별 500자</td><td>약 1,500자</td><td></td><td></td></tr>
<tr><td colspan="2">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창의적
체험활동</td><td>자율</td><td>학년별 500자</td><td>약 1,500자</td><td rowspan="6">1,2학년,
3학년1학기</td><td></td></tr>
<tr><td>동아리</td><td>학년별 500자</td><td>약 1,500자</td><td></td></tr>
<tr><td>봉사</td><td>학년별 500자</td><td>약 1,500자</td><td></td></tr>
<tr><td>진로</td><td>학년별 700자</td><td>약 2,100자</td><td></td></tr>
<tr><td colspan="2">교과학습발달상황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td>과목별500자</td><td>약 15,000자</td><td rowspan="2">한 학기 평균
6과목 이수 시
(3학년
1학기 기준)</td></tr>
<tr><td colspan="2">개인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td><td>과목별500자</td><td>약 1,500자</td></tr>
<tr><td colspan="2">행동특성 및 종합의견</td><td>학년별 500자</td><td>약 1,000자</td><td>1,2학년</td><td></td></tr>
</table>

※ 인적 사항, 출결 상황,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독서활동 등의 항목이 있으나, 대입에 미반영되는 항목으로 제외

1) 출결 : 단순히 결석 숫자가 아닙니다!

학교생활기록부의 '출결상황' 항목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성실한 학교생활 태도를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입니다. 이 항목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 **성실성 :** 꾸준히 학교에 다녔다는 것은 기본 생활 습관과 책임감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 **자기관리 능력 :** 출결은 시간 관리와 건강 관리, 규칙적인 생활을 얼마나 실천했는지를 보여줍니다.
- **태도 평가의 근거 :**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교과 세특과 더불어 학생의 태도·인성 평가에 참고되며, 일정 이상 무단 결석 시 서류평가 탈락 가능성도 있습니다.

일부 대학들은 교과전형 및 정시 수능위주전형에서 학생부 출결을 반영합니다. 상위권 대학만 보더라도 서울대학교가 2025학년도부터 정시에서 교과 성적 및 비교과(출결, 봉사 등)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대,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에서 정시에서도 출결은 정량 또는 정성으로 활용하고 있답니다. 상위권 대학일수록 '학업 역량 + 생활 태도'의 균형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지요.

이제, 예전처럼 '정시는 오직 수능만 잘 보면 된다'는 시대는 끝났다고 볼 수 있겠지요!

2) 학교폭력 : 대학입학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2025학년도부터 학교폭력(학폭) 관련 사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되며, 이는 2026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의무반영 하게 되어있습니다. 학교 및 전형별로 조치사항에 따른 반영 내용은 다르지만, 일부 대학은 1호조치(서면사과)부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불합격 처리하기도 합니다. 즉, 이제 학교폭력에 연루가 되면 본인의 진학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항을 명심해야 합니다.

대입뿐만 아니라 일부 공공기관 및 특수 직업(교사, 경찰, 군인, 공무원 등) 지원 시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입시에서의 유불리를 떠나, 모든 학생은 서로를 존중하고 책임 있는 학교생활을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3) 동아리활동, 단순한 참여를 넘어 진로와 연결되는 탐구의 장입니다!

고등학교 생활 중 많은 학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활동 중 하나가 '동아리'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무슨 동아리를 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그 동아리를 선택했고, 어떤 탐구를 했으며, 그 활동을 통해 어떠한 성장을 했는가'가 더욱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특히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는 동아리활동이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동아리는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확장하는 공간입니다.

고등학교의 수업은 기초적인 지식을 '배우는' 시간이라면, 동아리는 그 지식 중 관심분야 또는 교과에서 느낀 궁금증을 '스스로 탐구하고 활용하여 심화'시키는 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화학 수업 시간에 산화·환원 반응에 흥미를 느꼈다면 → 동아리에서 직접 산화반응을 활용한 실험을 설계하고 분석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회 수업에서 기후 문제에 관심을 가졌다면 → 동아리에서 기후 변화와 식량 안보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발표하는 활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구요.

이런 식으로 수업 → 관심 생김 → 동아리에서 자발적 탐구라는 흐름이 생기면, 생기부에 기록되는 동아리활동이 단순한 활동이 아니라 전공역량과 학업역량을 드러내는 근거로 바뀌게 됩니다.

4) 자율활동 : 사람됨과 리더십, 공동체 의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고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창체) 가운데 자율활동은 학급 · 학교 전체를 위해 학생 스스로 계획하고 참여하는 활동을 말해요. 예를 들면 학급회의, 학생자치회, 학교행사 기획 · 운영, 봉사주간 캠페인 등이 여기에 해당하죠. 대학은 이를 통해 학생의 자기주도성, 공동체 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자율활동은 주로 학급행사, 학교행사, 자치활동 등을 포함하며, 책임감, 리더십, 협업능력을 보여주는 영역입니다. 대입에서는 인성과 공동체 의식, 학교생활 충실도를 평가하는 근거가 되겠지요?

학급 대표나 행사 기획자처럼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본 기록은 대학이 찾는 리더십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답니다. 또한, 맡은 일을 꾸준히 수행한 과정이 담기면 성실성과 책임감을 함께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자율활동은 여러 친구와 힘을 모아야 완성되는 활동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협업 능력과 소통 역량을 어필할 수 있지요. 혹은, 갈등이 생겨 이를 조정하고 아이디어를 모으는 과정이 담기면 협업 · 소통 능력을 보여 주어, 대학이 평가하는 인성·공동체 역량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답니다.

자율활동은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주도적으로 참여했고, 어떤 변화를 만들었는가'가 승부처예요. 학교생활 속 작은 역할이라도 목표 → 실행 → 결과 → 성찰의 흐름이 생기부에 잘 드러나도록 관리하면, 대학은 그 기록을 통해 여러분의 인성과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게 됩니다.

5) 진로활동 :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공동체 안에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됩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진로역량은 단순한 진로탐색을 넘어,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설계하고 준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대학입시, 특히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매우 중요한 평가 요소 중 하나로 작용합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창체활동 중 '자율, 봉사, 동아리' 영역이 각 500자씩 3년 최대 1,500자 기록이 가능한 반면, 진로활동은 각 700자씩 최대 2,100자를 기록할 수 있답니다. 단순히 글자수가 많다고 중요한 항목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많은 글자수를 허용했다는

것은 학교생활 중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설계하고 탐색하는 활동을 중요시 한다는 것이겠지요?

대학은 단지 성적이 좋은 학생보다, 지원하는 전공 분야에 대해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탐색하며, 실제 활동으로 연결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합니다.

즉, 진로에 대한 고민의 흔적과 그 과정에서의 자기주도성, 계획성, 탐구력, 열정 등을 보고 '이 학생이 왜 이 전공을 선택했는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원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진로활동 기록입니다. 진로활동은 진로탐색, 직업체험, 관련 강의 수강, 진로설계 활동 등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활동은 자기주도성과 탐구역량을 어필할 수 있답니다.

이와 같이 진로활동 기록은 단순한 경력 목록이 아니라, 학생의 관심, 열정, 탐색, 실천을 통해 형성된 '나만의 진로 이야기'를 담는 그릇입니다.

6) 교과세특 : 나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문장!

학생부종합전형(학종)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생기부 항목은 바로 '교과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줄여서 '교과 세특'입니다.

많은 학생과 학부모님은 성적(등급)에 집중하지만, 상위권 대학의 학종 평가에서 진짜 주목하는 것은 '교과 세특' 속에 담긴 내용입니다.

연세대, 경희대, 건국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가 함께 진행한 5개 대학 공동연구에서도, 교과 세특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평가 요소를 파악하는 가장 신뢰도 높은 기록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 학업역량을 보여주는 직접적인 증거

교과 수업에서 어떻게 공부했는지, 어떤 질문을 던졌고 어떤 탐구를 이어갔는지를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성실히 수업에 참여함'보다는, '탄소의 순환 과정을 생태계 변화와 연결해 발표하며 심화 이해를 보여줌'과 같이 학생의 사고력과 이해 수준이 드러나면 좋겠지요. 또한, 이 과목을 통해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태도로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기록입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별도의 교사 추천서 없이도 학생의 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가장 공신력 있는 자료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교과 세특은 내신 등급이 말해주지 못하는 학습 태도와 사고력, 성장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 전공(계열)적합성(역량)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

수업 속에서 드러난 전공 관련 관심, 주도적 탐구, 심화 활동 등을 통해 전공 역량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진로와 연결된 교과에서의 교과 세특에 기록된 학습 태도와 탐구 활동내용은 가장 자연스럽고 강하게 남는 전공 어필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학생이 화학과를 희망한다고 했을 때, 실제로 화학 수업 시간에 어떤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발표했는지가 교과 세특에 적혀 있다면 그것이 전공(계열)에 대한 관심도를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 자기주도성 및 발전 가능성을 보여줌

질문, 발표, 조사, 연계 학습 등 수업에서의 주도성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교과 세특에서는 학생이 수업을 단순히 듣는 것을 넘어, 얼마나 스스로 참여하고 탐색하며 성장했는지가 드러납니다.

이는 학종에서 평가하는 '발전 가능성'과 '자기주도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속 물리 개념을 분석해 발표하며 수업 외 학습으로 확장함'

'수업 후 별도로 고전 문학에 등장한 역사적 사건을 조사하고 정리함'

이러한 내용이 담기면, 대학은 '이 학생은 지적 호기심이 뛰어나고 스스로 배우는 힘이 있구나'라고 평가하게 됩니다.

7)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행발) : 선생님이 써주는 나의 종합 추천서

학교생활기록부를 살펴보면, 맨 마지막에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이라는 칸이 있습니다.

이 항목은 흔히 '행발'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 2학년 담임선생님의 기록만이 대입에 반영됩니다.

행발은 학생의 인성과 태도, 학업에 대한 자세, 진로에 대한 관심까지 전반적인 학교생활을 담아내는 종합 요약입니다. 즉, 성실성, 책임감, 협동심 같은 인성적인 부분 및 수업 참여도, 태도, 자기주도 학습 같은 학업 역량이 기록됩니다. 또한 진로를 찾고 탐색해 온 노력과 방향성 같은 진로 관심분야도 기록되지요.

이 모든 요소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장 속에 녹아듭니다. 이는 교사 추천서를 대신하는 신뢰 가능한 평가자료로, 대학에서는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을 교사 추천의 역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한 칸에는 단순한 성격 묘사나 인사말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고 활동해왔는지, 어떤 진로 방향을 향해 성실하게 걸어왔는지가 진심 담긴 문장으로 기록됩니다.

4. 교사와 학생의 소통-생기부의 시작

1) 왜 '소통'이 중요한가?

학교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는 단지 성적과 활동을 적는 문서가 아닙니다. 생기부는 학생이 고등학교 3년간 어떤 태도로 학교생활을 했고, 어떤 가능성과 역량을 지녔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공식 기록이지요. 이는 단순한 학적 관리의 목적을 넘어, 상급학교 진학이나 진로 탐색의 자료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과거에는 생기부가 교사의 판단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학생과의 직접적인 소통 없이, 표준적인 표현이나 형식적인 문장들이 주를 이루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러나

최근에는 대입제도의 변화와 더불어, 학생 개인의 특성과 잠재력을 드러낼 수 있는 맞춤형 기록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은 단순한 '기록 보완'의 차원을 넘어서, 학생의 성장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생기부가 진정한 학습의 기록이 되도록 만드는 핵심적인 열쇠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번 동아리 활동에서 기획안을 처음 써봤는데, 친구들을 설득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이 분야에 흥미를 느끼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런 말들이 교사에게는 학생의 내면과 동기를 이해하는 창구가 되고, 이는 생기부에 진정성과 맥락이 담긴 표현으로 이어집니다.

학생이 자신의 관심과 생각을 교사와 나누면, 교사도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표현으로 기록할 수 있겠지요. 그렇게 쓰인 생기부는 단지 평가용이 아닌, 하나의 인격과 성장 서사를 담은 이야기가 됩니다.

2) 교사와 학생 간 소통이 이루어질 때의 변화

교사와 학생 간에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생기부는 훨씬 더 개별화되고 진정성 있는 기록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먼저, 수업 시간이나 다양한 교육활동에서 학생이 보이는 태도와 관심을 교사가 더욱 정확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단순히 발표 횟수가 많은 학생보다, 주제에 대해 깊이 있는 질문을 던지거나, 탐구 과정에서 꾸준한 호기심을 보이는 학생이 더 인상적인 학습자로 기록될 수 있죠. 이런 차별화된 내용은 교사-학생 간 대화를 통해 더욱 잘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학생의 진로에 대한 고민, 관심 분야, 노력의 방향 등을 교사에게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나누게 되면, 단순한 활동 나열을 넘어선 의미 있는 생기부 문장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험에 성실히 참여하였다"는 문장 대신 "생명공학에 관심을 두고 실험 설계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처럼, 진로와 연결된 구체적이고 맥락 있는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학생 자신도 스스로의 성장을 인식하고 방향성을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기부가 단지 교사의 기록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과 성장의 거울이자 나침반이 되는 순간이지요.

3) 소통이 부족할 때 생기는 문제점

반대로, 교사와 학생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생기부는 쉽게 표준적이고 모호한 표현의 나열에 그치게 됩니다. 모든 학생이 비슷한 문장을 가진 기록은 대입에서의 경쟁력도 떨어지고, 진로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주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과제를 열심히 했더라도, 그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해결했는지 선생님이 모르신다면, '과제를 성실히 수행함'이라는 아주 평범한 문장만 생기부에 남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나만의 강점이나 태도를 보여주기 어려워지겠죠.

또한, 진로가 바뀌었거나 활동 방향이 달라졌는데도 선생님께 말하지 않으면, 생기부 안의 내용이 서로 어긋나거나 앞뒤가 맞지 않게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 대학 입학사정관이 학생을 판단할 때 혼란을 느끼고 부정적인 인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학생 입장에서도 생기부가 '내 이야기'가 아니라, 누군가가 적어준 '기록된 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생기부가 학생 스스로에게 자기성찰과 미래 설계의 도구로 작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며, 교육적 의미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낳습니다.

5. 마무리하며: 생기부, 나를 증명하는 '성장 이야기'로 만들기 위해

학교생활기록부는 단순한 기록의 모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배움과 성장의 이야기'를 담아낸 한 권의 보고서이자, 나를 입증하는 가장 공적인 문서입니다. 생기부는 누가 써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학교생활을 했느냐'에 따라 자연스럽게 '남겨지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학생부를 잘 쓰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학교생활을 잘 살아내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출결을 지키고, 수업에 몰입하며, 궁금한 것을 탐구하고, 친구들과 함께 협업하고, 스스로의 진로를 찾아가는 모든 과정이 생기부에 녹아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적히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학생은 자신의 학교생활 전반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생활하고, 교사는 그러한 학생의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생기부의 모습입니다.

간혹, 정시지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생기부 기록을 등한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생기부는 단지 수시에만 활용되는 문서가 아닙니다. 정시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반영하는 대학이 늘고 있으며, 교과전형에서도 정량적 성적 외에 세특, 창체활동, 진로활동, 행발 등의 정성평가가 확대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특히 진로 역량, 학업 태도, 인성 등은 대학이 가장 주목하는 평가 요소입니다.

생기부가 진짜 '나'를 담아내는 도구가 되기 위해선 교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꼭 필요합니다. 단지 좋은 문장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과 활동의 맥락을 나누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함께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생기부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나만의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 학교생활기록부란 '기록을 위한 삶'이 아니라, '삶을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고, 진정성을 담아 활동하며, 그 의미를 교사와 나누는 과정 속에서, 생기부는 어느 누구보다 당당하게 '나'를 증명하는 성장의 증표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학교생활이, 내일을 향한 최고의 투자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생기부라는 이름으로, '진짜 나'를 보여주는 이야기로 쌓여간다는 것도요.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AI 시대의 학교 수업과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질까?

홍주형
-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교육연구사
- 前 인천광역시교육청 중등교사
- 前 전국연합학력평가 출제위원, EBS 온라인 클래스 교사 자문단
- 前 인천교육정책연구소 현장연구 'AI디지털교과서 현장 안착 방안' 책임연구원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 살고 있어요. 이 변화는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바꾸고 있는데, 특히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학교'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죠. AI시대에 학교 수업 방식이 어떻게 변하고, 학생들이 노력한 결과가 녹아 들어간 학교생활기록부는 어떻게 기록되어야 좋을까요?

이 글에서는 AI를 포함한 에듀테크 도구를 활용한 저의 수업 사례와 학생부 기록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에 대한 제 생각을 짧게 말씀드리고자 해요.

1. AI 시대, 학교 수업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학교 수업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과거의 지식 암기 위주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에게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답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생성형AI나 패들렛 같은 도구를 사용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가. 에듀테크 활용 수업,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에듀테크(EduTech)는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을 융합한 말인데요, 디지털 기술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적극적이고 개인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교육 방법을 의미해요. 이런 수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답니다.

- 개인 맞춤형 학습이 가능해요 : 학생들은 자신의 학습 수준과 흥미에 맞춰 필요한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요. 온라인 플랫폼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화된 콘텐츠와 학습 경로를 제공해서, 학생들이 자신의 속도에 맞춰 학습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 상호작용과 참여도가 높아져요 : 학생들이 온라인 플랫폼이나 가상현실 속에서 직접 상호작용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요. 이는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학습 동기를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 접근성과 유연성이 뛰어나요 :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어요. 학생들은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시간에 학습에 참여할 수 있고, 다양한 기기(스마트폰, 태블릿, 노트북 등)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 최근 다양한 의견이 있는 AI 디지털 교과서(AIDT)도 처음엔 이런 맥락에서 도입되었습니다.

나. 실제 수업에서 AI와 에듀테크는 어떻게 활용될까요?

저는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경제, 사회문화, 법, 정치, 사회문제탐구 등과 같은 일반사회 과목을 가르쳤어요. 2012년도부터 에듀테크를 수업에 접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답니다. AI 시대에 발맞춰 학생들과 함께 어떤 수업을 했는지 제 수업을 몇 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생성형 AI를 활용한 '기업 마케팅 전략 수립' 경제 수업

◦ 수업의 목표

학생들이 경제 주체 중 '기업'의 역할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실제 기업가처럼 창의적인 마케팅 전략을 세워보는 경험을 하는 것이었어요.

◦ AI 활용 과정

☐ **핵심 질문 던지기** : "당신이 기업가라면 어떤 기업을 운영하고 싶나요? 무엇을 어떻게 판매하고 싶나요?"라는 질문으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자극했어요.

☐ **생성형 AI (뤼튼, Copilot 등) 활용** : 학생들이 자신만의 기업 로고를 만들고,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나 서비스 이미지를 직접 만들도록 했어요. 이때 가장 중요한 건 '좋은 명령어(프롬프트) 만들기'였죠! 단순히 AI에게 '로고 만들어줘'가 아니라, '기업명, 기업 특징, 주력 상품, 판매 대상, 로고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원하는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AI에게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방법을 배우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프롬프트를 수정(미세조정)하는 연습을 했답니다. 학생들의 산출물보다는 생각하는 과정을 평가에 반영하려 노력했습니다.

☐ **보고서 작성** : 1차 보고서(로고, 제품 이미지), 2차 보고서(판매 전략), 3차 보고서(최종 제출) 단계로 진행하며, 중간중간 피드백을 통해 보고서의 완성도를 높였어요.

◦교육적 의미

이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단순히 경제 이론을 외우는 것을 넘어, 실제로 기업가가 되어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했어요. AI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시각화하는 강력한 도구가 되어준 셈이죠. 동시에 AI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는 미래 핵심 역량을 자연스럽게 기를 수 있었답니다.

2) 생성형 AI를 활용한 '전래동화 법적 분석 및 재구성' 법 수업

◦ 수업의 목표

우리 사회의 법과 윤리 의식을 전래동화에 접목하여 비판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는 것이었어요.

◦ AI 활용 과정

☐ **법률가 역할 부여** : 학생들이 생성형 AI(예: ChatGPT)에게 "네가 법률가라고 생각하고, 한국의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에서 파악할 수 있는 현행 한국의 민법, 형법 위반사항을 알려줄 수 있어?"라고 질문하도록 했어요.

☐ **팩트 체크 및 재구성** :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형법의 진위 여부를 검토하고, 법적으로 문제없는 '선녀와 나무꾼' 스토리를 다시 만들어보도록 했어요. 이때, "동화책 10페이지 분량으로 부탁해"처럼 구체적인 분량을 제시하는 프롬프트를 사용하도록 지도했죠.

☐ **이미지 제작** : 스토리 재구성 후에는 Canva의 Magic Media나 Copilot Designer 같은 AI 도구를 활용하여 동화책에 들어갈 이미지를 생성했어요.

◦ 교육적 의미

이 수업은 학생들이 단순히 법률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AI를 활용하여 실제 사회 문제를 분석하고,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능력을 키워주었어요. 또한, AI가 생성한 정보가 항상 정확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팩트 체크'와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답니다.

다. 에듀테크 활용 수업의 고민과 나아갈 방향

물론 에듀테크 활용 수업이 언제나 순탄한 것만은 아니에요. 학생들이 스마트 기기나 프로그램 활용 능력에서 차이가 나기도 하고, 학교의 Wi-Fi 환경이나 유료 프로그램 구매 같은 인프라 문제도 무시할 수 없죠. 어떤 학생들은 기기를 오락이나 웹 서핑에 오남용하는 경우도 있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에도 불구하고 저는 수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계속 발전하지만, 결국 그 기술을 활용하여 어떤 배움을 만들어낼 것인가는 교사의 역할이니까요. AI 시대의 수업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학생들이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해 교과별 핵심 개념과 원리를 내면화하고,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연결하여 스스로 생각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특히 '수행평가'를 통해 학생들의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 과정을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질 거예요.

2. AI 시대, 학생부 기록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학교 수업 방식이 변화하는 만큼, 학생부 기록 방식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특히 2025학년도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학점제'와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되는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이 학생부 기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예정입니다.

가. '성적'보다 '역량'이 더 중요해지는 학생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내신 성적 산출 방식이에요. 기존 9등급 상대평가 체제에서 5등급 상대평가 체제로 축소되었죠. 이렇게 되면 등급 간 격차가 줄어들어 단순한 석차 등급만으로는 학생들의 변별력이 약해질 것으로 예상돼요.

이러한 변화는 학생부 기록의 방향을 '양'에서 '질'로, '활동의 나열'에서 '역량의 기록'으로 전환하도록 요구하고 있답니다. 단순히 "어떤 활동을 했는가"를 넘어서, "이러한 활동을 통해 어떤 역량(능력)을 키울 수 있었는가"에 대한 내용이 학생부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는 것이죠.

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의 중요성 증대

5등급제로 바뀌면서 교과 성적의 변별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대학교 입시에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세특)' 영역의 중요성이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특은 '교과별 성취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학습활동 참여도, 자기주도적 학습에 의한 변화와 성장 정도를 중심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즉, 교과 수업에서 학생들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핵심적인 기록이 되는 거죠.

수업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학생부에 기록된 세특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경제 수업에서 학생들의 활동과 보여준 역량을 중심으로 기록한 내용이에요.

> 경제 학습을 통해 경제학 기본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짐. 시장의 균형과 효율성과 관련하여 경쟁 시장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탐색 활동에 참여함. 지속가능한 경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마스크 가격 규제를 예시로 제시하여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서술함.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입장을 지지하며 시장 참여자가 정보를 가장 잘 알고 있으

며, 정부의 개입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서술함.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업 로고 제작과 제품 마케팅 활동을 통해 리사이클링 기반 환경 보호 기업을 가상으로 설립하고, 로고 디자인, 판매 전략 작성 등을 포함하여 환경 보호와 관련된 해결 방안을 구상함. 인공지능 활용 소비자 심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데 흥미를 느낌. 경영 컨설턴트 직업 목표를 기반으로 직업 연봉을 고려하여 미래 자산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금융 상품 자산 배분 과정을 경험함. 희망 직업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재무설계를 수립함. 시장과 경제활동 단원과 관련하여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 있는 아이디어'(토드 부크홀츠)를 읽고 정부의 시장 개입과 한계에 대한 심화학습을 함.

잠깐 읽어만 봐도 '이 학생이 정말 1년간 경제 수업에 충실히 참여했구나'를 알 수 있는 기록입니다. 총 바이트 수는 1495바이트 였습니다.

경제 기본 개념 이해도 부분에서는...

저는 이 학생이 단순히 암기식 학습을 하지 않고 진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학습을 했다는 점을 인정해서 "경제학 기본 개념 및 이론에 대한 깊은 이해도를 가짐"이라고 기록했어요. 수업 중 질문에 대한 답변이나 과제 수행 과정에서 개념을 정확히 설명하고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시장 균형 관련 탐색 활동에서는...

저는 학생이 "시장의 균형과 효율성과 관련하여 경쟁 시장에 따른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탐색 활동에 참여함"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수업 시간에 제시된 탐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복잡한 경제 개념도 스스로 찾아보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보였기 때문이에요.

글쓰기 활동과 사례 분석 부분에서는...

저는 "지속가능한 경제 글쓰기 활동을 통해 정부의 가격 통제 정책에 대해 코로나19 시기의 마스크 가격 규제를 예시로 제시"했다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추상적인 경제 이론을 현실의 구체적 사례와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는 응용력을 보여줬기 때문이에요. 또한 "효율성뿐 아니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부분을 통해 다면적 사고력도 확인했어요.

경제학자 이론 적용 부분에서는...

저는 "경제학자 프리드먼의 입장을 지지하며"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수업에서 배운 다양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단순히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논리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프로젝트 기반 학습 활동 부분을 보니...

저는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기업 로고 제작과 제품 마케팅 활동을 통해 리사이클링 기반 환경 보호 기업을 가상으로 설립"했다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단순한 이론 학습을 넘어서 실제 기업 운영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와 실무적 접근을 시도했기 때문이죠. 특히 경제와 환경을 연결하는 융합적 사고력을 높게 평가했어요.

AI 활용 분석 능력에서는...

저는 "인공지능 활용 소비자 심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마케팅 전략에 반영하는 데 흥미를 느낌"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최신 기술을 학습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통해 경제 현상을 분석하는 능력을 보였기 때문이죠.

진로 연계 학습 부분에서는...

저는 "경영 컨설턴트 직업 목표를 기반으로 직업 연봉을 고려하여 미래 자산을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한 금융 상품 자산 배분 과정을 경험함"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막연한 꿈이 아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경제 학습과 연결시키는 성숙한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에요.

수업 내용 연계 심화 독서 활동에서는...

저는 "'죽은 경제학자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를 읽고 정부의 시장 개입과 한계에 대한 심화학습을 함"이라고 기록했어요. 이는 학생이 교과서 수준을 넘어서는 자기주도적 학습 의지를 보이고, 읽은 내용을 수업 내용과 연결지어 더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이에요.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 학생이 1년 동안 경제 수업에서 보여준 적극적 참여, 창의적 사고, 실무적 적용 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했어요. 특히 단순한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생활 적용과 진로 연계까지 고려한 의미 있는 학습을 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AI 시대의 학생부는 '학생이 어떤 지식을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을 넘어, 그 지식을 ' 활용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학생의 구체적인 역량과 성장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게 될 거예요.

다. 학생의 과목 선택과 학생부 기록의 연계성

고교학점제에서는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학생이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그 과목에서 얼마나 주도적이고 성실하게 학습했는지가 학생부 기록과 대입 평가에 긴밀하게 연결될 거예요.

대학들은 학생이 선택한 과목을 통해 지원자의 전공 관련 관심과 노력, 적성과 소질,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 등을 평가하려고 한답니다. 예를 들어, 과학 분야에 관심 있는 학생이라면 수학과 과학 교과목을 깊이 있게 이수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난 탐구력, 문제 해결 능력 등이 세특에 상세히 기록될 때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3.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AI 시대의 교육 변화는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새로운 역할과 준비를 요구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자세랍니다.

가.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충실한 학교 수업'

AI 시대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학교 수업에 성실히 참여하고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에요.

앞서 소개한 경제 수업 사례처럼, 학교 수업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프로젝트, 탐구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협업 능력 등을 키워나가야 해요. AI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대신해 줄 수 있고, 대답을 주는 시대이지만, 그 답이 맞는지 판단하고, 더 나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능력은 결국 수업 시간의 깊이 있는 학습과 끊임없는 고민을 통해서만 기를 수 있거든요.

나. 자신의 '꿈'과 '적성'에 대한 꾸준한 탐색

AI 시대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대예요. 부모님이 생각하는 '좋은 직업'이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보다는, 여러분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분야에 흥미를 느끼는지를 먼저 찾아보는 것이 중요해요.

고교학점제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꿈과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고 깊이 있게 탐구하는 것이 진정한 경쟁력이 될 거예요. 단순히 '내신 등급 올리기'를 위한 과목 선택이 아니라, '나의 미래를 위한' 과목 선택이 되면 더 좋을 것입니다.

다. 학생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아는가'보다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를 보여줘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수업 시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운 내용을 실생활 문제와 연결지어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보세요.

특히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과목을 선택할 때는 단순히 '쉬운 과목'을 고르기보다는, 정말 관심 있고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 과목에서 자신만의 관점을 형성하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AI 도구들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구현해 보세요. 하지만 AI가 만들어준 답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상 '이게 정말 맞나?', '더 나은 방법은 없을까?'라고 되묻는 습관(반성적 사고 과정)을 기르는 것이 중요해요.

라. 학부모님들께 드리는 제안

자녀의 성적 등급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어떤 과정을 통해 그 결과가 나왔는지에 더 관심을 가져주세요. 아이가 수업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역량을 키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함께 대화해보시는 것이 좋겠어요.

5등급제로 바뀌면서 성적의 변별력이 줄어든 만큼, 세특에 기록되는 학습 과정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졌어요. 따라서 아이가 어떤 과목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성장을 보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어요.

또한 AI와 에듀테크가 단순히 '편리한 도구'가 아니라 미래 사회의 핵심 역량임을 인식하고, 자녀가 이런 도구들을 학습에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세요. 다만 도구 사용법보다는 '왜 이 도구를 사용해야 하는지', '이 도구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사고력을 기르는 데 더 집중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자녀가 가장 오랜시간을 보내는 학교와 선생님들을 신뢰하고 끊임없이 지지해 주신다면 그 효과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녀분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어요.

4. 맺음말

저는 지난 19년 넘게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학생들의 호기심과 탐구 정신, 그리고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만큼 강력한 교육의 힘은 없다는 것이죠.

AI 시대의 도래는 우리 교육에 큰 도전이면서 동시에 놀라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요. 과거의 방식만 고집한다면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키워내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는 학생들이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넘어, 스스로 질문하고 탐구하며, 다양한 사람들과 협력하고, AI와 같은 새로운 도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시대가 되었죠.

학교 수업은 더 이상 일방적인 강의가 아니라, 학생들의 참여와 상호작용이 활발히 일어나는 역동적인 공간으로 변화를 경험 중이에요. 학생들은 자신만의 속도로, 자신만의 방식으로 더 깊이 있게 학습할 수 있게 되었고, 선생님들은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수업을 설계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학생부는 학생 개개인의 고유한 성장 과정과 잠재력, 그리고 역량이 담긴 소중한 자산이 되었답니다.

이러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학생들은 자신의 꿈을 위해 주도적으로 과목을 선택하고 수업에 몰입해야 해요. 학부모님들은 자녀의 성적뿐만 아니라 흥미와 적성, 그리고 역량 개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주셔야 하고요. 교사들은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발맞춰 끊임없이 배우고, 학생들의 성장을 섬세하게 기록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AI 시대의 교육은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만들어가고, 이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학생 중심의 따뜻한 교육이 핵심이죠. 기술은 도구일 뿐, 진정한 교육의 힘은 학생과 교사, 그리고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가는 신뢰와 소통에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곧 시작되는 입시, 대학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용찬 (광운대학교 입학사정관)

8월, 이제 여러분은 본격적인 입시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무더운 날씨처럼 마음도 답답하고 복잡할 수 있겠지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지원하게 될 대학은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광운대학교 입학처는 이미 올 가을 입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2월 말 추가모집까지, 입학전형은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어지는 긴 여정입니다. 교수, 직원, 재학생 모두가 이 과정에 함께 참여합니다. 수험생 한 명, 한 명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0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의 서류평가가 시작됩니다. 입학사정관들은 생활기록부를 비롯한 지원 서류를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평가합니다. 단지, 성적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고등학교 3년간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했는지, 진로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고민하고 경험했는지를 살펴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하나에 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생각으로 매일 밤까지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11월이 되면 1단계 서류전형을 통과한 학생들의 면접이 이어집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그 안에 담긴 태도와 시선, 말하는 방식 속에서 여러분이 어떤 학생인지 조금이나마 더 깊이 이해하려 노력합니다. 면접은 평가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화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논술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험이 치러지는 수험장 안팎에서는 철저한 준비가 이뤄집니다. 고사장의 책상 배치, 난방 시설 점검, 동선 관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확인하고 준비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실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입학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대학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주었으면 합니다.

광운대학교는 단지 입학 인원을 채우기 위해 문을 여는 곳이 아닙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고민하고 도전해 온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땀 흘리고 있는 그 과정 자체가 곧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지막 고등학교 여정에 진심 어린 응원을 보냅니다. 끝까지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해 나가길 바랍니다.

광운대학교 입학처는 그 끝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3

Part 3 | 자녀와 함께하는 부모의 역할

6. 고교학점제 시대, 내 아이 진로 · 입시 돕는 현명한 부모의 말 다섯 가지
김은재(상원고등학교 교사)

쉬어가는 글 ③ 광운대 입학전형홍보대사의 캠퍼스라이프
박미선(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학번)

고교학점제 시대, 내 아이 진로 · 입시 돕는 현명한 부모의 말 다섯 가지

김은재

- 상원고등학교 교사
- 제13회 푸른문학상 수상
- 2019년 세종도서교양부문 예술 분야 선정
- 유튜브 〈은재TV〉 운영
- 주요저서 〈누가 뭐래도 내 길을 갈래〉, 〈십 대를 위한 쓰담쓰담 마음 카페〉

결국 해내는 아이 VS 점점 못하게 되는 아이. 차이는 부모님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우리 아이가 이 고된 입시 경쟁에서 잘 해낼 수 있을까?'

올해 초, 아이가 고1이 되어 교복을 맞추러 간 날이 생각납니다. 아이가 고등학생이 된다는 설렘보다 걱정하는 마음이 덜컥 들었습니다. 저는 17년 동안 학교 현장에 있으면서, 중1부터 고3까지 모든 학년 담임을 해본 적 있습니다. 지금은 고등학교에 근무하면서 입시 지도를 하고 있고요. 이런 저조차도 제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니 불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 10대 아이들의 변화나 입시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으신 부모님들의 마음은 얼마나 초조하실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입시 제도는 아이들에게 세 가지 고통을 줍니다. 내신, 수능, 생기부를 다 챙겨야 하니까요. 그런데요. 학교 현장에서 만난 아이들 중 이 복잡한 입시 제도에서 자기 진로를 잘 찾고, 입시 준비를 야무지게 스스로 잘 해서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 비밀이 궁금하시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이 복잡한 입시에서 '진로를 잘 찾고, 입시 준비를 잘해서 성공하는 아이들을 키운 부모님의 말'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든 입시에서, 어떤 아이는 결국 해내고, 어떤 아이는 잘 못해낼까?'

현장에서 수천 명 아이를 만나며 저는 이게 늘 궁금했습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입학 초에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아이가 점점 잘하게 되는 경우를 가끔 보았습니다. 반대로,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는 전교권이던 유명한 아이가 고등학교 들어와서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도대체 이 아이들은 뭐가 다른 걸까요?

수많은 아이들을 관찰하고 인터뷰한 결과, 결국 해내는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점점 못하게 되는 아이들은 이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학교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와 학부모님들을 만나며 그 차이를 만드는 결정적인 요소가 '부모님의 말'이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고된 입시 경쟁 속에서 부모님이 긍정적으로 소통해 주면, 아이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덜고 자기가 할 일인 진로와 입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섯 가지 부모님의 말을 알려드릴 텐데요. 소통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하루 10분,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진심을 다해 아이를 공감하는 마음으로 말해주시면 충분합니다. 학교 상담 현장에서는 제 강연을 들으신 후, '아이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루 10분 긍정적으로 소

통했더니, 아이와의 사이가 달라졌고, 아이의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했어요'라고 말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셨으니, 효과가 있으실 거예요.

지금부터 아이가 진로를 잘 선택하고, 입시 준비를 주도적으로 스스로 할 수 있게 돕는 부모님의 말 다섯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아이의 열정을 존중해 주는 '동기 유발'의 말

"그거 말고 이거 해." → "너 하고 싶은 거 해."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간단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 진로를 생각하고 공부해 본 '준비된 인재'를 기르기 위함이죠. 고교학점제에서 입시를 잘하려면, 진로의 방향성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특정 직업을 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흥미를 느끼는 관심 분야라도 정하라는 것입니다.

왜 10대 때부터 진로를 생각하라는 것일까요? 고등학교 때 진로를 정하는 게 사실은 무리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로의 방향성을 정하라고 하는 이유는 '사회의 요구'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자기 흥미가 분야가 아닌, 점수를 맞춰서 흥미를 갖지 못하는 대학교 학과를 가면 중간에 그만두는 '중도 탈락' 현상이 생깁니다. 요즘 뒤늦게 '대2병'이 생겨서 방황하는 대학생이 많다는 뉴스를 접해 보셨나요? 자기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모르고 대학을 간 학생들은 힘들게 간 대학을 그만두기도 합니다. 학생들 '중도 탈락'을 하면 대학 입장에서는 편입으로 학생을 다시 뽑아야 하는 큰 손해가 생깁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적성과 소질을 보이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합니다.

나아가 아이가 이 고비를 잘 넘기고 억지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취직을 했다고 해도 문제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흥미 분야가 아닌 일을 하면서, 지속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껏 힘든 취업의 문을 통과해 놓고 '내 적성이 아니다'라며 퇴사를 선택합니다. 대기업 입사 후에도 3년 이내 퇴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기업들의 골칫거리입니다. 그런 현상을 막고자, 미리 고등학교 때 관련 분야를 탐색해 보고, 그 분야가 자기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알아보라는 게 고교학점제의 취지입니다. 그럼 어떻게 자기 진로를 고등학교 때 탐색해 볼 수 있을까요?

제자 중 한 명은 기자가 꿈이었습니다. 아이가 고3 때 부모님이 '요즘에 IT 개발자가 수요가 많다더라. 그래도 생계를 하려면 하고 싶은 일보다는 수요가 많은 걸 해야 하지 않겠니?'라고 아이를 설득했습니다. 제자는 부모님 기대를 저버리기 힘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전혀 관심 없던 소프트웨어 학과를 진학했습니다. 결국 대학교 2학년 1학기까지 마치고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도저히 공부를 못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는 자퇴 후, 공부를 다시 해서 자기가 원하는 학교 법학과에 편입했습니다.

만약 아이가 고등학교 때 소프트웨어학과 연관된 과목을 몇 과목 들어보고 그 과목에 흥미가 있는지, 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련 행사에 참여해서 탐색했더라면 어땠을까요? 교육청이나 공동교육 과정에서 개설한 관련 과목을 들어보았다면요? 이런 시행착오와 경제적 낭비는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이런 이유로 고교학점제에서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기가 관심 있는 과목을 듣고, 관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 진로가 자기랑 맞는지, 그 분야 중 어떤 분야를 더 탐구하고 싶은지를 탐색하라고 아이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하지 않고, 자기의 진로를 잘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몇 해 동안 연말에 입시가 끝난 아이들을 인터뷰해 오고 있는데요. 입시를 성공적으로 끝낸 아이들에게 성공 비결을 물었습니다. 자기가 목표로 하는 대학 입시에 성공한 아이들에게 공통적으로 들은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부모님이 "너 하고 싶은 거 해."라고 했다는 점입니다.

고등학교 내내 안정적으로 공부를 잘하고, 인문 계열에 들어간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오빠는 현역 때는 내신 점수가 부족해서 입시에 성공하지 못했고요. 재수를 해서 정시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 반도체학과에 들어갔고요. 남매 둘 다 결국 원하는 진로로 원하는 대학에 진학했기에 물어보았습니다.

"너랑 오빠 둘 다 공부 잘하는데, 혹시 부모님이 메디컬 쪽을 권하지는 않으셨어?"라고요. 그 아이 부모님은 두 분 다 약사시거든요. 당신들이 전문직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그쪽 진로를 권하지는 않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이는 "아뇨. 그냥 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셨어요."라고 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갔든,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가고 만족한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부모님이 다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반면, 제가 최근 고3 담임을 할 때 한 남학생이 떠올랐습니다. 그 남학생은 고3 내내 방황했습니다. 고3 초기에는 연애를 시작해서 연애에 몰두하기도 했습니다. 아이와 상담을 해보니까, 아이가 왜 무기력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진로 제 꿈 아니에요. 엄마가 하라고 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이는 운동 쪽 진로를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그쪽은 전망이 없다고 단정 짓고, 메디컬 준비를 하라고 했답니다. 초등학교 때 어머니가 정해준 목표는 의대였습니다. 고등학교에 와서는 어머니가 점점 현실적으로 목표를 수정했습니다. 그러다 고3 때 어머니가 아이 목표를 수도권 전문대 물리치료학과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고3 때도 집중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랑 입시 상담을 하면서도 어머니 혼자 입시를 준비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대학교 정보를 수집해서 아이에게 알려주었지만, 아이는 정작 시큰둥했습니다. 수시 입시는 실패했고, 정시까지 갔지만 희망 학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 사례뿐만이 아닙니다. 수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3 입시 결과 앞에서 결국 스스로 달린 아이와 부모님 혼자 달린 아이의 차이는 딱 하나였습니다.

'아이가 하고 싶은 걸 해야, 정시든 수시든 입시에 성공하는구나.'

심리학에서는 아이가 자발적인 마음에서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내재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칭찬, 인정, 돈, 취업 등과 같은 것 때문에 과제에 집중하는 것을 '외재적 동기'라고 부릅니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은 내재적 동기가 있을 때 성취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심리학 책에서만 통하는 이야기가 아니더군요.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야, 동기 부여를 받고 생기부 활동도, 내신 공부도, 정시도 열심히 했습니다.

아이들 중 '하고 싶은 것도 잘하는 것도 없어요'라고 말하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하고 싶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말했다가 혼나서 자기가 자기 꿈을 무시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오늘 아이에게 물어봐 주세요.

"넌 뭐하고 싶어?"라고요. 아마 아이가 마음 속 깊이 감춰놓은 자신의 관심 분야를 말할 거예요. 이때 부모님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고 말해 주신다면, 아이는 그 분야를 아이만의 이야기로 즐겁게 채워나갈 것입니다. 그것이 진로와 입시를 준비하는 첫걸음입니다.

2. 아이의 개성을 인정해 주는 '정체성 형성'의 말

"남들처럼 살아야지." → "넌 남들과 달라도 돼."

진로를 선택할 때, '세상'과 '내 아이' 중 무엇을 먼저 보아야 할까요? 최근 인공지능이 전 세계 산업을 휩쓸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부모님들은 막연히 우리 아이가 '인공지능'과 관련된 학과를 진학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이가 공대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도, 생계를 위해서는 인공지능 관련 학과에 진학을 권유하는 학부모들도 많습니다. 또 의료 보건 분야는 어떤가요?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의대 열풍' 속에서 의료 보건 분야로 진출하면 생계는 걱정 없겠다는 생각 들지 않으신가요? 그런데요. 그동안 진로 지도를 해 오면서 결론을 내린 게 있습니다. 반드시 진로를 선택할 때는 '세상', 즉 유망한 직업을 보는 것보다 '내 아이'를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리히 프롬은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의 속성 중 '상대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해 주는 것'을 꼽았습니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 준다는 건, 아이의 정체성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10대 때 아이들이 꼭 해결해야 할 심리적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나는 누구인가?'하는 정체성 확립입니다.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정체성이 흐릿한 어른으로 성장합니다. 그런 아이들은 오직 다른 사람의 인정과 확인을 통해서만 자존감을 유지하는 의존적인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견고한 정체성은 자신의 독특한 개성을 부모님으로부터 존중받을 때 생깁니다.

아이가 독특한 무언가를 좋아하나요? 특히 아이가 예체능을 좋아하면 부모님은 '왜 우리 집안에 감당하지 못할 예체능 인재가 태어났을까?'라며 탄식하곤 합니다. 그런 아이에게 "넌 별종이야."라고, "평범해져야지. 남들처럼 살아라."라고 혹시 하고 계시지 않나요? 그건 아이의 정체성을 부정해 버리는 말이 됩니다. 인간에게 개성은 전기차로 치면 배터리입니다. 아이의 개성을 부정하면 아이는 살아갈 동력인 배터리 없는 전동차와 같은 처지가 됩니다. 반면 아이의 독특한 개성을 존중해 주면, 아이는 자기 인생을 적극적으로 개척할 동력을 찾게 됩니다. 진짜 자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제자가 생각납니다. 아이가 중학생 때였어요. 학부모 상담 때 어머니가 와서 "우리 아이가 곤충에 참 관심이 많아요."라고 하시던 게 기억납니다. 그분을 뵈면서 독특했던 점은 "넌 도대체 곤충에 정신이 팔려서 뭘 먹고 살 거니?"라고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던 점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곤충 동호회에서 아이디 '왕사마귀'로 활동하고 있다고 즐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곤충 동호회 회원들이 집으로 전화를 해 오면, 자기를 '왕사마귀님 어머니'라고 부른다고도 유쾌하게 말씀하셨죠. 어머니는 아이가 초등학생 때 쇠똥구리를 잡겠다고 어린 여동생을 망보게 하고, 하굣길에 수풀에 몰래 실례(?)까지 했다고 그 열정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어느 날은 집안에 사마귀 수백 마리가 동시에 부화해서 사마귀들이 득실거리는 집에서 산 적도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아들의 취향과 개성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대학교 전공도 아이가 원하는 쪽으로 지지해 주었고요. 아이가 대학 학부를 소위 말하는 명문대를 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도 그 아이는 계속 관련 분야를 공부했고, 지금은 국내 대기업의 생명 분야 연구원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 아이를 봐 주세요. 내 아이는 어떤 개성이 있나요? 어떤 독특한 특성이 있나요? 혹시라도 우리 아이가 유별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그냥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나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평범한 아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자기만의 개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아이의 개성을 존중해 주는 말을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자존감 책을 읽어봐도 자존감의 첫 단계는 모두 하나더군요. 바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수용하는 것'입니다. 내 아이를 자존감 높은 아이로 키우려면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수용'해 주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인정받게 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게 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진짜 자아'라고 합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진짜 자아'를 가진 학생을 뽑는 전형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아이만 적극적으로 진로 탐색 활동을 하거든요.

오늘 "넌 남들과 달라도 돼."라고 말해 주시는 건 어떨까요? 아이는 안심하고 개성을 마음껏 드러낼 길을 반드시 찾아낼 것입니다. 아이가 진짜 자기 삶을 살며,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사는 모습을 보는 건 덤입니다.

3. 불안을 비전으로 만들어 주는 '문제해결력'의 말

"그거 해서 먹고 살겠니?" → "어떻게 꿈을 이룰 생각이야?"

'과연 이 진로를 갔을 때, 이 아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부모님들이 아이들 진로에 관련해서 가장 큰 고민은 바로 '밥벌이'에 대한 것입니다. 아이가 요즘 유망한 학과를 가고 싶어 한다면 고민이 덜하겠죠. 하지만 아이가 미래가 불확실해 보이는 진로를 가고 싶어 한다면요? 배우가 되고 싶다거나,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고 말한다면요? 아마도 "꿈을 좇지 말고, 돈 되는 학과 가라."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많으실 거예요.

제 아이는 '정치인'이 되고 싶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수요가 많은 학과에 관심이 많길 바라는 마음이 들었지요. 하지만 아이 꿈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자기 밥벌이를 할 수 있게 전문가가 되는 건 아이의 몫이고, 아이는 그걸 해낼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만난 제자 중에 가장 주도적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공부 정보, 입시 정보도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의 도움 없이 인터넷 카페를 통해 스스로 알아보았습니다. 공부, 입시 계획도 스스로 세우고 실행했습니다. 수시 면접 준비도 본인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본인 생기부를 분석해서 수백 개 질문을 스스로 만들고 답을 해서 완벽하게 입시를 치렀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은 좋지 않았지만, 점점 성적이 올라 결국 본인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아이는 스페인어학과를 진학했습니다.

아이는 꿈이 '문화 교류 코디네이터'라고 했습니다.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넌 성적이 좋아서 원하는 학과를 다 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이 학과를 선택했어? 그리고 네 희망 직업은 생소한데, 왜 이 길을 가려고 해? 다른 안정적인 길도 많을 텐데."

아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는 직업 중 가장 가까운 게 문화 교류 코디네이터였어요. 이 길을 갔을 때, 진출할 수 있는 분야가 정말 많아요."

질문을 한 제가 부끄러워지더군요. 아이는 자기의 비전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로, 입시에 성공하는 아이들 특징은 '불안 대신 비전으로 움직인 아이들'이었습니다. 반면 진로도 못 찾고 입시에도 실패하는 아이들은 '대학 떨어지면 사람 취급 못 받는다는 불안으로 움직이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비전으로 움직인 아이들은 흔들림 없이 생기부 활동을 했습니다. 고3이 되어 불안하고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자신의 길을 따라 생기부 활동을 채우더라고요.

한 사람이 원하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가지 질문에 스스로 답해야 합니다. 바로 '왜?'와 '어떻게?'입니다. 왜 그 꿈을 꾸는지를 스스로 생각해야 하고, 어떻게 꿈을 이룰지 방법을 생각하면 그 사람은 꿈을 이루게 됩니다. 사람이 '왜 자기가 그 일을 해야 하는지'가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면, 반드시 '어떻게 그 일을 이룰까'라는 방법을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위의 1, 2번의 말을 통해 아이가 '왜?'에 답했다면, 그다음 부모님이 들려줄 질문은 '어떻게?'에 해당하는 3, 4번의 말입니다. 먼저 이렇게 물어봐 주세요.

"어떻게 꿈을 이룰 생각이야?"

사람은 질문을 받으면 본능적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떻게 꿈을 이루고, 그 꿈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할지, 나아가 풍요롭게 돈을 벌지 말지 말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로 생계를 해결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펼칠 방법을 구체적으로 함께 상의하는 거죠.

부모님이 아이의 소망과 감정을 존중해 주면, 아이들은 자기에 대한 단단한 자존감을 갖게 됩니다. '나는 가치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이런 아이들은 '가치 있는 나는 내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는 게 당연하다'라는 현실에 기반한 사고를 갖습니다.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벌어야 자기 욕구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을 알지요. 이런 아이들은 책임감 있게 돈 벌 방법을 찾습니다.

'돈 벌 수 없는 학과'나 '돈 벌 수 없는 직업'이 있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 수 있는 자아상'과 '돈을 벌 수 없는 자아상'이 있을 뿐입니다. '자아상'이란 '나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입니다. 외국으로 박사 과정 유학까지 다녀온 제자가 일이 자기 일이 잘 안 풀린다며 하소연했습니다. 제자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길거리에 채이는 게 외국 유학 다녀온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의 자아상이 느껴지시나요? 이 제자는 자기 자신을 '길거리에 채이는 정도의 사람'이라고 낮게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실력은 실제로는 뛰어난 데도요. 그 제자는 늘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자신을 다그치는 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늘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던 아이였습니다. 제가 해준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네 안에 좋은 게 있어. 정말이야. 그걸 믿고 세상에 네 능력을 마음껏 펼쳐 봐."

아이가 조심스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나요? "그거 해서 먹고 살겠니?"라는 말 대신 아이가 원하는 꿈을 지지해 주세요. 그리고 눈을 보고 말해 주세요.

"그럼 그 꿈을 이루려면, 어떤 계획이 필요할까?"
아이들이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진짜 진로 설계가 됩니다.

4. 창의적 몰입을 불러일으키는 '주도성'의 말

"생기부 이 활동해." → "네 호기심을 따라가 봐."

한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는 정시 준비해야 하니까, 수시 준비는 제가 할게요."
그 어머니는 학생부종합전형 준비, 즉 생기부 준비는 부모님이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라도 아이를 도와주고 싶은 그 마음이 이해가 되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그건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광운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인성'인데요. 대부분 대학의 수시 학생부종합전형 기준이 비슷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자세히 보여드렸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성적과 같은 수치'도 보지만, '학생의 태도'를 본다는 걸 말씀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수행평가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수업 시간에 임하는 적극성을 부모님이 대신해 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역량 두 가지를 꼽으라면 저는 '주도성'과 '탐구력'을 꼽겠습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누가 시켜서 하는 활동이 아닌, 아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공부와 진로 활동을 하는 탐구력 있는 아이를 찾아내는 전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이가 주도성을 가지려면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진로나 입시를 '부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진로가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아이의 생기부를 살펴볼까요?

'학생부종합전형으로 가는 애들은 다르구나!'
제자들을 보면서 감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중 한 남학생이 생각납니다. 이 학생은 학교에 있는 모든 시간을 자신의 진로를 주도적으로 탐색하며 보냈습니다. 학생은 컴퓨터공학 관련 학과에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진학했습니다.
학생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교과 활동 모두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해 나갔습니다.

이 학생의 1학년 자율 활동을 살펴보죠.

1) 인공 지능 관련 과학 진로 특강 강연 참여
2) 장애 이해 교육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스티븐 호킹 박사를 예로 들며 기술 혁신을 위해 사회적 포용성 확대가 필요함을 주장함.
3) 재난 안전 교육을 통해 노즐이 움직이는 원리 탐구

교내 행사나 창의적 체험 활동 시간에 누구나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 속에서도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과학 분야를 탐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1학년 진로 활동입니다.
1) 진로 심화 주제 발표 활동에서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주제로 PPT를 만들어 발표함.
2) 소프트웨어 선도 학교 진로 특강 로봇 프로그래밍 참여함.
3) 웹프로그래밍에 참여하여 직접코딩함.
4) 이공계진로캠프에 지원하여 레이저 원리와 빛의 편광 현상에 대해 탐구함.
5) 융합과학프로그램 중 '뇌-기계 인터페이스 강좌'를 수강함.

1학년 동아리 활동입니다. 학생은 3D 제작반에서 활동했습니다.
1) 3D 프린터가 물체를 출력하는 동안 노즐이 움직이는 원리에 궁금증을 가지는 모습이 보임.
2) 평소 컴퓨터 및 공학에 관심이 많아 3D 프린팅의 과정과 3D 모델링 프로그램 및 3D 출력을 위한 슬라이서 프로그램을 다룬 경험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이 관찰됨.
3) 자신이 만들고 싶은 물건 설계하기 활동에서 2인 1조로 휴대용 선풍기를 제작함.

진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자기 관심 분야를 탐색한 흔적이 보이죠?
각 교과에서도 탐구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 관련이 있는 '수학' 과목에서는 인공지능과 미적분학을 주제로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릴 때 이용하는 선형 회귀 분석법을 그래프를 이용해 설명하는 탐구 활동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른 수학 과목에서는 미분 개념을 이용하여 '경사하강법과 머신러닝'이라는 주제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생명과학' 시간을 볼까요? 뇌-컴퓨터 인터페이스에 관한 신문 기사를 준비하여 인공지능이 뇌피질 표면의 전극 활동 측정을 통해 두뇌 활동을 예측하며, 이는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활용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글을 작성했습니다.

수학, 과학, 정보 같은 진로와 직접 연관이 없는 과목에서도 학생의 탐구는 이어졌습니다.
'여행지리'와 같은 문과 과목에서도 진로 여행 계획하기 활동에서는 자신의 진로 관심 분야인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와 관련하여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위치한 미국을 주제 지역으로 선정하여 미국의 '실리콘 밸리'를 비롯한 IT분야의 우수성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저는 이 학생을 지켜보면서 '창의성이 뛰어나다'라고 생각했어요. 창의성이란 서로 다른 분야를 연결하는 능력인데요. 진로 분야와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과목에서도 창의적으로 탐구 주제를 찾아냈으니까요. 아이가 정말 대단해 보여서,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너는 어떻게 확신이 들어 이렇게 생기부를 잘 채운 거야?"라고 물었습니다.
아이의 대답이 의외였습니다.
"꼭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서요."라는 답이 돌아올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아이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는 생기부를 채우려고 노력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제 호기심을 채우려고 한 것뿐이에요."
이 학생을 보며, 〈몰입〉의 저자 미하이 칙센트미하이가 생각났습니다. 미하이 칙센트미하이는 창의성 있는 사람을 내적 동기가 뛰어난 사람들이라고 보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자기목적성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한 사람이 그 일 자체가 좋아서 할 때, 그 일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를 그 사람이 자기목적성을 가진다고 보았죠.
뇌과학에서는 자기목적성을 가진 사람을 '자기조절력'이 강한 사람으로 봅니다. 자기목적성이 있는 사람은 전두엽이 활성화된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는 감정이나 충동, 습관적 행동을 스스로 인식하고 통제하며, 장기적인 목표를 우선시하는 자기절제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학생이 자기조절력을 가지고 몰입한 창의성 있는 인재였지요.

이 학생뿐만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 학생부종합전형에 합격한 아이들은 순수한 호기심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강요나 간섭이 아닌 자기들의 호기심을 따라 3년 내내 지치지 않고 활동을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전 CJ그룹 브랜드 전략 고문이었던 노희영 님이 한 말이 기억납니다. 자신은 사원들 면접 볼 때 스펙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다 똑같은 봉사활동, 어학 연수, 토익 점수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고 했어요. 대신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지원하는 지원자가 해당 기업에서 제작한 영화 100편을 보고 감상문을 제출했다면 뽑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뻔한 스펙이 아니라 '나는 진심으로 이 일에 관심이 있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었습니다.
진짜 생기부 스펙을 만들려면, 바로 이 질문에서 생기부 활동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진심으로 이 일에 관심이 있나? 이게 생기부 활동에서 드러나나?'
그 진심이 과목 선택에서도 드러날 수 있습니다. 고교학점제에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과목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는 심리학자가 꿈인 학생이 어려운 생명과학을 듣기도 했습니

다. 의대에 갈 친구들이 듣는 경쟁이 치열한 과목인데요. 왜 그 과목을 듣냐고 묻자 '심리학을 하다보니까, 뇌에 관심이 생겼어요. 뇌를 탐구하고 싶어요.'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과목 선택도 '우리 애가 이 여러운 과목을 들으면 내신이 불리하겠지'라고 생각해서 과목 선택을 말리면 안 됩니다. 아이의 호기심을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누가 이 활동해서 대학 잘 갔대. 너도 해 봐."

부모님들이 좋은 입시 정보를 듣고 오면, 아이에게 권유하고 싶은 건 당연합니다. 저도 많은 학생들을 보면서 여러 활동을 제 아이에게 권유하고 싶으니까요. 그러나 권유는 권유로 끝나야 합니다. 그 활동은 아이만의 스토리가 없는 스펙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창의적으로 자신의 스토리를 만들어갈 수 있게 아이를 믿어주어야 합니다. 아이가 어떤 생기부 활동을 할 때, "또 그거 하니? 다른 것도 해야 하지 않아?"라고 아이를 막지 말아 주세요.

오늘은 "생기부 이 활동해."라는 말 대신 "네 호기심을 따라가 봐."라고 아이의 도전을 응원해 주세요. 아이가 부모님이 생각하지 못한 창의적인 방법으로 자신만의 생기부를 채워나갈 겁니다.

5. 결국 해내는 아이로 만들어 주는 '회복탄력성'의 말

"왜 이것밖에 못 했어? → 너만의 속도로 가."

아이가 성적표를 들고 올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대게는 아이들 성적이 부모님 마음에 쏙 들기 어렵죠. 우리 아이들 성적은 늘 아쉽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아이들에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왜 이것밖에 못 했어?"

아이들은 성적표를 받고, 부모님이 해주는 말에 따라 아이들이 더 열심히 하기도 하고 아예 공부를 포기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해 주어야 할까요?

제가 롤모델로 삼고 있는 부모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아이는 고등학교 1학년 때는 전교 꼴찌에 가까웠습니다. 자기 딴에는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1학년 1학기 지필평가를 봤어요. 하지만 노력한 보람도 없이 결과는 그대로였습니다. 아이는 무엇보다 잘하는 친구와 비교하는 마음 때문에 힘들어했습니다. 성적표를 받고서, 아이는 아빠에게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반에 전교 1등 하는 애 있지? 걘 그냥 제트기 같아. 노력하지 않아도 빨라. 나는 목구멍에서 피 토하는 심정으로 달리는데 성적이 이래."

그러자 아빠가 차분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너만의 속도로 가."

딱 한 문장의 말. 그 말이 아이를 변화시켰습니다. 아이는 점점 성적이 올라서 문과에서 최우등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 명문대 박사 국비 장학생이 되었죠.

아이는 대학에 입학한 후, 제게 자기가 쓰던 스탑 와치를 보여 주었습니다.

"제가 하루에 순공(순수 공부 시간) 5시간 채우려고, 이 스탑 와치도 들고 다녔어요."

자기는 아빠의 그 말 덕분에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만의 공부 시간을 채우며 목표를 이루었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그 아빠의 '너만의 속도로 가'라는 말은 왜 아이에게 힘을 주었을까요? '너만의 속도로 가'라는 말은 부모가 아이를 다른 아이와 비교하지 않는다는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이 또한 아이가 자신의 속도에 맞추어 한 노력을 인정해 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통해 아이는 결과가 아닌 자신의 노력과 성취 과정 자체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부모님께 이 말을 들으면, '남과는 상관없이, 결과에 상관없이,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면 되는구나'라고 안심하게 됩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아이들은 성취감을 느끼고 더 나아가고 싶어집니다. 아이가 작은 성공을 계속 쌓아가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 비결입니다.

아이가 어떤 결과든 들고 왔을 때, 안심시켜 주며 격려해 주시면 어떨까요?

"너만의 속도로 가."

부모님의 격려로 아이는 지치지 않고 자기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물론 지금 이 말 한 마디가 반드시 '다음 시험을 잘 보는 결과'를 보장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들은 아이 마음 속에서 '나는 이해받고 있다', '부모님은 내 노력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생기게 됩니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이 있을 때, 사람은 실패를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냅니다. 그렇게 아이는 회복탄력성이 높은 사람으로 성장합니다.

결국 해내는 아이는 '부모님의 좋은 말'을 먹고 자랍니다.

진로, 입시, 그 모든 여정은 아이가 '나다운 삶'을 사는 과정입니다. 그 출발은 부모님의 말 한 마디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심리학자와 정신과 전문의들은 자녀 양육의 최종 목표를 '독립'으로 삼고 있습니다. 지금 저를 비롯한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당면 과제는 '우리 아이가 학교 성적 잘 받는 것', '생기부 활동도 열심히 하는 것', 나아가 '입시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우리 아이가 정신적으로 물질적으로 부모로부터 건강하게 독립하기 위해 준비해 주는 단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떤 삶을 살길 원하시나요? 저는 제 아이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풍요로운 경제 활동으로 자기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잘 돌보고, 좋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며 행복하게 살기.

아이가 이런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시지 않나요? 오늘도 아이의 좋은 삶을 위해 이 책자를 보고 계신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아이를 도우려는 마음이 가득하신 좋은 부모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우리 아이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부모님의 말 다섯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결국 해내는 아이들과 그 아이들의 부모님들 만나고, 인터뷰하며 얻은 말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을 마음속에 새기며 자랍니다. "너 하고 싶은 거 해." "넌 남들과 달라도 돼." "어떻게 꿈을 이룰 생각이야?" "네 호기심을 따라가 봐." "너만의 속도로 가."를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건 어떨까요?

이 다섯 마디의 말이 바로, 고교학점제 시대에 아이를 결국 해내는 아이로 키우는 가장 현명한 부모님의 말입니다. 오늘 건넨 말 한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바꿀 거라 믿습니다.

광운대 입학홍보대사의 캠퍼스라이프

박미선 (광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학번)

광운의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

캠퍼스를 걷고, 생활하다 보면 계절마다 다른 풍경과 이야기들이 펼쳐지는데요, 벚꽃이 흩날리는 봄부터 눈이 소복이 내리는 겨울까지.

광운의 사계절을 함께 걸어보지 않으실래요?

광운의 봄 : 새로운 만남, 익숙한 설렘

봄, 새로운 시작과 만남이 가득한 따뜻한 계절인데요. 새로 만난 후배들과, 오랜만에 다시 보는 동기, 선배들. 다소 어색하게 인사를 나누면서도 '밥약(밥 약속)'으로 빠르게 가까워지기도 하죠. 저 또한 밥약을 잡고 저의 최애 맛집들을 소개하곤 하는데요.

먼저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돈가스'를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곳, '하이레'인데요. 일본스러운 분위기와 맛에 반하게 되는 곳입니다. 또 하나 매운 김치와 푸짐한 밑반찬을 기반으로 삼겹살, 보쌈, 육회비빔밥 등 어떤 메인 메뉴를 시켜도 만족스러운 '이찌마 김치'도 제가 자주 가는 맛집 중 하나입니다!

공강시간이나 모든 수업이 끝난 뒤 밥약으로 시작된 인연이 조금씩 익숙해지고, 나중에는 노천극장에 흩날리는 벚꽃 아래에서 과잠을 맞춰 입고 가볍게 맥주 한 캔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광운의 봄은 사람들과 익숙한 설렘이 어우러지는, 꿈꾸던 대학 로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광운의 여름 : 따스한 햇살같이 뜨거운 열정

여름, 더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우리의 열정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저는 광운대학교 중앙 댄스 동아리 'k-me'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축제 시즌과 여름 방학에는 동아리 활동이 가장 활발해지는 시기인데요. 성인이 되어 대학에 가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주저 없이, 후회 없이 다 해보자고 마음먹으며 시작한 동아리 활동. 같은 취미와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과 춤을 추며 가까워지고, 축제, 새로 배움터, 정기공연 등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대를 즐기며 정말 행복하고, 미련 없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연을 준비하며 동아리실이나 연습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함께 연습하는 친구들과의 사이도 깊어지는데요, 연습하다가 시원한 에어컨 바람 밑에서 배달음식을 먹을 때만큼 행복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준비한 무대가 끝나면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이 밀려오는데, 이 기분 좋은 여운이 평생 마음속에 간직될 것 같습니다! 광운의 여름은, 햇살만큼 눈부신 청춘들의 열정이 가득한 계절입니다!

광운의 가을 : 기분 좋은 바람이 스치는 캠퍼스를 걸으며

가을, 여름 방학이 지나고 다시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계절이에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내가 직접 짠 새로운 시간표의 수업들을 함께 들으며 웃고 떠드는 시기입니다. 수업 가는 길엔 학교 앞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하며 계산 몰아주기 게임을 하기도 하고, 수업이 끝나면 쾌적한 중앙도서관의 집현전이나 자료실, 열람실에 들러 전공 스터디나 과제를 하다 보면 어느새 하루가 훌쩍 지나가곤 합니다.

공부하다가 잠시 나와 캠퍼스를 산책하며 선선한 바람을 느껴보곤 하는데요. 파란 하늘 아래 붉고 노란 물결이 펼쳐진 캠퍼스를 걷는 순간은 모두에게 힐링이 되어주곤 합니다. 광운의 가을은 소소한 일상을 쌓으며, 스스로 성장하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을 찾는 중입니다!

광운의 겨울 : 봄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겨울,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노력의 결실을 맺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인데요. 저는 광운대학교 입학전형 홍보대사 광운알리미로 활동하고 있

습니다! 광운알리미 활동을 하며 가장 뜻깊게 느껴지는 시기가 바로 이 즈음인 것 같은데요. 꿈과 희망을 안고 광운대학교에 지원하는 학생들, 정시박람회에서 만나는 수험생들을 안내하며 '나도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 많은 도움을 줘야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내다 보면 어느새 흰 눈이 캠퍼스를 하얗게 덮는데요, 잔디밭에 나타난 귀여운 눈사람이랑 사진도 찍고, 알리미 친구들과 흰 눈을 밟으며 눈싸움을 하다 보면 어린아이로 돌아간 것처럼 즐겁게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광운의 겨울은 차가운 바람에도 따뜻한 추억과 인연을 품고, 곧 맞이할 새봄을 기대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계절이 머무는 광운대학교, 그 속에서 저는 저만의 이야기를 써 내려가고 있는데요. 광운의 캠퍼스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도 멋지게 시작되어 아름답게 완성하길 바랍니다!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

4

부록 | 광운대학교 학과별 전공로드맵

01. 전자공학과
02. 전자통신공학과
03. 전자융합공학과
04. 전기공학과
05. 전자재료공학과
06.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07. 컴퓨터정보공학부
08. 소프트웨어학부
09. 정보융합학부
10. 로봇학부
11. 건축공학과
12. 화학공학과
13. 환경공학과
14. 건축학과(5년제)
15. 수학과
16. 전자바이오물리학과
17. 화학과
18. 스포츠융합과학과
19. 국어국문학과
20. 영어산업학과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22. 산업심리학과
23. 동북아문화산업학부
24. 행정학과
25. 법학부
26. 국제학부
27.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28.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29. 국제통상학부

광운대학교 학과별 전공로드맵

01. 전자공학과

학년		반도체 및 광응용 분야	초고주파 및 집적 회로 설계 분야	통신 및 신호처리 분야
1	공통	C프로그래밍, 대학물리및실험 대학수학및연습,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대학물리및실험 대학수학및연습,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대학물리및실험 대학수학및연습, 공학설계입문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자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전자공학개론
2	공통	공학수학1, 2, C프로그래밍응용	확률및불규칙신호론 공학수학1, 2 , C프로그래밍응용	확률및불규칙신호론 공학수학1, 2 , C프로그래밍응용
	전공필수	기초전자회로및실험1, 2	기초전자회로및실험1, 2	기초전자회로및실험1, 2
	전공선택	회로이론1, 디지털공학 물리전자1, 물리전자2, 전자기학1, 전자기학2	회로이론1, 회로이론2, 컴퓨터구조 신호및시스템, 디지털공학, 물리전자1 전자기학1, 전자기학2	신호및시스템, 회로이론1, 회로이론2 전자기학1, 전자기학2
3	공통	확률및불규칙신호론	확률및불규칙신호론	확률및불규칙신호론
	전공필수	전자회로실험 전자공학응용실험	전자회로실험 전자공학응용실험	전자회로실험 전자공학응용실험
	전공선택	전자회로1, 반도체공정 및 응용, 반도체소자 및 설계	반도체소자 및 설계, 전자회로1, 전자회로2 디지털집적회로설계,	통신이론1, 통신이론2, 데이터통신, 디지털신호처리,
4	공통			
	전공필수	캡스톤 설계	캡스톤 설계	캡스톤 설계
	전공선택	의용생체전자공학개론, 광전자공학	반도체집적회로설계, RFIC 설계및실험 차세대 전파응용회로및시스템 아날로그씨모스집적회로설계이론	디지털신호처리및실험, 알고리즘 인공지능과 음성신호처리, 머신러닝,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포토닉스공학 I, 마이크로시스템패키징공학, 나노-디바이스어플리케이션측정기술의이해1, 마이크로/나노공학개론	IoT향웨어러블저전력초소형센서시스템, CMOS 아날로그집적회로설계, 고급 인터페이스 아날로그 혼성회로 설계, 레이더및센서시스템설계	멀티미디어정보처리특론 I, 오디오부호화특론, 무선센서네트워크, 멀티미디어데이터분석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02. 전자통신공학과

학년		통신 및 네트워크	인공지능 및 멀티미디어 신호처리	반도체 및 디지털 시스템 설계
1	공통	대학물리 및 실험1, 대학물리 및 실험2, 대학수학 및 연습1, 대학수학 및 연습2		
	전공필수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공학설계입문
	전공선택			
2	공통	공학수학1, 공학수학2, 선형대수학		
	전공필수	회로이론1, 기초전자회로실험1, 기초전자회로실험2, 소프트웨어설계	회로이론1, 기초전자회로실험1, 기초전자회로실험2, 소프트웨어설계	회로이론1, 기초전자회로실험1, 기초전자회로실험2, 소프트웨어설계
	전공선택	디지털공학, 신호및시스템, 회로이론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디지털공학, 신호및시스템, 회로이론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전자기학1, 전자기학2, 디지털공학, 반도체소자 회로이론2,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공통	확률및불규칙신호론, 수치해석,		
	전공필수	전자회로실험1, 전자회로실험2, 에비캡스톤설계	전자회로실험1, 전자회로실험2, 에비캡스톤설계	전자회로실험1, 전자회로실험2, 에비캡스톤설계
	전공선택	전자회로1, 전자회로2, 디지털신호처리, 컴퓨터구조, 통신이론, 데이터통신, 디지털통신, 컴퓨터네트워크, 마이크로프로세서, 운영체제	전자회로1, 전자회로2, 디지털신호처리, 컴퓨터구조, 자료구조및알고리즘, 시스템프로그래밍, 데이터사이언스, 마이크로프로세서, 운영체제	전자회로1, 전자회로2, 컴퓨터구조, 마이크로파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
4	전공선택	캡스톤설계, 전자통신공학실험, 무선통신시스템, 네트워크프로그래밍, 무선통신네트워크	캡스톤설계, 전자통신공학실험, 영상신호처리, 머신러닝, 멀티미디어공학, 바이오메디컬공학개론	캡스톤설계, 전자통신공학실험, 반도체공학, 광전자공학, 집적회로설계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전자통신공학과		
	과목명	컴퓨터통신, 멀티미디어통신, 운영체제, 네트워크특론, 분산시스템, 인터넷프로토콜특론, 사물인터넷	추정및검파이론, 적응신호처리, 머신러닝, 컴퓨터비전, 패턴인식, 딥러닝, 고급디지털신호처리, VLSI신호처리, 생체신호처리	디지털시스템설계특론, 고속디지털 시스템설계, 혼성신호 CMOS 집적회로설계, 집적회로소자, 반도체집적회로공정

선·후수과목

선수과목			필수	후수과목		
학년	학기	교과목명	이수	학년	학기	교과목명
1	1	대학수학및연습1	▶	1	2	대학수학및연습2
1	2	대학물리학2 ((구)대학물리및실험2)	▶	2	1	전자기학1
2	2	신호및시스템	▶	3	1	디지털신호처리
3	1	전자회로1	▶	3	2	전자회로2
3	1	전자회로1	▶	4	2	집적회로설계
1	2	공학설계입문	▶	3	2	에비캡스톤설계
3	2	에비캡스톤설계	▶	4	1	캡스톤설계

03. 전자융합공학과

학년		전파/무선통신 전문가	반도체 설계/공정 전문가	인공지능/신호처리 전문가	바이오/헬스케어 전문가
1	공통	대학물리학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1,2 공학설계입문	대학물리학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1,2 공학설계입문	대학물리학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1,2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대학물리학실험1,2 대학수학및연습1,2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2	공통				
	전공필수	전자기학1,회로이론1, 디지털공학,기초회로실험2	전자기학1,회로이론1, 디지털공학,기초회로실험2	회로이론1,디지털공학, 기초회로실험2	회로이론1,디지털공학, 기초회로실험2
	전공선택	기초회로실험1, 반도체소자1, 반도체소자2, 전자기학2, 회로이론2	기초회로실험1, 반도체소자1, 반도체소자2, 전자기학2, 회로이론2	기초회로실험1, 정보통신과 융합기술, 컴퓨터구조, 데이터사이언스, 회로이론2, 미래사회와과학기술	기초회로실험1, 반도체소자1, 정보통신과융합기술, 반도체소자2, 회로이론2, 미래사회와과학기술
3	공통				
	전공필수	전자회로1, 신호및시스템, 전자회로실험2	전자회로1, 신호및시스템, 전자회로실험2	전자회로1, 신호및시스템, 전자회로실험2	전자회로1, 신호및시스템, 전자회로실험2
	전공선택	전자회로실험1, 초고주파공학, 통신이론, 디지털통신, 응용수치해석, 전자회로2, 초고주파응용	전자회로실험1, 전자회로2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회로실험1, 통신이론, 자료구조와알고리즘, 디지털신호처리, 전자회로2, 컴퓨터네트워크	마이크로프로세서, 전자회로실험1, 전자회로2, 임베디드시스템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안테나융합시스템, 전파융합 시스템실험, 무선통신회로, 무선통신시스템, 통신융합시스템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전자융합시스템실험, 융합반도체공정, 반도체직접회로설계, 자동차전자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영상신호처리, 전과융합시스템실험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2, 전자융합시스템실험, 융합반도체공정, 의료전자공학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무선통신공학, 이동통신공학, 스마트 안테나, 응용전자기학, 안테나수치해석, 고급디지털통신1, 고급디지털통신2	RFIC 설계1, RFIC 설계2, 반도체소자이론1, 반도체소자이론2	고급디지털통신1, 고급디지털통신2, 강화학습, 에너지인터넷응용, 고급랜덤프로세스, 빅데이터융합개론, 멀티미디어시스템	웨어러블소자개론, 바이오전자소자, 디지털의료기기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04. 전기공학과

학년		전력 시스템 및 에너지 변환 기기	신호, 제어 및 인공지능 시스템	반도체/나노/바이오 소자 및 센서	전기설비 및 플랜트 엔지니어링
1	공통	공학설계입문, 대학수학및연습1/2, 컴퓨팅사고, 프로그래밍기초, 대학물리및실험2			
	전공필수				
	전공선택				
2	공통	디지털논리회로, 전자회로기초, 공학수학1/2			
	전공필수	전기및디지털회로실험, 교류및전자회로실험, 회로이론1/2, 전자기학1			
	전공선택	전자기학2	고급C프로그래밍	전기전자물성공학	전자기학2
3	공통	전자회로응용, 최신전기공학주제탐구, 전기공학세미나			
	전공필수	전자회로응용및물성실험,전력기기실험			
	전공선택	전기기계1/2, 제어공학1, 전력전자공학, 전기설계공학,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마이크로프로세서응용설계, 제어공학1, 신호및시스템	반도체소자공학	전기기계1/2, 제어공학1, 전기설계공학, 전기설비공학
4	공통				
	전공필수	캡스톤설계			
	전공선택	전력세스템공학, 재생에너지발전공학, 전력변환시스템설계, 전기자동차공학, 스마트그리드운용, 전력경계학	디지털신호처리, 제어공학2, 영상처리응용, 인공지능응용, 지능형로봇프로그래밍	센서공학, 반도체및나노공정	전력시스템공학, 재생에너지발전공학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반도체전력공학, 전기기계특론, 전력계통의 신뢰성해석, 전력계통의 인공지능 응용	디지털 신호처리 응용, 전기공학을위한강화학습개론, 의학영상시스템 특론, 지능형 로봇제어	고체물리학개론, 신소재 물성 및 분석, 마이크로/나노소자 및 시스템, 바이오센서공학, 센서공학 특론, 디지털헬스케어특론	회로망 특론, 전기기계특론, 전기응용이론, 대형시스템의 최적화기법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05. 전자재료공학과

학년		반도체 소자/공정/장비 전문가	신소재/에너지 전문가	시스템 반도체 전문가
1	공통	대학물리및실험 1,2 대학수학및연습 1,2 C프로그래밍, 공학설계입문 벡터해석학및연습	대학물리및실험 1,2 대학수학및연습 1,2 대학화학 공학설계입문	대학수학및연습 1,2 프로그래밍 기초 대학물리및실험 1,2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전공필수			
	전공선택	전자재료공학개론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전자재료공학개론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2	공통		현대재료과학, 전자재료프로그래밍	
	전공필수	물리전자 1,2, 전자기학 1 기초회로실험및설계 1,2	물리전자 1,2, 전자기학 1 기초회로실험및설계 1,2	물리전자 1,2, 전자기학 1 기초회로실험및설계 1,2
	전공선택	전자기학 2, 회로이론 1,2 진로탐색및설계	전자기학 2, 진로탐색및설계	디지털논리회로 1,2, 전자기학 2 회로이론 1,2, 진로탐색및설계
3	공통			
	전공필수	전자재료물성실험및설계 1,2	전자재료물성실험및설계 1,2	전자재료물성실험및설계 1,2
	전공선택	고체물리, 열역학, 진공공학 1,2, 반도체소자공학 1,2 반도체공정 1, 광학 경력개발과취업전략	열역학, 재료상평형 고체물리, 전자세라믹스 진공공학 1,2, 반도체소자공학 1,2 반도체공정 1, 경력개발과취업전략	전자회로 1,2 시스템반도체설계 경력개발과취업전략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디스플레이공학, 캡스톤설계 1,2 전자재료공정실험및설계 1,2 반도체공정 2, 박막재료공학 에너지소자공학, 분석기기론 센서공학, 광소자공학	전기화학, 에너지소자공학 센서공학, 분석기기론 캡스톤설계 1,2 반도체공정 2 박막재료공학	집적회로설계 디스플레이 공학 캡스톤설계 1,2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유기광전자 이온주입공정및분석기술특론 Charge Transport Physics 나노집적회로공정기술 1,2 반도체소자특론, 광신호처리특론 영상신호처리특론 파워디바이스설계-전력반도체소자	Flexible nanoelectronics 에코에너지재료설계특론 유전체재료특수과제 분말충격코팅기술 에너지저장시스템 Photovoltaics	나노집적회로공정기술 1,2 딥뉴럴네트워크의 활용 파워디바이스설계-전력반도체 소자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06. 반도체시스템공학부 반도체시스템공학전공

역량	학년		반도체 설계 분야	반도체 소재/소자/공정 분야
정보 수집 및 활용	1학년	공통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대학물리학1, 대학물리 및 실험2, 대학화학, 대학화학 및 실험1, 2, 대학수학 및 연습1, 2, 벡터해석학연습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 대학물리학1, 대학물리 및 실험2, 대학화학, 대학화학 및 실험1, 2, 대학수학 및 연습1, 2, 벡터해석학연습
		전선	공학설계입문, 반도체공학개론	공학설계입문, 반도체공학개론
		전필		
	2학년	공통	공학수학1, 2, 선형대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공학수학1, 2, C프로그래밍응용, 선형대수학, 확률 및 통계, 이산수학
		전선		
		전필		
	3학년	공통		
		전선		
		전필		
	4학년	공통		
		전선		
		전필		
	관련 프로그램		광운튜터링, 팡새튜터링, 광운학습모임	광운튜터링, 팡새튜터링, 광운학습모임
전공 전문 지식	1학년	공통		
		전선		
		전필		
	2학년	공통		
		전선	디지털논리회로, 물리전자, 전자기학,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전자회로1, 확률 및 불규칙신호론	물리전자, 전자기학, 회로이론, 신호 및 시스템, 반도체소자물리
		전필		
	3학년	공통		
		전선		
		전필		
	4학년	공통		
		전선		
		전필		
	관련 프로그램		참빛학습지원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프로그램	참빛학습지원프로그램, 단기현장실습프로그램

07. 컴퓨터정보공학부

학년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반도체 및 IoT	HW/SW 융복합
1	공통	C프로그래밍,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공학설계입문	C프로그래밍, 공학설계입문
	전공필수			
	전공선택	컴퓨터공학입문세미나 고급C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입문세미나 고급C프로그래밍	컴퓨터공학입문세미나 고급C프로그래밍
2	공통			
	전공필수	객체지향프로그래밍및설계 디지털논리회로1·2, 데이터구조설계	객체지향프로그래밍및설계 디지털논리회로1·2, 데이터구조설계	객체지향프로그래밍및설계 디지털논리회로1·2, 데이터구조설계
	전공선택	객체지향프로그래밍실습 오픈소스소프트웨어설계및실습 데이터구조실습	객체지향프로그래밍실습 회로이론, 전자회로 컴퓨터공학기초실험1·2	객체지향프로그래밍실습 어셈블리프로그램설계및실습 컴퓨터공학기초실험1·2 데이터구조실습
3	공통			
	전공필수	컴퓨터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시스템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전공선택	시스템프로그래밍실습 운영체제실습 소프트웨어프로젝트1·2 알고리즘 인공지능	컴퓨터구조실험 시스템프로그래밍실습 운영체제실습, 마이크로프로세서 GPU컴퓨팅, 신호및시스템 디지털신호처리	컴퓨터구조실험 시스템프로그래밍실습 운영체제실습 컴퓨터네트워크, 데이터통신 하드웨어소프트웨어통합설계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비젼, 지능IoT특론 산학협력캡스톤설계1·2 데이터베이스및데이터시각화 머신러닝	지능IoT특론 산학협력캡스톤설계1·2 시스템반도체설계및응용	소프트웨어공학 무선이동네트워크및5G 임베디드시스템S/W설계 Human Computer Interaction 지능IoT특론, 산학협력캡스톤설계1·2
석사 박사	대학원	컴퓨터공학과		
	과목명	딥러닝개론, 딥러닝특론, 신경회로망, 머신러닝, 컴퓨터비젼, Wearable IT, 빅데이터분석, 빅데이터관리, 데이터마이닝, 고급데이터베이스, 확률및통계특론 등	병렬처리시스템, 저전력설계, 차세대메모리시스템특론, 컴퓨터구조특론, 에너지스토리지관리및제어시스템, 임베디드시스템설계, 임베디드운영체제특론 등	고급운영체제, 디바이스드라이버특론, 스토리지시스템특론, 영상처리시스템특론, 고속비디오처리, 무선네트워크, 사물인터넷, 차세대정보통신기술 등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08. 소프트웨어학부

학년		ICT 융합 분야	소프트웨어 개발 분야	게임 개발 분야	금융 IT 분야
1	공통	C프로그래밍, 고급C프로그래밍및설계, 공학설계입문, 컴퓨팅사고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프트웨어입문세미나			
2	공통				
	전공필수	리눅스활용실습, 자료구조, 자료구조실습			
	전공선택	디지털논리, 이산구조, 고급프로그래밍, 시스템소프트웨어,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이산구조, 고급프로그래밍, 선형대수학, 시스템소프트웨어,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이산구조, 고급프로그래밍, 선형대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이산구조, 고급프로그래밍, 선형대수학, 시스템소프트웨어, 객체지향프로그래밍
3	공통				
	전공필수	알고리즘, 응용소프트웨어실습			
	전공선택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데이터통신, 컴퓨터네트워크, 프로그래밍언어론, 모바일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휴먼컴퓨터인터페이스, 인공지능, 프로그래밍언어론, 컴퓨터비전, 모바일프로그래밍, 빅데이터처리및응용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휴먼컴퓨터인터페이스, 컴퓨터그래픽스, 모바일프로그래밍	운영체제, 컴퓨터구조, 데이터베이스, 인공지능, 컴퓨터비전, 모바일프로그래밍, 빅데이터처리및응용
4	공통	글로벌IT영어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프트웨어공학, 컴파일러, 미래네트워크특강, 산학협력캡스톤설계1, 산학협력캡스톤설계2	소프트웨어공학, 컴파일러, 정보시스템응용, 기계학습, 산학협력캡스톤설계1, 산학협력캡스톤설계2	소프트웨어공학, 컴퓨터애니메이션, 혼합현실, 산학협력캡스톤설계1, 산학협력캡스톤설계2	기계학습, 산학협력캡스톤설계1, 산학협력캡스톤설계2
석사 박사	대학원	컴퓨터과학과			
	과목명	운영체제특론, 임베디드운영체제특론, 컴퓨터비전	데이터마이닝, 빅데이터특론, 진화연산, 스마트폰운영체제	컴퓨터그래픽스특론, 컴퓨터애니메이션특론, 객체지향프로그래밍언어론	분산객체컴퓨팅특론, 스토리지시스템특론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영상화질개선 (연계)			

선·후수과목	C프로그래밍 → 고급C프로그래밍및설계 → 고급프로그래밍, 컴퓨터그래픽스 → 컴퓨터애니메이션
추천 유관과목	없음

09. 정보융합학부

학년		빅데이터 분석가	인공지능 전문가	가상현실 전문가	UX 엔지니어
1	공통	대학수학 및 연습 1·2, 통계학 개론, 이산수학, 컴퓨팅 사고, 프로그래밍 기초, 고급C프로그래밍, 창의설계입문, 그래픽디자인			
	전공필수				
	전공선택				
2	공통	빅데이터언어, 데이터베이스, 컴퓨터네트워크, 인터랙티브미디어개론, 오픈소스소프트웨어, 인터랙티브심리학			
	전공필수	AI수학, 객체지향프로그래밍, 자료구조, 모바일 프로그래밍			
	전공선택				
3	공통	IoT 프로그래밍, 실험설계및분석, 비주얼컴퓨팅, 인터랙티브 AI, IoT 시스템설계			
	전공필수				
	전공선택	텍스트 및 오피니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소셜 네트워크 분석, 빅데이터 처리 및 응용	텍스트 및 오피니언 마이닝, 데이터 마이닝, 데이터 애널리틱스, 빅데이터 처리 및 응용	UI/UX디자인, 정보디자인, 웹프로그래밍, HCI와UX평가, 컴퓨터그래픽스	UI/UX디자인, 정보디자인, 웹프로그래밍, HCI와UX평가, 컴퓨터그래픽스
4	공통	ICT융합전략, 산학협력캡스톤설계 1·2			
	전공필수				
	전공선택	빅데이터기획분석론, 데이터 시각화	기계학습, 데이터 시각화	VR/AR 설계	데이터시각화
석사 박사	대학원	인공지능응용대학원			
	과목명	빅데이터 처리 특론, 고급 데이터베이스, 시공간 데이터 분석, 데이터마이닝 특론, 시계열 분석과 예측, 소셜네트워크 분석, 프로세스 마이닝	고급 알고리즘, 기계학습특론, 사물인터넷특론, 인공지능특론, 데이터마이닝특론, 자연어처리특론, 인공지능과 UX	VR/AR 특론, 컴퓨터비전특론, 뉴럴 렌더링	UX실험 및 통계, 정보디자인특론, 인공지능과 UX, 인간-인공지능 상호작용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10. 로봇학부

학년		로봇 기구 관련 직종	로봇 하드웨어 관련 직종	로봇 소프트웨어 관련 직종
1	공통	로봇학입문, 대학수학및연습1, 대학수학및연습2, 대학물리및시험1, 대학물리및실험2, C프로그래밍, C프로그래밍응용(컴퓨팅사고)		
	전공필수			
	전공선택			
2	공통	공학수학1, 공학수학2, 벡터해석학및연습, 고급프로그래밍, 자바프로그래밍		
	전공필수	로봇학실험1, 로봇학실험2, 회로이론1	로봇학실험1, 로봇학실험2, 회로이론1	로봇학실험1, 로봇학실험2, 회로이론1
	전공선택	회로이론2, 기초역학, 메카니즘해석, 전자기학1, 상상과표현, 상상로봇비평	회로이론2, 기초역학, 메카니즘해석, 전자기학1, 상상과표현, 상상로봇비평	신호및시스템, 디지털공학, 컴퓨터구조, 상상과표현, 상상로봇비평
3	공통	선형대수학, 확률및통계		
	전공필수	로봇학실험3, 로봇학실험4, 자동제어, 로봇제어	로봇학실험3, 로봇학실험4, 자동제어, 로봇제어	로봇학실험3, 로봇학실험4
	전공선택	엑츄에이터, 모터제어, 로봇운동학, 센서공학, 제어시스템설계, 전자회로	엑츄에이터, 모터제어, 로봇운동학, 센서공학, 제어시스템설계, 전자회로	마이크로프로세서, 알고리즘, 기계학습, 컴퓨터네트워크
4	공통			
	전공필수	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	캡스톤설계
	전공선택	로봇응용시스템,로봇설계	로봇응용시스템,로봇설계	임베디드설계, 딥러닝, 강화학습, 컴퓨터비전, 로봇비전, 로봇내비게이션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대학수학및연습1-대학수학및연습2, 로봇학입문-자동제어, 로봇학실험1-로봇학실험2, 자동제어-캡스톤설계, 로봇운동학-로봇제어
추천 유관과목	

11. 건축공학과

학년		건축환경분야 전문가	건축설비분야 전문가	건설관리분야 전문가	구조설계분야 전문가
1	공통	대학물리 및 실험 1, 대학수학및연습 1, 프로그래밍 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건축공학개론, 공학설계입문			
2	공통	공학수학 1			
	전공필수	건축환경 2	건축환경 2	일반구조	구조역학 1
	전공선택	건축환경 1	건축환경 1	건축사 건설공법 및 실습	구조역학 2
		건축설계및도서작성 1 &2			
3	공통	경력개발과취업전략			
	전공필수	건축설비 1	건축설비 1	건축경제	철골구조
	전공선택	건축설비 2 건축환경실험및실습 건축환경조절시스템	건축설비 2 건축환경실험및실습 건축환경조절시스템	건설경영개론 건축재료 건축공정관리 건축실무	철근콘크리트구조 1 & 2 건축구조시스템
		CAD&BIM/건축 IT/건축계획및법규 1&2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건축설비설계	건축설비설계	프로젝트설계	건축구조설계
		건축공학캡스톤설계, 건축종합논문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통합건물시스템 비주거건물의에너지 성능평가기법	건축설비특론1 건축설비특론2	건설정보관리 건설원가관리 건축시스템공학 건설사업관리연구 건설관리특론 건설생산성관리	구조동역학 건축구조설계특론1 & 2 구조동역학특론 구조해석특론1 RC구조특론 수치해석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건축계획및법규 1 → 건축계획및법규 2 / 공학설계입문 → 건축설계 및 도서작성 1·2 → 건축공학캡스톤 설계 → 건축종합논문 일반구조 → 건설공법 및 실습 → 건축재료 / 건축경제 → 건설경영개론 건축설비 1 → 건축설비 2 → 건축설비설계 / 건축환경 1 → 건축환경 2 → 건축환경실험및실습 → 건축환경조절시스템 구조역학 1 → 구조역학 2 → 철근콘크리트 1 → 철근콘크리트 2 → 건축구조설계 구조역학 1 → 구조역학 2 → 철골구조 → 건축구조설계 / 구조역학 1 → 구조역학 2 → 건축동역학
추천 유관과목	없음

12. 화학공학과

학년		첨단바이오 융복합인재	미래신소재 융복합인재	차세대에너지환경 융복합인재	지능형공정 융복합인재
1	공통	대학화학 및 실험 1·2, 대학물리학 1·2, 대학수학 및 연습1·2			
	전공필수				
	전공선택	대학생물및실험, 공학설계입문	공학설계입문	공학설계입문	공학설계입문
2	공통	공학수학1·2			
	전공필수	화공양론, 물리화학, 유기화학1, 화공기초이론및실험 1·2			
	전공선택	생명공학, 분석화학	분석화학, 유기화학2	분석화학, 유기화학2, 에너지전기화학 (구. 에너지공학개론)	에너지전기화학 (구. 에너지공학개론), AI화공개론 (구. 공저시스템공학개론)
3	공통				
	전공필수	단위조작이론및실험1·2			
	전공선택	생물화학공학, 산업생물공학, 캡스톤설계기초, 화공열역학1, 반응공학, 유체역학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표면반응공학 (구. 촉매반응공학), 캡스톤설계기초, 화공열역학1, 반응공학, 유체역학	화공열역학2, 재료공학, 무기공업화학, 표면반응공학 (구. 촉매반응공학), 공정제어, 열전달, 캡스톤설계기초, 화공열역학1, 반응공학, 유체역학	공정제어, 열전달, 캡스톤설계기초, 화공열역학1, 반응공학, 유체역학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생물화학공학이론및실험, 의생명공학 (구. 분자생명공학), 캡스톤설계심화	환경화학공학(구. 청정공학), 고분자화학, 유기공업화학, 고분자공정이론및실험, 캡스톤설계심화	물질전달공정, 환경화학공학 (구. 청정공학), 분리공정, 고분자화학, 캡스톤설계심화	화공설계, 물질전달공정, 분리공정, 화공안전(구. 안전공학), 캡스톤설계심화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생물화학공학특론, 산업생물공학특론, 생물공정설계특론, 생물신소재공학특론, 나노바이오공학특론, 바이오센서공학특론	신소재공학특론, 기능성신소재공학, 유/무기복합재료특론, 나노재료특론, 나노물질및응용, 표면화학특론, 고분자반응및합성론, 고분자재료특론	전기화학공학특론, 연료전지공학특론, 나노재료특론, 나노물질특론, 나노물질및응용, 표면화학특론, 고분자재료특론	최적화기반제어, 최적공정설계, 단위조작특론, 열전달특론, 전산유체역학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대학수학및연습1 → 대학수학및연습2】【대학화학및실험1 → 유기화학1】【공학수학1 → 공학수학2, 수치해석, 유체역학】 【유기화학1 → 유기화학2, 고분자 화학】【물리화학 → 화공열역학1】【화공열역학1 → 화공열역학2】 【반응공학(구, 반응공학1) → 촉매반응공학(구, 반응공학2)】【공학설계입문 → 화공기초이론및실험1, 캡스톤설계기초(구, 캡스톤설계1)】 【캡스톤설계기초(구, 캡스톤설계1) → 캡스톤설계심화(구, 캡스톤설계2)】
추천 유관과목	없음

13. 환경공학과

학년		공무원 및 공공기관	환경엔지니어링	환경컨설팅	환경관리인
1	공통		대학수학및연습 일반물리및실험		일반화학및실험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학설계입문		
2	전공선택	환경미생물학 환경경제학 수문학	환경단위조작 수치해석 환경기초실험 환경미생물학 환경유기화학 환경반응공학 지반환경오염해석	환경화학 수치해석 환경기초실험 환경유기화학 환경미생물학 수리학 지반 환경오염해석환경 환경전산프로그래밍및실습	환경반응공학 환경분석실험 환경기초실험
3	전공필수	수질관리	생물학적수처리 대기오염모델링 및 실습	대기오염모델링 및 실습	오염토양정화기술
	전공선택	통계학개론 환경법 및 정책	환경공정설계대기오염 방지시설설계 물리화학적수처리	폐기물처리시설설계 폐기물처리공학 물리화학적수처리환 경법 및 정책대기오염 방지시설설계 지반환경위해성평가	통계학개론 환경공정설계대기오염 방지시설설계
4	전공선택	환경영향평가환경 ISSUE발표및연습	환경영향평가 상하수도공학 캡스톤설계 환경플랜트실무 수처리시설설계 환경복원공정설계	환경플랜트실무 환경영향평가 환경생태공학	에너지공학 환경안전공학환경 ISSUE발표및연습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대학수학및연습1→대학수학및연습2, 대학화학및실험1→대학화학및실험2, 대학생물및실험→환경미생물학, 대학화학및실험2→환경화학, 환경화학→환경유기화학, 공학설계입문→캡스톤설계			
추천 유관과목		없음			

14. 건축학과(5년제)

학년		건축설계	건축기술	정부, 공공기관	교육, 연구단체
1	공통	기초설계1·2	기초설계1·2	기초설계1·2	기초설계1·2
	전공필수		디지털 디자인		주거론
	전공선택	건축표현기법	다차원 디지털 디자론	건축학개론	공간과 형태
2	공통	건축설계1·2	건축설계1·2	건축설계1·2	건축설계1·2
	전공필수	시설계획론 건축법규	구조역학		서양건축사
	전공선택	건축계획론	디지털 텍토닉		
3	공통	건축설계3·4	건축설계3·4	건축설계3·4	건축설계3·4
	전공필수		구조시스템 건축시공 건축재료		
	전공선택	건축공간론	디지털 패브릭캐이션 BIM 설계	건축과사회문화	건축과사회문화 서양근대건축사
4	공통	건축설계5·6	건축설계5,6 건축설비 건축환경	건축설계5·6	건축설계5·6
	전공필수				
	전공선택	도시설계론, 단지계획			건축디자인론
5	공통	건축설계7·8	건축설계7·8	건축설계7·8	건축설계7·8
	전공필수	건축실무와 윤리		건축실무와 윤리	
	전공선택	건축기획론			동양건축사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기초설계, 건축설계는 순차수강 필수, 역수강 및 중복수강 불가
추천 유관과목	없음

15. 수학과

학년		수학교육 및 연구	금융 및 보험	빅테이터/기계학습	계산과학
1	공통	대학수학 및 연습1, 2 벡터해석학 및 연습			
	전공필수				
	전공선택	수학적 읽기와 글쓰기 집합론	계산수학 및 프로그래밍	집합론 계산수학 및 프로그래밍 기초통계학	계산수학 및 프로그래밍 수학적 읽기와 글쓰기 집합론
2	공통				
	전공필수	해석학1			
	전공선택	상미분방정식론, 선형대수학1, 2, 정수론, 해석학2, 일반기하학, 미분기하학, 다변수해석학	상미분방정식론, 선형대수학1, 수치해석1, 보험수학	상미분방정식론, 선형대수학1, 수치해석1, 이산수학, 다변수해석학, 빅테이터기계학습	해석학2, 상미분방정식론, 선형대수학1, 2, 수치해석1, 다변수해석학
3	공통				
	전공필수	현대대수학1		현대대수학1	현대대수학1
	전공선택	위상수학1, 2, 복소해석학1, 2 편미분방정식론 현대대수학2	기초통계학 편미분방정식론 확률론개론 수치해석2	확률론개론 조합수학	기초통계학 복소해석학1, 2 수치해석2 편미분방정식론
4	공통				
	전공선택	수학사, 실변수함수론	금융수학개론, 금융수학특론, 수리통계학, 실변수함수론	수리통계학, 수학적모델설계, 응용수학특상, 조합수학심화세미나, 부호론과암호론	수리통계학, 수학적 모델설계, 응용수학특강
	전공필수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해석학, 대수학, 위상수학, 기하학	확률론	수치해석학, 응용수학개론, 확률론, 조합수학	수치해석학, 응용수학개론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계산수학 및 프로그래밍 → 빅테이터기계학습
추천 유관과목	금융 및 보험: 회계원리(경영학부), 미시경제학(국제통상학부), 거시경제학(국제통상학부), 재무관리(경영학부) 빅데이터/기계학습: 빅데이터처리및응용(정보융합학부), 데이터시각화(정보융합학부), 데이터마이닝분석(정보융합학부) 계산과학: 컴퓨팅사고(컴퓨터정보공학부), C프로그래밍(컴퓨터정보공학부), 고급C프로그래밍(컴퓨터정보공학부), 관심 응용주제 분야 학과의 전공필수과목

16. 전자바이오물리학과

학년		물리와 생물분야 융복합인재 1	디스플레이 소재/소자 전문가 2	반도체 및 신재생에너지 3	전산/정보과학분야 융복합인재 4
1	공통	일반물리 및 실험 1,2 생명과학 입문 생활속의 생명과학, 일반화학 및 실험 1,2	일반물리 및 실험 1,2 일반화학 및 실험1,2 대학수학 및 연습 1,2, 컴퓨팅 사고 프로그래밍 기초	일반물리 및 실험1,2 대학수학 및 연습1,2 컴퓨팅 사고, 프로그래밍 기초 일반화학 및 실험1,2	일반물리 및 실험1,2, 컴퓨팅 사고 프로그래밍 기초 대학수학 및 연습1,2 일반화학 및 실험1,2
	전공필수				
	전공선택				
2	공통				
	전공필수	역학, 전자기학1			
	전공선택	전자학1,2, 전자학실험1,2 세포생물학, 생체재료학, 전산물리 시뮬레이션물리, 양자물리개론	전자학1,2, 전자학실험1,2 전산물리, 시뮬레이션물리 양자물리개론	전자학1,2, 전자학실험1,2 현대물리개론, 양자물리개론 물리학개론, 물리수학1,2	전산물리, 시뮬레이션물리학 물리수학1,2, 현대물리개론 양자물리개론, 물리학개론 전자학1,2 (전공인정: (수학) 수치해석1, 빅테이터기계학습)
3	공통				
	전공필수	전자기학2, 양자역학			
	전공선택	생분자 물리학, 비이오환경 물리학 마이크로파 물리학 디지털회로 설계 및 실험1,2(수리생물학)	반도체소자 물리학1,2 광학, 정보디스플레이개론 디지털 회로 설계 및 실험1,2 광전자실험	반도체소자물리학1,2 디지털 회로 설계 및 실험1,2 열물리학 정보디스플레이개론, 광전자실험, 광학 (전공인정: (전자) 전자회로1/2)	열물리학, 디지털 회로 설계 및 실험1,2, 정보디스플레이개론, 광학 (전공인정: (수학) 수치해석2, 신경망딥러닝)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플라즈마물리, 바이오물리학 디스플레이반도체공정 핵및의학영상, (의학물리)	현대광학, 고체물리학/반도체물리학 디스플레이반도체공정 반도체소자실험 디스플레이소자실험	고체물리학/반도체물리학 디스플레이반도체공정 플라즈마물리학, 반도체소자실험 디스플레이소자실험, 현대광학 (신재생에너지물리학) (전공인정: (제로)분석기기론 (전자)의용생체전자공학개론)	고체물리학/반도체물리학 핵및의학영상, 반도체소자실험 디스플레이소자실험, 현대광학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Plasma-bioscience, Plasma Engineering for nanomaterials Biomedical Physics Analysis of Protein Stucture 대기환플라즈마, 플라즈마물리학 저온플라즈마 발생 및 이론	발광다이오드 조명이론 및 응용 비선형광학, 유기디스플레이개론 레이저물리 Organic Photonics Semina 플라즈마디스플레이물리학	고체물리 I , II , 반도체물리학 양자전자학 I , II , 응용물리학 펴면물리학, 자기유체공학 전산물리학, 고급물리학실험 계측개론, 반도체제전물리학 반도체공정플라즈마물리학 반도체제조물리학 양자전자소자물리학, 저온고체물리학 저차원반도체물리학, 표면박막물리학 플라즈마물리학, 이온빔발생및응용	비선형역학 I , II , 전산물리학 I , II 양자정론 I , II , 고급전산물리학 수리물리학 I , II , 통계역학 고급통계물리학, 응용물리학 비선형플라즈마물리학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17. 화학과

학년		연구 및 개발 분야	생산 및 품질 분야	사무 · 영업 · 기술지원 분야
1	공통	일반화학및실험1, 대학물리및실험1, 대학수학및연습1, 전공미리보기(OT학기제), 일반화학및실험2, 대학물리및실험2, 대학수학및연습2		
	전공필수			
	전공선택			
2	공통			
	전공필수	분석화학1, 유기반응디자인및실험1, 유기화학2		
	전공선택	유기화학1, 화학열역학, 생화학, 양자화학2분석화학 2, 유기반응디자인및실험2, 진로탐색및설계,	유기화학1, 생화학,진로탐색및설계 유기반응디자인및실험2,	
3	공통			
	전공필수	무기화학1, 양자화학2		
	전공선택	유기화학3, 신소재화학1,2, 기기분석, 무기화학2, 화학동력학, 생유기화학, 전산화학, 화학분석이론및실험1,2, 화학콜로키움	신소재화학1,2, 기기분석, 화학분석이론및실험1,2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공업화학, 고체화학개론, 유기합성, 유기금속화학, 물리화학특론, 나노화학, 유기분광학, 에너지소재화학, 유기반응, 유기금속촉매반응, 경력개발과취업전략, 4차산업과화학, 복합재료화학이론및실험1,2, 캡스톤설계	경력개발과취업전략, 4차산업과화학,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고급물리화학, 고급분석화학, 고급유기화학I,II, 고급무기화학I,II, 고급유기합성, 유기반응론, 합성유기화학, 고등유기금속, 분석화학특론, 생분석화학, 환경분석화학, 전도성고분자화학, 유기분광학, 무기화학특론, 에너지화학, 세미나, 캡스톤설계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전기화학		

선·후수과목	유기화학1→ 유기화학2→ 유기화학3	양자화학1→양자화학2
	유기화학3→ 유기합성, 유기반응	신소재화학1→신소재화학2
	무기화학1→ 무기화학2	생화학→유기화학
	분석화학1→ 분석화학2	무기화학2 →유기금속화학
추천 유관과목	없음	

18. 스포츠융합과학과

학년		스포츠행정가	스포츠 마케터	의료보건분야	생활체육지도자
1	공통	스포츠과학의이해		스포츠과학의이해, 생활속의응급처치	
	전공필수				
	전공선택				기초전공실기, 오리엔티어링
2	공통				
	전공필수	스포츠사회학		스포츠및운동심리학, 트레이닝방법론	
	전공선택	스포츠미디어, 스포츠정보, 스포츠빅데이터분석		운동기능해부학, 스포츠카운셀링	전공축구, 윈드서핑, 라켓스포츠
3	공통				
	전공필수			노인체육	
	전공선택	여가학, 스포츠산업학, 스포츠교육학, 스포츠경영학		체육측정평가, 스포츠영양학	전공골프, 스쿠버다이빙, 스포츠교육학, 운동발달및특수체육, 동계스포츠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스포츠정책 및 행정, 현장실습, 경력개발 취업전략		병태생리학, 운동검사및처방, 스포츠생체역학, 운동학습및제어, 경력개발 취업전략, 현장실습	운동학습및제어, 경력개발 취업전략, 현장실습
석사 박사	대학원	스포츠융합과학과			
	과목명	여가학연구 스포츠사회학연구		현대인의질병과운동, 병리학	현대인의질병과운동, 운동학습연구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19. 국어국문학과

학년		창의적 전문인의 양성 (작가)	실천적 현장인의 양성 (광고, 출판)	실천적 현장인의 양성 (언론사)	보편적 세계인의 양성 (한국어 교사)
1	공통	읽기와 쓰기			
	전공필수				한국고전문학전공기초(외국인) 한국현대문학전공기초(외국인) 한국어학의 기초(외국인)
	전공선택	문학개론			
2	공통				
	전공필수	국어학의 이해/현대문학사			
	전공선택	현대문학 창작연습	국문학개론	비평의 이론과 실재	한국어교육개론 국어음운의이해 국어문법의 이해
3	공통				
	전공필수	고전문학사			
	전공선택	현대문학작품선독 현대소설론 현대시론	출판기획 및 미디어현장실습	국어문장구조의이해 국어의미의이해	국어문장구조의이해 문체론과 방언론 국어의미의 이해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문예창작연습 현대문학세미나	광고언어론		생활한자연습 고전문학특강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문학텍스트의분석과해석 한국사실주의문학연구	논문특별연구세미나		한국어교육방법론연구 한국어발음교육론연구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0. 영어산업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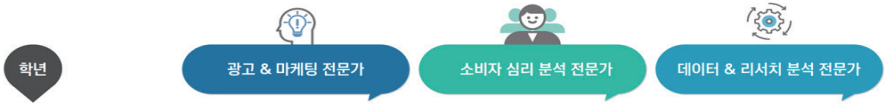
학년		영어 콘텐츠 전문가	번역 전문가	영어 빅데이터 전문가	영어 교육 전문가
1	공통	영어산업입문	영어산업입문 생활영어번역(교양)	영어산업입문	영어산업입문
	전공필수				
	전공선택	영미문학과 사회읽기			
2	공통		영상영어번역(교양)		
	전공필수	영문법		영어학입문 영문법	
	전공선택	마케팅내러티브 영화와 영미문화	미국문학과 대중문화 어휘형태론	음성학과 발음지도	언어습득 영어어휘지도 음성학과 발음지도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영미드라마와 실용영어 코퍼스 영어학	번역실습 코퍼스 영어학 문장구조분석 빅데이터 자연어 처리(연계)	코퍼스 영어학 문장구조분석 영어교재론	영어교육프로그램개발 문장구조분석 영어교재론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영문학과 스토리텔링 셰익스피어 산업 영어산업캡스톤프로젝트	문서번역 영어산업과 경영 영어산업캡스톤프로젝트 기계번역과 딥러닝(연계)	셰익스피어 산업	영어교육과 사회봉사 영어평가와 통계 영어산업과 경영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20세기 영문학 20세기 미국문학	번역학과 번역산업	영어학 특강	언어습득론 영어교수방법론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문서번역 기계번역과 딥러닝(연계)	코퍼스 영어학	영어어휘지도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1.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학년		언론 및 매체 전문가 (언론정보전공)	디지털 콘텐츠 프로듀서 (디지털미디어전공)	협상 및 광고 홍보 전문가 (전략커뮤니케이션전공)
1	공통	비주얼커뮤니케이션디자인		
	전공필수	미디어커뮤니케이션의이해		
	전공선택	방송영상론	인터랙티브커뮤니케이션개론	광고PR과전략커뮤니케이션
2	공통			
	전공필수	커뮤니케이션탐구방법		
	전공선택	미디어와사회, 대중영화의이해 영상적사고와상상력 뉴스와기자, 논픽션미디어의이해 미디어와젠더, 커뮤니케이션과네트워크	디지털영상촬영및편집 컴퓨터그래픽디자인, HCI와UX평가 커뮤니케이션과혁신 모션그래픽이론및실습 실감미디어론, APP디자인 앱개발이론과실습	전략적커뮤니케이터와 창의적캠페이너 인간커뮤니케이션 미래시나리오전략기획 마케팅커뮤니케이션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미디어문화론, 방송콘텐츠다시보기 미디어기업과혁신, 엔터테인먼트산업 뉴스비판과제작연습, 미디어리터러시 스토리텔링기획과창작 디지털미디어사회의이해 온라인네트워크와사회참여 미디어교양세미나 커뮤니케이션과사회문제 디지털미디어와문화분석	디지털마케팅크리에이티브 인포그래픽디자인, UX/UI기획및제작 비주얼스토리텔링, 실감미디어콘텐츠개발	마케팅PR(MPR), 소셜마케팅 스피치와PT, 정서와소비자행동 광고PR콘텐츠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빅데이터와커뮤니케이션 디지털미디어와여론	포트폴리오워크샵, BI디자인 시각정보디자인	글로벌전략커뮤니케이션 통합커뮤니케이션캠페인 스몰데이터분석기획
석사 박사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과		
	과목명	빅데이터와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소셜네트워크방법론 미디어산업과정책연구		공공커뮤니케이션과PR캠페인연구 브랜드커뮤니케이션 소비자심리와행동, 공공소통세미나 마케팅커뮤니케이션 설득커뮤니케이션연구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2. 산업심리학과



학년		광고 & 마케팅 전문가	소비자 심리 분석 전문가	데이터 & 리서치 분석 전문가
1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리학개론 I , II		
2	공통			
	전공필수	심리통계학,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전공선택	컴퓨터통계분석 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컴퓨터통계분석 조사방법론 사회심리학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소비자심리학 소비자의사결정심리학		소비자심리학 소비자의사결정심리학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참빛설계 I 광고심리학, 심리데이터분석	참빛설계 I , 심리데이터분석 광고심리학, 상담이론과실제	심리데이터분석 광고심리학, 인사평가와성과관리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소비자심리학 세미나, 광고심리학 세미나, 설득커뮤니케이션세미나 I , II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세미나, 판단과의사결정, 소비자행동의 이해 환경과소비문화, 고급심리통계, 다변량통계분석 등		고급심리통계 다변량통계분석 소비자심리학 세미나 광고심리학 세미나 설득커뮤니케이션세미나 등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2. 산업심리학과

학년		인사 · 노무 관련 전문가	조직개발(교육) 전문가
1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리학개론1, 심리학개론2	
2	공통		
	전공필수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심리통계학, 실험심리학	
	전공선택	컴퓨터통계분석, 조사방법론	컴퓨터통계분석, 조사방법론, 학습심리학, 사회심리학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직무분석, 인적자원개발, 산업조직동기관리, 리더십코칭	직무분석, 인적자원개발 산업조직동기관리, 코칭심리, 리더십코칭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사평가와성과관리 심리데이터분석, 캡스톤설계조직심리세미나	인사평가와성과관리, 심리데이터분석 캡스톤설계조직심리세미나, 코칭실습 및 슈퍼비전 행동변화코칭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고급인사심리학, 고급조직심리학, 인사선발, 동기관리와리더십, 성과관리이론 고령화사회의경력평가및관리, 팀개발과조직개발 산업교육 등	인사선발, 동기관리와리더십, 성과관리이론 팀개발과조직개발, 산업교육, 고급코칭심리 비즈니스코칭, 코칭심리사례연구 등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회사법연구(법학), 지식경영(경영) 노사관계와사회적대화(행정)	
선·후수과목		심리통계학 → 컴퓨터통계분석 코칭심리 → 리더십코칭 → 코칭실습 및 슈퍼비전, 행동변화코칭	
추천 유관과목		조직행동(경영학부), 조직문화와리더십(경영학부), 인적자원관리(경영학부), 경영통계분석(경영학부)	

22. 산업심리학과

학년		인지공학(Human Factor) 전문가	사용자 경험 및 환경 전문가 (UX / UI)
1	공통	컴퓨팅사고, 대학영어, 프로그래밍기초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리학개론1,2	
2	공통		
	전공필수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심리통계학, 실험심리학	
	전공선택	컴퓨터통계분석, 사회심리학,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소비자의사결정심리학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인지공학심리학 심리데이터분석	인지공학심리학 광고심리학 심리데이터분석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과목명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고급통계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심리통계 → 컴퓨터통계분석, 심리학개론1,2 → 인지심리학, 지각심리학	
추천 유관과목	데이터베이스 기초 디자인공학(소프트웨어대학)	Human Computer Interaction(컴퓨터공학과) 인터랙티브커뮤니케이션개론(미디어영상학부) 앱개발이론과실제(미디어영상학부)
교과목 개편 방안		미디어영상학부, 정보융합대학과 연계 전공 개발 및 연계 학과 개설. (ex. 인지공학 전공, HCI 전공, UX/UI 개발 전공)

22. 산업심리학과

학년		리더십코칭 전문가(리더십코칭 연계전공)	커리어전문가
1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심리학개론1, 심리학개론2	
	타과 과목	경영학의 이해	
2	공통		
	전공필수	인사심리학, 조직심리학, 심리통계학, 실험심리학	
	전공선택	사회심리학, 발달심리학, 조사방법론, 컴퓨터 통계분석	학습심리학, 발달심리학, 조사방법론, 컴퓨터통계분석
	타과 과목	마케팅, 조직행동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코칭심리, 리더십코칭	코칭심리, 리더십코칭 직무분석, 인적자원개발, 상담이론과 실제
	타과 과목	조직문화와리더십, 인적자원관리 비즈니스와 사회적공헌, 경영전략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코칭실습및슈퍼비전, 행동변화코칭 성격심리학, 인사평가와성과관리, 심리데이터분석	코칭실습및슈퍼비전, 행동변화코칭 성격심리, 진로상담, 조직심리세미나 인사평가와성과관리
	타과 과목	비즈니스 아이템발견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교육대학원	
	과목명	고급코칭심리 비즈니스코칭 코칭심리사례연구 등	고급코칭심리, 커리어코칭 라이프코칭, 코칭심리사례연구 등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리더십코칭 연계과정 : 다음의 과목들 중 총 30학점 이수 - 연계전공 공통과목 : 코칭실습 및 슈퍼비전, 행동변화코칭 - 산업심리학과 : 조직심리학, 사회심리학, 코칭심리, 리더십코칭, 인사평가와성과관리 - 경영학부 : 경영학의 이해, 마케팅, 조직행동, 조직문화와리더십, 경영전략, 인적자원관리, 비즈니스와사회적공헌, 비즈니스아이템발견
제 안 사 항	학습코치 인증제 - 코칭심리+학습심리+인지심리+코칭심리 실습 및 슈퍼비전 이수한 학생(+실제 학습코칭경험)

23. 동북아문화산업학부

학년		문화콘텐츠 개발전문가	문화기획 전문가	한중 문화교류 전문가	한일 문화교류 전문가
1	공통				
	전공필수			중국어기초1, 중국어기초2	일본어기초1, 일본어기초2
	전공선택	동북아문화산업과진로, 동북아문화산업의미래 ,문화분석			
2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미디어콘텐츠기초실습, 브랜드기획제작실습, 디지털콘텐츠제작실습1, 디지털콘텐츠제작실습2	문화마케팅, 문화산업개론, 문화원형상징론, 한국영화문화론	아시아문화와문화와 문화콘텐츠기획 (구,한중관계와한류)	일본영상문화론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광고콘텐츠제작실습, 문화상품제작실습, 스토리텔링과매체변용, SF장르와문화콘텐츠	컬쳐디자인, 한국문화콘텐츠의이해, 현대문화이론	변혁기의현대중국문학, 중국서사와문화원형	일본서사와문화원형, 일본애니메이션과 문화산업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문화산업과유통	문화비평연습, 중국사회와시장분석, 중국문화와 문화산업분석	한일문화비교론, 탈근대일본현대소설, 일본근대소설과문화, 일본서브컬처론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문화산업학과			
	과목명	대중문화론, 콘텐츠디자인특론	문화기획이론과실제	중국한류연구, 한중 문화산업비교 연구세미나	일본한류연구, 일본문화산업세미나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4. 행정학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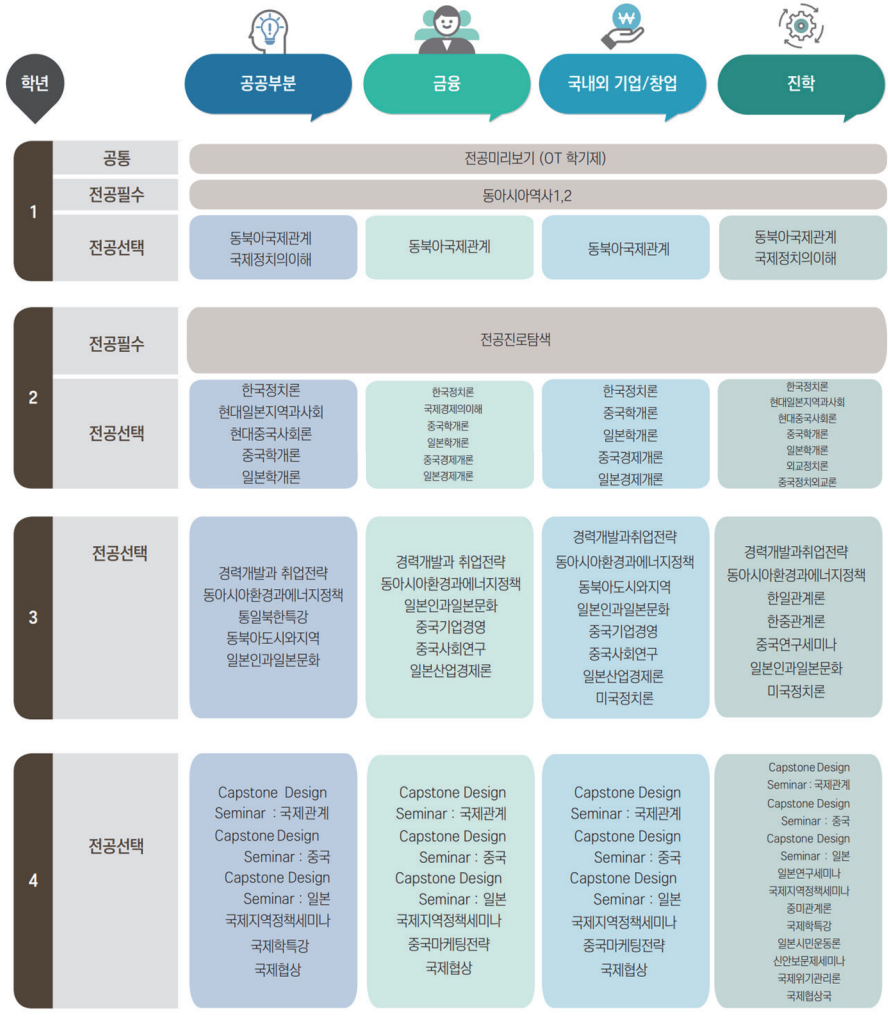
학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무원	교수, 정부출연기관, 연구소 연구원	공기업, 비영리조직	일반기업체
1	공통				
	전공필수	행정학 개론			
	전공선택	현대사회 문제론 Public Administration in Society			
2	공통				
	전공필수	조직론, 정책학, 사회과학 조사방법론			
	전공선택	지방정부론	관료제와 민주주의	정부재정론	인사행정론
3					
	전공선택	재무행정론, 미래정부와 성과관리			
		규제정책론	정책분석평가론	비영리섹터와 사회적 경제	빅데이터분석론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행정및정책사례세미나	행정개혁론	공공기관론	행정이슈특강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정책이론세미나 행정이론세미나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5. 법학부

학년		로스쿨	공무원시험	전문자격 취득	기업반 (공기업 및 사기업)
1	공통	법과생활, 대학영어, 프로그래밍기초, 컴퓨팅사고, 법과정의, 법률용어론			
	전공선택	헌법1, 헌법2, 민법총칙1, 민법총칙2, 형법총론1			
2	공통	법과경제, 법과권리, 법과정치, 법논리학			
	전공필수	국제법1, 채권총론, 행정구제법, 특허법			
	전공선택	행정법총론, 형법총론2, 상법총론, 과학기술법제론, 지적재산법, 기본권론(구,헌법판례세미나), 회사법, 형법각론, 채권각론, 국제법2, 법정보학			
3	전공필수	민사소송법			
	전공선택	노동법, 물권법, 어음수표법, 형사소송법, 국제계약법, 상표법, 민사집행법, 정보통신법개론, 부동산공법(구,토지공법), 영문계약실무크리닉, 헌법소송법, 가족법, 보험법(구,해상보험법), 국제거래법, 행정법각론, 세법, 디자인보호법, 인터넷법이론과실무, 민사소송실무, 형사정책			
4	전공선택	경제법, 형사소송실무, 국제경제법, 형사법판례세미나, 전자거래법, 특허심판과소송실무, 담보물권법, 행정법판례세미나(구,행정법연습), 국제조직법(구,상사판례세미나), 정보보호법이론과실무, 저작권법, 동물법,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법학과, 건설법무학과), 특수대학원(건설법무대학원)			
	과목명	국가계약법연구, 협상학특수연구, 행정사법연구, 국제협상연구, 법철학특수연구, 특허기술이전과실시권, 건설계약특수연구, 기본권특수연구, 입법론연구 등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헌법, 행정법총론, 행정구제법, 형법총론, 민법총칙, 채권총론, 채권각론, 상법총칙, 부동산공법, 경제법, 국제계약법, 민사소송법			
추천 유관과목		노동법2(공인노무사연계전공)			

26. 국제학부


학년
공공부분
금융
국내외 기업/창업
진학
1
공통
전공미리보기 (OT 학기제)
전공필수
동아시아역사1,2
전공선택
동북아국제관계
국제정치의이해
동북아국제관계
동북아국제관계
동북아국제관계
국제정치의이해
2
전공필수
전공진로탐색
전공선택
한국정치론
현대일본지역과사회
현대중국사회론
중국학개론
일본학개론
한국정치론
국제경제의이해
중국학개론
일본학개론
중국경제개론
일본경제개론
한국정치론
중국학개론
일본학개론
중국경제개론
일본경제개론
한국정치론
현대일본지역과사회
현대중국사회론
중국학개론
일본학개론
외교정치론
중국정치외교론
3
전공선택
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동아시아환경과에너지정책
통일북한특강
동북아도시와지역
일본인과일본문화
경력개발과 취업전략
동아시아환경과에너지정책
일본인과일본문화
중국기업경영
중국사회연구
일본산업경제론
경력개발과취업전략
동아시아환경과에너지정책
동북아도시와지역
일본인과일본문화
중국기업경영
중국사회연구
일본산업경제론
미국정치론
경력개발과취업전략
동아시아환경과에너지정책
한일관계론
한중관계론
중국연구세미나
일본인과일본문화
미국정치론
4
전공선택
Capstone Design
Seminar : 국제관계
Capstone Design
Seminar : 중국
Capstone Design
Seminar : 일본
국제지역정책세미나
국제학특강
국제협상
Capstone Design
Seminar : 국제관계
Capstone Design
Seminar : 중국
Capstone Design
Seminar : 일본
국제지역정책세미나
중국마케팅전략
국제협상
Capstone Design
Seminar : 국제관계
Capstone Design
Seminar : 중국
Capstone Design
Seminar : 일본
국제지역정책세미나
중국마케팅전략
국제협상
Capstone Design
Seminar : 국제관계
Capstone Design
Seminar : 중국
Capstone Design
Seminar : 일본
일본연구세미나
국제지역정책세미나
중미관계론
국제학특강
일본시민운동론
신안보문제세미나
국제위기관리론
국제협상국

27. 경영학부 경영학전공

		마케팅 전문가	인사노무 전문가	재무회계 전문가	SCM/물류 전문가 생산/품질관리 전문가
1	공통	경영통계, 경영과 컴퓨터			
	전공필수			회계원리	
	전공선택		경영학의 이해		
2	공통				
	전공필수	마케팅	조직행동	재무관리	생산운영관리 MIS개론
	전공선택	소비자행동		원가회계 재무회계	경영과학 비즈니스데이터분석 인터넷프로그래밍 경영통계분석 인터넷기반기술 프로그램구조론
3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경영전략 유통관리 광고론 서비스경영 마케팅조사 소셜미디어마케팅 서비스마케팅	노사관계 조직문화와 리더십 인적자원관리 국제경영 비즈니스와 사회적공헌	관리회계 증권투자론 중급회계1 재무설계1 중급회계2 재무설계2 기업재무론 파생금융상품론	경영데이터베이스 정보화전략 경영시뮬레이션 ERP개론 비즈니스인텔리전스 SCM CRM 생산&MIS세미나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혁신제품의 사업화마케팅 비즈니스아이템발견 브랜드관리	기술혁신관리 벤처경영 조직이론	회계감사 고급회계 금융시장론 재무분석 가치평가론 세무회계	비쥬얼애널리틱스 품질경영 빅데이터기획분석론 경영데이터과학론 기업정보보안 소셜네트워크분석 IT융합비즈니스모델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마케팅이론, 마케팅전략	조직행동, 경영전략 조직이론	재무회계연구방법론 재무제표분석, 고급재무론	계량경영분석, 의사결정론 OR 특수연구, 재고관리
	기타 (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	없음
추천 유관과목	없음

28. 경영학부 빅데이터경영전공

학년		데이터분석 및 컨설팅 분야	디지털 비즈니스 혁신 분야	AI 기술 사업화 분야
1학년	공통	정보영역 필수교양	정보영역 필수교양	대학영어, 융합적사고와 글쓰기
	전공필수	MIS개론	MIS개론	MIS개론
	전공선택	AI경영수학	AI경영수학	
2학년	공통	과학과 기술, 수리와 자연 균형교양	과학과 기술, 수리와 자연 균형교양	
	전공필수		재무관리, 마케팅	재무관리, 마케팅
	전공선택	AI프로그래밍1, 2, 빅데이터와 경영데이터베이스, 데이터시각화	데이터시각화	빅데이터와 경영데이터베이스, 데이터시각화
3학년	공통			
	전공필수		회계원리	회계원리, 조직행동
	전공선택	데이터사이언스론1, 2, 빅데이터분석과 R	데이터사이언스론1, 빅데이터기반기술	데이터사이언스론2, 빅데이터기반기술
4학년	공통			
	전공필수			생산운영관리
	전공선택	딥러닝	디지털전환과 비즈니스모델, 스마트비즈니스	딥러닝, 디지털전환과 비즈니스모델, 스마트비즈니스
석사 박사	대학원 과목명	인공지능, BI, 정보시스템평가	MIS 연구방법론, 정보시스템계획	MIS 연구방법론 정보시스템 평가
	기타(학부선택과목 등)			
선·후수과목(필요시 작성)		없음		
추천 유관과목(필요시 작성)		없음		

29. 국제통상학부

학년		물류전문가	해외비즈니스전문가	응용경제분석 전문가	금융경제 전문가
1	공통	영어, 중국어/일본어		영어회화, 대학영어	
	전공필수	국제통상개론	국제통상개론	국제경제의 이해	국제경제의 이해
	전공선택				
2	공통	영어, 중국어 / 일본어			
	전공필수	무역상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무역상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회의영어, 비즈니스영어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국제회의영어, 비즈니스영어
	전공선택	무역영어 무역상무연습	무역영어 국제e-비즈니스론	경제경영수학, 생활속의통계 기초통계학[3]	경제경영수학, 생활속의통계 기초통계학[3]
3	공통	영어, 중국어 / 일본어			
	전공필수			게임이론과 전략적 의사결정	
	전공선택	국제물류관리론 국제운송론	중국경제론 / 한일통상론 비즈니스협상론	경제계량분석, 화폐금융론 국제무역론 정보경제학[1] 경제데이터의 이해, 기초통계학[3]	화폐금융론, 외환시장론 국제금융과 개방경제 회계원리[2], 재무관리[2]
4	공통				
	전공필수				
	전공선택	국제계약과 분쟁해결 국제경쟁력분석론 동북아경제통합론	지역통상실습 일본기업과경영 중국산업과기업경영	무역정책론, 정보경제학 기초통계학[1], 수리통계학[2] 데이터의 시각화[1] 경제텍스트 마이닝[1]	핀테크와 금융정책 금융시장론[2] 파생금융 상품론[2] 수리통계[3], 금융수학 개론[3]
석사 박사	대학원	일반대학원 국제통상학과			
	과목명	조사방법론, 고급무역상무론 국제물류관리론연구 고급 글로벌공급관리론 무역영어 연구 국제e-비즈니스론 연구 국제마케팅연구	조사방법론, 무역상무연구 고급국제협상론, 무역영어 연구 무역계약론연구, 국제협상론연구 인터넷 무역론연구 무역관계법규		
	기타 (학부 선택과목 등)	무역상무, 국제물류 관리론 경영학부 : 유통관리, SCM 마케팅, 비즈니스 데이터분석 회계원리	무역상무, 무역영어 법학부 : 국제계약법 국제거래법, 보험법 전자거래법		

선후수과목	물류 전문가 및 해외비즈니스 전문가 인재의 경우 영어(국제회의영어, 비즈니스영어)와 중국어/일본어 (중국어기초1, 2/일본어기초1, 2, 중국어청취연습/ 중급일본어연습)를 1학년과 2학년 과정에서 이수	미시경제 → 거시경제 미시경제 → 게임이론과 전략적 의사결정 거시경제 → 화폐금융론 → 국제금융과 개방경제 → 외환시장론
추천 유관과목	경영학부 : 유통관리, SCM, 마케팅, 비즈니스데이터 분석, 회계원리 법학부 : 국제계약법, 국제거래법, 보험법, 전자거래법	경영학부 부전공 추천

1) 신설예정과목, 2) 경영학부 과목, 3) 수학과 과목

교사와 학생, 학교가 함께하는

학생부종합전형 이야기

열한 번째 이야기